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조 용 현

##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연구

-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ourism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on Internet: Focus on the Major Tour Information  
Websites in Korea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 전공

조 은 정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조 용 현

##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연구

-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를 대상으로 -

A Study on Tourism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on Internet: Focus on the Major Tour Information  
Websites in Korea

이 논문을 박사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0.12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 전공

조 은 정

이 논문을 조은정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0.12

심사위원장	김 형 곤	(인)
심사위원	서 원 석	(인)
심사위원	임 재 만	(인)
심사위원	안 윤 영	(인)
심사위원	조 용 현	(인)

## 감사의 글

빠르게 스쳐간 지난 5년이 생각납니다. 이 길의 목표조차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시작하였던 2006년 봄부터 2010년 겨울까지, 몇 번의 휴학과 손 놓음을 거쳐 어렵게 유지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려웠던 기간 동안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제일 먼저,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과 인연을 맺게 해주시고 이 아둔하고 미련한 학생을 지금까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지도해 주신 조용현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이 논문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이 조언해주신 임재만 교수님, 김형곤 교수님, 안윤영 교수님, 경희대학교의 서원석 교수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호텔관광대학의 이해주 교수님, 김성혁 교수님, 김홍범 교수님, 정규엽 교수님, 이희찬 교수님, 조미혜 교수님, 정유경 교수님, 그리고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신 이형룡 교수님과 김종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8년여를 보낸 산업대학원(eMA)의 구성원 분들께 그간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해수 원장님, 전태유 교수님, 박노현 교수님, 김기현 과장님, 송미정 주임님, 안두현·최정윤·김국래·김선아 조교선생님들, 그리고 주진형 선생님, 퇴직하신 김용식 차장님의 오랜 기간 마음의 응원에 큰 감사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제 상황을 걱정해주시던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님과 도시부동산대학원의 김수현 교수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수영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명 되지 않는 동료로서, 언제나 도움을 받았던 일반대학원 김은영 선생님과 양하영 선생님, 평생교육원 송윤주 선생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성숙정 선생님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인 부모님과 언니, 동생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고전 중에 있는 동생 조선정도, 의지를 굳게 하여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박사 동문이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0년을 마감하며, 조은정 드림



##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4
제3절 연구의 구성 .....	5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관광자원의 분류 .....	7
1. 관광자원의 분류 .....	7
2. 관광 관련 분류체계 연구 .....	13
제2절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	18
1. 분류 및 분류체계 .....	18
2. 전통적 문헌분류법 .....	19
3.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 .....	21
4.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연구 .....	25
제3장 연구 설계 .....	41
제1절 연구 과제 .....	41
제2절 연구 설계 .....	42
1. 분석 대상 사이트 .....	42
2. 분석 방법 및 분석 기준 .....	43

제4장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 분석 .....	53
제1절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 구조 .....	53
제2절 주제별 디렉토리 분석 .....	57
1.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분석 .....	58
2.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분석 .....	98
제3절 종합 결과 .....	133
1. 디렉토리 종합 분석 .....	133
2. 주요 분류체계 문제점 분석 .....	141
3. 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 분류체계 개선 안 .....	147
제5장 결    론 .....	151
제1절 연구의 요약 .....	151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	157
1. 연구의 시사점 .....	157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	158
참고문헌 .....	160
1. 국내문헌 .....	160
2. 국외문헌 .....	162
3. 인터넷 사이트 .....	164
부    록 .....	165
1. 관광정보사이트 화면 .....	165
2. 2008 지자체 관광홈페이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	175



## 표 목차

<표 1-1> 연구의 흐름도 .....	6
<표 2-1>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자원 분류 .....	8
<표 2-2> 한국관광연구원의 관광자원 분류: 문화 .....	9
<표 2-3> 한국관광연구원의 관광자원 분류: 자연생태환경 .....	9
<표 2-4> 한국관광연구원의 관광자원 분류: 관광장소 및 시설 .....	10
<표 2-5>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관광자원 분류 .....	11
<표 2-6> 관광대상의 구성요소 .....	14
<표 2-7> 관광대상의 수직적 분류 예(경관) .....	15
<표 2-8> 레저산업의 분류 .....	17
<표 2-9> 인터넷 검색엔진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 기준 .....	32
<표 2-10> 인터넷 쇼핑몰 상품 분류체계 기준 .....	37
<표 2-11> 특정 주제의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기준 .....	40
<표 3-1> 분석 대상 관광정보사이트 개요 .....	43
<표 3-2>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 분류체계 기준 .....	45
<표 4-1> 4개 관광정보사이트의 디렉토리 구성 .....	56
<표 4-2>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	58
<표 4-3>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	69
<표 4-4>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	70
<표 4-5>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	77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	78
<표 4-7>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	86
<표 4-8> 사이버강원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	87
<표 4-9> 사이버강원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	97

<표 4-10> 한국관광공사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	98
<표 4-11> 한국관광공사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	106
<표 4-12>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	107
<표 4-13>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	117
<표 4-14>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	118
<표 4-15>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	125
<표 4-16> 사이버강원관광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	126
<표 4-17> 사이버강원관광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	132
<표 4-18>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비교 .....	133
<표 4-19>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비교 .....	137
<표 4-20>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분류체계 문제점 비교 .....	141
<표 4-21>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분류체계 문제점 비교 .....	144

## 그림 목차

<그림 2-1> 효율적인 검색 디렉토리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 .....	35
<그림 4-1>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검색 화면 .....	66
<그림 4-2> 한국관광공사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검색 화면 .....	102
<그림 4-3> 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 설계 모형 .....	150
<그림 4-4>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	165
<그림 4-5>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	166
<그림 4-6>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구성 화면 .....	167
<그림 4-7>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구성 화면 .....	168
<그림 4-8>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	169
<그림 4-9>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	170
<그림 4-10>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	171
<그림 4-11>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	172
<그림 4-12>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	173
<그림 4-13>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	174

## 논문요약

###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연구

#### -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를 대상으로 -

이 연구는 국내 인터넷 관광정보 분야의 분류체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개의 분류체계 기준 항목들을 선정하여 국내 주요 4개 관광정보사이트의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탐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관광정보사이트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울특별시문화관광 ‘iTourSeoul’,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강원관광’이다.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은 디렉토리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 ‘음식점’ 정보이다.

분류체계 기준은 기존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①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②디렉토리 폭의 적절성(디렉토리의 포괄성,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③컨텐츠 수의 균형성, ④디렉토리 명과 하위 컨텐츠의 일치성, ⑤디렉토리 및 컨텐츠의 배열성, ⑥용어의 적절성, ⑦유지관리성·최신성, ⑧중복성, ⑨검색의 효율성(검색 옵션, 컨텐츠 수의 명시)으로 세부 항목을 포함하여 모두 12개 항목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4개 사이트 공통적으로, 효율적인 분류체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개 항목 기준들 중, ‘디렉토리 명과 하위 컨텐츠의 일치성’, ‘디렉토리 및 컨텐츠의 배열성’, ‘중복성’이 문제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들의 현 실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홈페이지의 외양이 화려해지고 보유 콘텐츠도 다양해졌지만, 정보 분류와 검색의 기초가 되는 분류체계에는 주의를 덜 기울였다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12개 항목의 분류체계 기준들은 그 개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 기준이 맞지 않게 되면 다른 기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학문과 특정 분야의 인터넷 정보 분류 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터넷 관광정보 분야는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룰 뿐, 정보검색의 효능을 높여주는 본질적인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연구의 시도가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되짚어 보고, 이후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성립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내 다양한 관광정보사이트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4개 사이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분석대상 디렉토리를 ‘관광지 및 관광자원’, ‘음식점’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인터넷 사이트의 다양한 인터페이스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넷째, 정보검색자의 실질적인 이용행태 연구를 함께 진행하지 못하고, 연구자가 현행 사이트의 분류체계 기준에 대하여 탐색적인 분석만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12개 항목 분류체계 기준 이외에 검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류체계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위 한계점을 보완한 향후 연구는 현재보다 효율성 있는 인터넷 환경의 관광정보 분류체계의 확립과 표준화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분류체계, 분류체계 기준,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 관광자원 분류, 관광정보 분류, 관광정보 분류체계, 문헌분류, 관광정보사이트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한다. 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여행지 정보를 충분히 탐색할 것이다. 여행지에 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고 단순한 키워드검색으로는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행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분류체계, 즉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하여 목표로 하는 정보에 한 단계씩 접근해 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디렉토리 브라우징 또는 디렉토리 검색이라 한다. 디렉토리는 인터넷 정보들을 일정한 주제나 기준에 맞추어 범주화하여 분류한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관광정보사이트, 또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통해 관광자원이나 관광지를 검색할 때, 정확한 키워드를 알지 못한다면 키워드 검색 보다는 위와 같은 디렉토리 검색으로 정보를 구할 것이다. 하지만 매체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고, 이마저 일정한 기준이나 법칙이 없이 배열되어 있다면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관광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 포털사이트 역시 나름대로의 관광자원 및 관광지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떠한 정립된 기준으로 자원을 분류했는지 알기 어려우며, 분류체계에 이용자들의 검색 효율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자원의 관리와 유지보수, 지속적인 보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관광자원의 개념을 주로 유형 자원 및 무형 문화유산으로 보았다면, 현대의 개념은 지식정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관광정보 영역이 발달하고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관광정보시스템이라는 하나의 큰 복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관광자원의 의미도 보고 만지는 것에서 지식체계인 관광자원 및 관광정보로 확대되었다. 이에 맞추어 현대의 관광자원 관리와 분류 개념 역시 관광지식정보를 포괄하여 변화하고 있다. 즉, 기초 데이터 관리 목적의 문헌상 분류와 보존에서, 관광정보이용자의 정확하고 빠른 정보획득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분류와 재정비로 나아가야 한다.

Sayer(1967)는 자료의 분류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편성, 포괄성, 정밀성, 가능성, 일관성, 논리성, 구체성, 용어의 명확성, 조기성, 간결한 분류기호 등을 꼽았다. 김형년(2004)은 이 기준들은 도서분류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원의 분류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핵심항목이라 강조하였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인터넷 상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선별된 사이트들을 주제별로 분류, 조직하여 제공한다. 디렉토리는 단계별 계층 구조로 구성되며, 상하 관계, 연관 관계와 같은 주제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 준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인터넷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던 포털들의 대표적 서비스이며, 키워드 검색보다 비교적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디렉토리 서비스는 특정한 주제 분야나 주제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주제가 유사한 사이트들을 쉽게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색에 이용될 질의에 대한 정황 또는 배경 정보를 제공하며, 탐색의 확장 및 축소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Koch<sup>1)</sup>, 1997; 박소연, 2009. 재인용).

따라서 포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향해 및 브라우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요청된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디렉토리 구성의 최소 단위인 사이트를 평가 대상으로 할 경우, 사이트의 품질, 수집된 사이트들의 규모 및 범위, 사이트의 유효성, 사이트등록

---

1) Koch, T.(1997). 박소연(2009)이 2009년 1월 9일 직접 인용한 것을 재인용함. 현재 이 사이트는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http://www.unkoln.ac.uk/metadata/desire/classification/classification.rtf>)



및 분류의 적정성 등이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분류체계 및 분류 전개 기준, 분류의 논리성 및 일관성, 계층의 폭 및 깊이, 카테고리명의 명확성 및 최신성, 카테고리의 배열 순서, 인터페이스 등도 디렉토리 서비스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박소연, 2009).

디렉토리 체계는 웹사이트 품질 측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The Webby Awards의 웹사이트 평가기준<sup>2)</sup>은 Contents, Structure and Navigation, Visual Design, Functionality, Interactivity, Overall Experience이며, 조선일보사가 주최하는 ‘조선일보 인터넷대상’에서 고려하는 웹사이트 평가기준<sup>3)</sup>은 시스템, 사용성, 디자인 등이다. 이 중 사용성 측면에 ‘구조 및 항해(Structure and Navigation)’가 포함되어 있다(우찬복, 2003 재인용). 구조 및 항해(Structure and Navigation)는 분류체계, 즉 디렉토리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인터넷정보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의 목적은 대부분이 효율적인 정보 검색을 위해서이다.

관광학 분야는 지금까지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상품화, 관광정보사이트의 구축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이의 기초가 되는 연구, 즉 인터넷 상에서 정보이용자가 쉽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및 자원 분류체계를 재조명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두 명의 국내 학자(김계섭, 이홍운)의 연구 이후로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광정보사이트에서 분류한 관광자원 분류항목은 최대 수백 개에 이를 정도로 그 콘텐츠 수가 매우 방대하다. 그러나 관광정보사이트마다 그 분류체계가 달라 이용자들이 정보를 구하는데 있어 혼란스러워 한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미 여러 학문이나 주제 분야에서 기본적인 문헌분류법을 토대로, 주제별 특성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관광학에서도 이제는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인

---

2) 우찬복(2003)의 연구에서 재인용함. (<http://www.webbyawards.com>)

3) 우찬복(2003)의 연구에서 재인용함. 현재 이 사이트는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http://cia.chsun.com>)

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관광정보 디렉토리 서비스의 표준화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 관광정보 분류체계 연구는 1990년대 말 이후 후속연구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인터넷 환경에서 효율적인 관광정보 분류체계 기준을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고 재고하려는 시도가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문헌분류법과 인터넷 디렉토리 분류체계, 특정 주제의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구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한 분류체계 기준들이 현재 인터넷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위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인터넷 환경에서 효율적인 관광정보 분류체계의 기준을 재정립하여, 향후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의 표준화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관광정보사이트 및 관광전문 검색엔진의 개발과 구축에 밑받침이 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4개 관광정보사이트들의 주요 관광정보 디렉토리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들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가 탐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분석 대상 사이트는 우리나라 전국과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등 주요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주요 관광정보 디렉토리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 ‘음식점’은 각 관광정보

사이트에서 보유 콘텐츠 수가 가장 많은 디렉토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 검색을 위해서 분류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각 관광정보사이트 분류체계의 특징 및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관광정보사이트에서 가장 필요로 하며, 부족한 분류체계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제3절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서술함으로써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이 연구를 뒷받침하고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으로, 국내 관광자원의 분류에 대한 연구와,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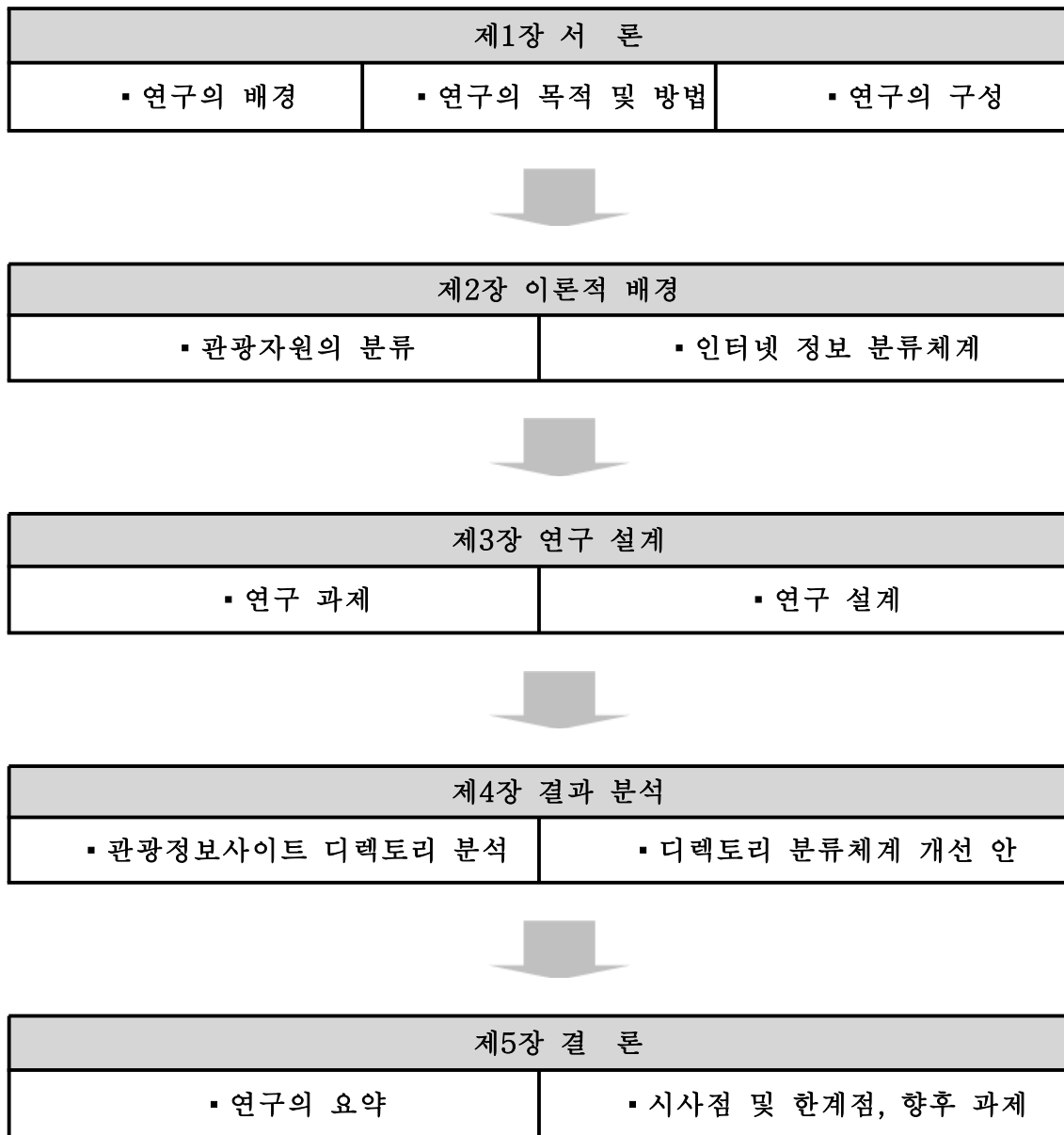
제3장은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부분이다.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분석할 사이트와 분석 범위, 분류체계 기준에 대한 설명 등 전반적인 연구 설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4장은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분석부분이다. 분석 대상 관광정보사이트의 디렉토리 및 분류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인터넷 분류체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효율적인 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 설계 및 분류체계 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및 한계점을 밝히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1-1>은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표 1-1> 연구의 흐름도



## 제2장 이론적 배경

### 제1절 관광자원의 분류

#### 1. 관광자원의 분류

김철원(1999)은 관광자원의 체계적 연구 및 이용을 위한 주요 분류방법으로 인위분류법, 자연분류법, 계통분류법 등이 있으며, 분류 기준은 주로 자원입지, 이용수준, 토지이용단위, 자원성격의 요인 등이라 설명하였다.

이 절에서는 관광자원의 분류에 대한 초기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연구원의 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거의 분류를 기반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식정보 체계화 차원에서 구축,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관광자원 분류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가. 한국관광공사의 분류(1987)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크게 유형과 무형으로 관광자원을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유형자원은 자연/문화/사회/산업/레크레이션으로, 무형자원은 인적/비인적 자원으로 나누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자원 분류체계의 기준은 관광자원의 가시성 여부이며, 자원을 유·무형으로 나눈 것은 자원의 관리를 위해서이다. 하지만 무형 관광자원은 유형 관광자원의 하위 분류 항인 문화적 관광자원과 사회적 관광자원과 일치하는 부분 등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김철원, 1999).

<표 2-1>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자원 분류

유형관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적 관광자원: 천연자원, 천문자원, 동식물</li> <li>▪ 문화적 관광자원: 고고학적 유적, 사적, 사찰공원</li> <li>▪ 사회적 관광자원: 풍속, 행사, 생활, 예술, 교육, 스포츠</li> <li>▪ 산업적 관광자원: 공단, 유통단지, 광업소, 농장, 목장, 백화점</li> <li>▪ 관광 레크레이션: 캠프장, 수영장, 놀이시설, 어린이 공원</li> </ul>
무형관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 관광자원: 국민성, 풍속, 관습, 예절 등</li> <li>▪ 비인적 관광자원: 고유종교, 사상, 철학, 역사, 음악, 가곡 등</li> </ul>

출처: 김철원(1999), 관광자원조사표

#### 나. 한국관광연구원의 분류(1999)

1999년 한국관광연구원에서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기존 관광자원 분류체계의 단점을 보강하고 관리의 효율과 이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지도 제작의 용이성, 전자지도 및 CD ROM 제작, 웹사이트 운영의 편리성 증진과 관광자원의 영구적 보호를 위해 이러한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대분류는 문화, 자연 및 생태 환경, 관광장소 및 시설의 3분류 체계를 구축하였고, 중분류는 문화에 인물, 인간문화재, 행사, 생활양식, 유적지·사적지, 축조물, 회화·서예·서적·활자·자기·기기류, 공예류의 9가지 분류체계를, 자연 및 생태환경에는 동식물, 자연경관의 2가지 분류체계를, 장소 및 시설에는 공원, 전시·관람시설, 여가·운동시설, 숙박, 쇼핑, 교통, 그리고 관광지 및 휴양·수련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전의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자원 분류표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분류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분류항목을 살펴보면, 후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 분류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한국관광연구원의 관광자원 분류: 문화

분류 코드	제1분류 체계	분류 코드	제2분류 체계	분류 코드	제3분류 체계
A	문화	A1	인물	A101-A110	기타, 출생지, 생가(터), 민가, 고가은거지(유배지), 기념비, 묘(묘비)문학비, 영정, 문학/영화/드라마 배경지
		A2	무형문화재	A201-A209	기타, 공예, 음악(판소리), 무용(춤), 전통주, 음식, 무예, 놀이, 연극
		A3	행사	A301-A308	기타, 지역축제, 풍물놀이, 세시풍속, 기혼제, 관혼상제, 굿, 부락제
		A4	생활양식	A401-A411	기타, 사투리, 설화, 전설, 신화, 민요, 민담, 농요, 민속극(춤), 복식, 음식(특산물)
		A5	유적지·사적지	A501-A514	기타, 전사유적지, 고분, 능, 묘, 패총, 종교유적지, 독립유적지, 봉수대, 궁궐터, 사묘·제단, 도요지, 사고지, 유물해장해역, 사자·전자·우자·원지
		A6	축조물	A601-A626	기타, 누(정)·각, 서원, 향교, 사찰(터), 궁궐, 성곽, 부도, 탑, 불상, 첨성대, 종, 문, 고궁, 고가옥·관아건축, 동학당, 천도교당, 성당, 대형교회, 사당, 성황당, 칠성각, 장승·숫대, 초가, 쫓말, 동상
		A7	회화·서예·서적	A701-A714	기타, 불화·탱화(사찰내 벽화), 초상화·산수화·풍속화, 서예, 탁본, 현판, 주련, 사경, 교지류, 소지류, 가계일괄문서, 분재기, 호적단자, 원고본·전사본
		A8	활자·자기·기기류	A801-A814	기타, 목활자본, 금속활자, 인장류, 판각, 토기, 녹유자기, 청자, 백자, 청화백자, 분청사기, 칠기, 과학기기, 무기
		A9	공예류	A901-A908	기타, 금관, 장신구류, 직물(자수)공예류, 금속공예, 목공예류, 민속공예류, 불구류

출처: 김철원(1999), 관광자원조사표

<표 2-3> 한국관광연구원의 관광자원 분류: 자연생태환경

분류 코드	제1분류 체계	분류 코드	제2분류 체계	분류 코드	제3분류 체계
B	자연 및 생태환경	B1	동·식물 (천연기념물 중심으로)	B101-B116	기타, 희귀종, 노거수, 자생지(자생북한지), 조류서식지, 번식지, 철새도래지, 국제보호조류, 야생조류, 양금·양축, 곤충, 어류, 광물, 천연보호구역, 학술림·어부림, 방품림
		B2	자연경관	B101-B224	산, 강, 천, 섬, 폭포, 고개(언덕), 약수터, 연못, 동굴(석류동굴 등), 호수·댐, 낚시터, 백사장, 계곡, 숲, 절벽, 화석지, 오솔길·등산·산책로, 늪지, 갯벌, 전망좋은곳(view point), 분화구, 5경·8경 등. 오름

출처: 김철원(1999), 관광자원조사표

<표 2-4> 한국관광연구원의 관광자원 분류: 관광장소 및 시설

분류 코드	제1분류 체계	분류 코드	제2분류 체계	분류 코드	제3분류 체계
C	관광장소 및 시설	C1	공원	C101-C106	기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테마공원(Theme Park),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시민공원 등)
		C2	전시·관람시 설	C201-C215	기타, 박물관(국립·사립), 미술관, 야외조각장, 동물원, 식물원(분재원 포함), 화랑, 전시관(장), 국제회의장, 공연장·소극장, 문화(예술), 문화원, 영화관, 도서관, 전수시설
		C3	여가·체육시 설	C301-C316	기타,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아이스링크,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스키장 및 눈썰매장, 자동차 경주장, 요트장 및 경기장, 테니스장, 레프팅(rafting) 장소, 행글라이딩장소, 번지점프장, 윈드썰핑장
		C4	숙박·식사	C401-C416	기타, 호텔, 콘도, 유스호스텔, 장·여관·여인숙, 야영·캠핑장, 자동차 야영장, 방갈로, 산장, 민박, 토속음식점(지역특산 음식점), 양식당,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패스트푸드점
		C5	쇼핑	C501-C508	기타, 백화점, 면세점, 토산품점, 장터(재래·약령시장 등), 지역특산물 생산지 및 판매장(공방, 도자기 등), 기념품 판매장, 대형할인점
		C6	교통	C601-C602	기타, 공항, 부두, 기차역,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케이블카, 유람선선착장, 나루터, 렌트카, 시티투어버스정류장, 여행사 운영 관광버스, 자전거 대여점, 대형주차장, 유어선
		C7	관광지 및 휴양·수련지 역	C701-C724	기타, 관광단지, 지정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유원지, 해수욕장, 수련장, 온천지구, 자연휴양림, 수목원,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지, 민속촌, 안보관광지, 문화의 거리, 수련장, 체험관광지, 생태관광지, 테마길, 카지노, 관광안내소, 환전소, 관광승마장, 관광목장

출처: 김철원(1999), 관광자원조사표



## 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분류(2004)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구축한 지식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광동향분석, 출입국 통계, 관광지 현황, 관광자원, 법령 등 매우 방대한 국내 관광자원 및 관광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 관광상품 개발, 관광안내정보의 지원을 위해 전국의 문화관광자원을 집대성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관광자원 정보를 텍스트 및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광자원 등록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국의 48,000여개에 달하는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를 문화, 자연 및 생태환경, 관광장소 및 시설의 3가지 대분류와 24개 중분류, 249개 소분류 체계로 구성하였다. 관광자원 자료현황은 사이트에 공시하여 누구나 조회할 수 있고 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아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 현황이다.

<표 2-5>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관광자원 분류

관광자원: 48,021 <sup>4)</sup>		
대분류: 3 <sup>5)</sup>	중분류: 24	소분류: 249
문화 (총 29,658건)	인물: 4,817 <sup>6)</sup>	인명 / 출생지, 생가(터) / 민가, 고가 / 은거지(유배지) / 기념비 / 묘(묘비) / 문학비, 노래비 / 영정 / 동상 / 기타
	축제·의식: 1,886	지역축제 / 세시풍속 / 기혼제 / 관혼상제 / 굿 / 부락제 / 기타
	민속·풍속: 6,133	설화 / 복식 / 음식(특산물 포함) / 전통주 / 놀이 / 연극, 민속극 / 음악 / 무용 / 기타
	마을: 104	전통민속마을 / 전통문화마을 / 도예촌, 예술촌 / 전통농촌체험마을(농촌체험시범마을,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 포함) / 기타
	유적지·사적지: 4,418	선사유적지 / 고분 / 능 / 패총 / 종교유적지 / 봉수대 / 공궐터 / 사묘·제단 / 도요지 / 사고지(역사책보관장소) / 유물해장해역 / 절터 / 사건터(유지) / 관청·서원향교터 / 성터·전적지 / 기타
	건축: 8,658	누(정)·정원 / 각, 열녀·효자문(각) / 서원 / 향교, 서당 / 사찰 / 성곽 / 문 / 고궁 / 고가옥 / 관아건축 및 공공건물 / 동학당 및 천도교당 / 성당 / 교회 / 사당 / 성향당 / 칠성각 / 기타
	조각: 2,310	기타 / 부도 / 탑 / 불상 / 종 / 장승·숫대

	회화·서예: 391	기타 / 불화·탱화·사찰벽화 / 산수화·풍속화 / 서예 / 탁본 / 현판 / 주련
	서적·활자·기기: 631	원고본·전사본 사경/교지 / 서지 / 가계일괄문서 / 분재기 / 호적단자 / 목활자본 / 금속활자 / 인장류(도장류) / 판각류 / 과학기기 / 무구 / 농기구 / 기타
	공예·자기: 310	직물공예 / 금속공예 / 목공예 민속공예 / 불구 / 공예기술 / 토기 / 녹유자기 / 청자 / 백자 / 분청사기 / 장신구(출토물) / 기타
자연 및 생태환경 (총 4,781건)	동·식물: 515	희귀, 보호 식물 / 희귀, 보호 동물 / 식물 자생지 / 조류 서식지 / 어류 서식지 / 기타
	보호구역: 48	천연보호구역 / 생태계보전지역 / 습지보호지역 / 기타
	산악및 평지 자원: 2,449	산 / 봉 / 고개(언덕) / 약수터 / 계곡 / 동굴 및 광물 / 숲·수림 / 절벽 / 화석지 / 오솔길·등산·산책로 / 분화구, 오름 / 기타
	수변및 해양 자원: 1,372	강 / 천 / 섬 / 폭포 / 연못 / 호수·댐 / 늪지 / 갯벌 / 기타
	경승지: 397	대 / 전망대 및 조망시설 / 5경·8경·10경·12경 / 일출·낙조 / 경관도로 / 기타
관광장소 및 시설 (총 13,582건)	관광지구: 269	관광단지 / 관광특구 / 지정관광지 / 안보관광지
	공원: 511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 도시공원 / 기타
	전시·관람시설: 2,255	박물관(국립·사립) / 미술관 / 야외조각장 / 동물원 / 식물원(분재원 포함) 화랑 / 전시관(장) / 국제 회의장 / 공연장·소극장 문화(예술)회관 / 문화원 / 영화관 / 도서관 / 전시시설 / 수족관 / 문학·영화·드라마 배경지 / 기타
	스포츠·체육시설: 1,642	체육관 / 운동장 / 수영장 / 아이스링크 / 골프장 / 경마장 / 경륜장 / 경정장 / 스키장 / 눈썰매장 / 자동차 경주장 / 요트장 / 테니스장 / 래프팅장 / 활공장 / 번지점프장 / 윈드썰빙장 / 낚시터 / 서바이벌 게임장 / 수상스키장 / 수렵장 / 관광승마장 / 기타
	숙박·식음시설: 3,773	호텔 / 콘도 / 유스호스텔 / 장·여관 / 야영·캠핑장 / 자동차 야영장 / 방갈로 / 산장 / 민박 / 토속음식점(지역특산 음식점) / 양식당(관광식당기준) / 한식당(관광식당기준) / 일식당(관광식당기준) / 중식당(관광식당기준) /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등) / 연수원 / 기타
	쇼핑시설: 1,577	백화점 / 면세점 / 장터(재래·약령시장 등) / 지역특산물 판매장(공방, 도자기 등) / 기념품판매장 / 기타
	교통시설: 1,160	공항 / 부두 / 기차역 / 고속버스터미널 / 시외버스터미널 / 케이블카 / 유람선선착장 / 나루터 / 렌트카대여점 / 시티투어버스 / 대형주차장 / 자전거 대여점 / 기타
	유원·휴양·수련시설: 1,926	테마공원(Theme Park) / 유원지 / 해수욕장 / 온천지구 / 자연휴양림 / 수목원 / 관광농원 / 농·어촌 휴양지 / 민속촌 / 문화의 거리 / 수련장 / 테마길(빨치산루트, 김삿갓길 등) / 카지노 / 관광목장 / 비지정 관광지 / 기타
	부대시설: 469	외국환 은행 / 종합병원 / 외국공관 / 외국문화원 / 관광안내소 / 환전소 / 대학교 / 기타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관광자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작성(2010년 9월 검색)

- 4) 총 콘텐츠 수
- 5) 디렉토리 수
- 6) 하위 콘텐츠 수

대분류는 문화, 자연, 시설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고, ‘문화’ 아래 10개, ‘자연 및 생태환경’ 아래 5개, ‘관광장소 및 시설’ 아래 9개의 중분류로 구성되었다. 일부 중분류 아래 소분류가 있으며, 소분류가 없는 경우 2단계 디렉토리 아래 관광자원이 나열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3단계 디렉토리로 구성되었고, 분류 항목들의 구성은 한국관광연구원(1999)의 관광조사표 분류 구성과 흡사하다.

관광자원 정보는 자모순으로 배열되었다. 3단계 소분류 디렉토리는 매우 세밀한 주제로 나뉘었는데, 비슷한 성격의 복수 주제가 하나의 디렉토리로 묶인 사례(‘일출·낙조’)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디렉토리가 하나의 주제로 독립되어 구성되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은 국가지식연계기관으로, 통합된 관광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정보사이트를 구축함에 있어 디렉토리 구성 및 용어의 표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광자원 및 관광정보 용어의 시소러스<sup>7)</sup>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관광 관련 분류체계 연구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관광 관련 분류체계 연구가 소량 이루어졌다. 김계섭(1998)의 관광자원 분류체계와 이흥운(1998)의 레저산업 분류체계 연구이다. 김계섭(1998)은 분류체계 모형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국내 관광자원 분류체계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흥운(1998)은 관광을 포괄하는 큰 틀인 레저산업의 분류체계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들 이후로 관광 관련 분류체계 후속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 시소러스(thesaurus): 어휘를 뜻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 그리스어로 ‘지식의 보고’라는 뜻. 로제가 영어의 어휘를 내용상으로 분류하여 관련어를 표시한 사전을 만들어 시소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래, 그러한 사전을 시소러스라고 일컫는다. 현재는 정보검색, 특히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는 기계검색의 분야에서 관련어를 표시한 어휘표의 필요성이 중요시되어 그것을 시소러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유의어·반의어 뿐만 아니라, 개념의 상위·하위의 관계에 의한 관련어도 중요하여, 필요한 정보가 빠짐없이 검색되는 것이 요구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2010.9)

## 가. 관광자원 분류체계 연구

김계섭(1998)은 관광자원의 분류체계 모형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관광자원을 분류함에 있어, 관광의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관광행동의 요소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즉, 관광자원의 분류 대상에 포함할 범주는 기존의 관광자원 그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광객을 제외한 모든 관광의 구성요소인 관광자원, 교통 관광자원, 관광시설과 서비스, 정보제공, 이용안내, 교통루트, 목적지, 관광산업 등 관광객체와 관광매체, 관광자원의 행사적 매력, 기반시설, 환대성, 지원시설까지 망라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관광대상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표 2-6> 관광대상의 구성요소

관 광  대 상	관광자원	자연자원(관상형, 체재형, 장소적 매력, 무형, 유형) 인문자원(문화, 사회, 산업, 행사적 매력, 무형, 유형)
	위탁시설	야외, 실내, 유희, 오락, 스포츠, 휴식
	교통수단	육상, 해상, 항공, 역내 이용, 역외 이동
	숙박시설	호텔, 여관, 민박, 별장, 캠프장, 공유, 목적, 전환, 공유시설
	지원시설	상점, 음식점, 은행, 병원, 이용원, 목적, 전환, 공유시설
	기반시설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전기, 통신, 상하수도, 주차
	관광서비스	인적, 제도적 환대성
	정보서비스	여행정보, 여행안내

출처: 김계섭(1988), 관광대상의 구성요소. p117.

그는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관광자원 분류에 있어 통합적 수직체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수직적 분류란 수직적인 계층에 의거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즉, 대분류에서 중분류로,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한희

영, 1984; 김계섭, 1998).

김계섭(1998)은 대분류를 대상류별과 대상계열로 분류하였다. 대상류별(tourist attraction mix)은 ‘관광요소나 관광산업에서 공급하는 전체적인 관광대상의 총칭’을 뜻하는 것이고, 대상계열(tourist attraction line)은 ‘관광대상이 비슷하거나 이용기능이 유사한 일련의 관광자원이나 위락시설군’을 뜻한다.

그는 광범위한 관광대상을 중복하거나 누락시키지 않고 분류의 범위 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통합적 수직체계를 제시하였지만, 관광자의 추상적인 경험 및 관광행동까지 모두 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계를 밝혔다. 그는 이 수직체계의 모형을 아래와 같이 샘플로 제시하는데 그쳤고, 관광자원 전체에 대한 분류는 시도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관광자원의 범위에 유무형의 대상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과, 구체적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로 관광자원 및 인터넷 관광정보의 분류체계에 관한 후속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2-7> 관광대상의 수직적 분류 예(경관)

구분	분류	명칭	구체적 사례	적용사례
대상계열	소분류	종류	대청봉, 천불동계곡, 권금성	모두가 설악산 경관
		품종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모두가 산악경관
	중분류	종목	산악경관, 해안경관, 농촌경관	모두가 한국의 경관
		품목	한국경관, 미국경관, 일본경관	모두가 세계의 경관
대상류별	대분류	종별	자연자원, 인문자원, 오락시설	모두가 관광대상
		품별	관광자원, 교통, 위락시설	모두가 관광요소

출처: 김계섭(1988), 관광대상의 구성요소. p117.

## 나. 레저산업 분류체계 연구

이흥윤(1998)은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총칭인 레저분야를 실무적 관점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영국, 일본, 미국과 캐나다, 우리나라의 레저산업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레저산업을 10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각 대분류 아래 소분류를 두었다. 10개의 대분류는 여행정보 관련, 숙박관련, 수송관련, 스포츠관련, 도박관련, 흥행관련, 교양관련, 음식관련, 제1차 산업관련, 부동산관련 레저산업이다.

이 연구는 체계적인 문헌분류법 등을 기초로 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분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무형재의 여가서비스를 포함하여 레저산업을 분류하였다는 점은 추후 관광자원 및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연구에 있어 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아래 표는 그가 최종안으로 제시한 레저산업의 분류표이다.

<표 2-8> 레저산업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① 여행정보관련 레저산업	여행업 CRS 여행관련 출판업 투어오퍼레이터 관광전시회 관광홍보선전업	⑥ 흥행관련 레저산업	영화관 극장 극단 악단 방송업 주제공원 프로야구 프로레슬링 프로복싱 전자오락실
② 숙박관련 레저산업	여관 호텔 유스호스텔 국민호텔 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 모텔 캠핑장 리조트	⑦ 교양관련 레저산업	미술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각종대학 사회교육원 시설강습소(학원) 수족관
③ 수송관련 레저산업	철도 전세버스 택시 항공사 렌트카 삭도업(리프트) 유료도로	⑧ 음식관련 레저산업	일반식당 분식점 일본식당 한국전통 식당업 나이트클럽 극장식당 양식당 중식당 바 주점 호프 커피숍 패스트푸드 아이스크림 카페테일바
④ 스포츠관련 레저산업	골프장 골프연습장 볼링장 스키장 테니스클럽 마리나 수영장 스케이트장 스포츠클럽 경기장 양궁장 승마장 사격장 스킨스쿠버	⑨ 제1차산업관련 레저산업	관광농업 낚시 관광목장
⑤ 게이밍관련 레저산업	카지노 경륜 경마	⑩ 부동산관련 레저산업	리조트 분양 회원제 여가클럽

출처: 이흥운(1988), 레저산업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p67.

## 제2절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 1. 분류 및 분류체계

어떤 한 개념 또는 사건을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군집화하는 것을 분류라 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Oxford English Dictionary(1989)에서는 ‘어떤 사물을 그 대상이나 유사성에 의해 류별(Class)로 나누거나 배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이홍용, 1997).

분류는 일반적으로 자연적 분류와 인위적 분류로 나뉜다. 자연적 분류는 자연현상의 객관적 성질을 근거로 유사한 속성을 발견하여 조직화하는 것이고, 인위적 분류는 구분의 필요성에 의해 인위적 조직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다. 인위적 분류는 일반사회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일반분류와 학문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개념분석의 결과로 체계화된 학문분류로 다시 구분된다. 도서관·정보센터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문헌분류체계도 이러한 학문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지식의 효과적 이용을 목적으로 구체성과 유용성을 강조한 넓은 의미의 학문분류라 할 수 있다(최정태·양재한·도태현, 1998).

Sayer(1967)는 자료의 분류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료분류표는 보편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 학문의 분류에 순응해야 하며, 둘째, 자료에 표현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주제를 처리할 수 있는 포괄성, 정밀성,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셋째, 항목을 구분하는 원리는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하며, 각 분류항목의 구분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사주제가 전후에 배열되어 계층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자료분류표는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하며, 다섯째, 분류표에 사용되는 분류명사는 명확해야 한다. 여섯째, 자료분류표에는 인위적인 총류와 형식구분, 지리구분 등 조기성 기호가 있어야 하며, 일곱째, 단순하고 간결한 분류기호가 있어야 한다(김형년, 2004 재인용).



앞서 Sayer(1967)가 제시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과 체계를 통해 정보를 분류함으로써, 정보검색자는 쉽게 정보의 위치를 예측하고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검색 환경을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 분류 범주인 디렉토리에 올바른 분류체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 개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2. 전통적 문헌분류법

문헌이란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며, 문헌분류란 주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유사성에 따라 종개념에서 유개념으로 논리적 체계로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즉 도서관의 이용자가 가장 유용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가 상에 장서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헌분류는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법의 하나로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1986)에서는 체계적으로 편성된 분류표에 의거하여 도서의 내용, 주제, 또는 형식에 일치하거나 유사한 분류번호를 찾아서 그 도서에 배정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즉 문헌분류표에 의해 자료를 특정한 위치에 배정하는 것으로 자료를 유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모아서 구분하여 배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류병찬, 2007).

대표적인 문헌분류학자 Ranganathan(1967)은 문헌분류에 관한 규범적 원칙을 ‘생각 단계’(idea plane), ‘언어 단계’(verbal plane), ‘기호 단계’(notational plane)의 3단계로 제시하였다.

생각 단계는 분류표 구축을 위해서, 분류의 대상이 되는 개체를 어떻게 범주로 만들며 각 범주들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관련한 부분이다. 즉, 하나의 범주를 만들고 그 범주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크게 다섯 가지(특성, 특성의 연속순위, 범주의 수평구조, 범주의 수직구조, 상하/좌우 연속)로 구분하고, 각

각에 필수적인 기준들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다섯 가지는 분류표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최초 범주를 만들기 위한 기초단계부터 순서적으로 전체적인 분류표 구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둘째, 언어 단계는 순서를 가진 각 범주에 명칭을 부여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의 기준(문맥의 기준, 열거의 기준, 최신성의 기준, 명백성의 기준)이 존재한다. 이는 각 개념들이 범주로 만들어진 후, 그 범주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으로, 어떠한 이름이 적합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정보를 탐색하는 이용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분으로 이용자가 그 이름을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추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곽철완, 2001. pp203-204).

문헌분류법은 분류방식에 따라 주제내용을 10구분씩 점진적으로 세분하는 십진식과 숫자와 문자를 단독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는 비 십진식이 있다. 문헌분류법의 구조원리상으로는 열거식, 분석합성식, 준열거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동민, 2001).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십진식 문헌분류체계 가운데, 대표적으로 한국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과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이 많이 쓰이고 있다. 듀이십진분류법은 1876년 이래 초판이 발행된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문헌분류법이고, 한국십진분류법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 문헌분류법이다.

신동민(2001)은, 이 두 분류법이 주제의 상하 계층관계를 논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주제범위를 확인하면서 접근하는데 용이한 체계를 유지하므로, 웹 문서 분류체계의 논리성을 적용하는데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를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문헌분류법을 토대로 하여,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분류체계 기준을 개발하였다.

전통적 문헌분류법은 서가자료의 명확한 분류를 목적으로 개발된 분류법이므로, 현대의 인터넷 환경에서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류기준과 다른 점이 존재한다. 즉, 전통적 문헌분류법에서는 분류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의 중복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호화된 특징으로 인하여 정보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의 정보 분류에서는 검색의 효율을 위하여 도리어 적절한 중복성을 권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링크 등의 기능을 통하여 탄력 있는 정보의 확장이 수월하다.

이것은 정보 분류 환경이 과거의 서가에서 현재의 인터넷으로 변화하면서, 효율적 검색이 정보 분류의 목적으로 추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 3.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

#### 가. 인터넷 정보 검색 방법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핵심용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키워드 검색과, 대·중·소 등 주제별로 분류된 범주를 통해 한 단계 씩 검색해 나가는 디렉토리 검색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메타 검색<sup>8)</sup>(meta search)이라 하여, 여러 검색 엔진에서의 결과물을 한꺼번에 얻을 수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세 가지 검색 방법의 특징 및 장점을 김성원(2005, pp9~10)의 연구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키워드형 검색서비스의 장점은 단순한 몇 개의 키워드만을 통하여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점과 검색결과에의 정보량이 많다는 점이다. 단점은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합 키워드를 입력해야 하므로 초보자가 사용하기 쉽지 않고, 한 개의 키워드만 사용했을 경우 지나치게 많은 검색결과를 제공하므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키워드 검색

---

8) 웹 검색에서 사용자의 질의를 웹 서치 엔진으로 보낸 후, 검색 결과를 받아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기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웹 크롤러나 초대용량 문서에 대한 색인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효과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검색될 결과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시스템의 협력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다. 출처: 네이버 용어사전(<http://terms.naver.com>) (2009.5)

서비스는 자신의 정보요구를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분야와 검색 방법에 대해 상당 수준의 지식을 가진 이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검색서비스라 할 수 있다.

둘째, 메타 검색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색인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있을 때 다른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한 후 결과를 종합해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검색을 원하는 정보자원이 다양한 검색서비스에 흩어져 있을 때 개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포털을 하나씩 검색할 필요 없이 메타 검색서비스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메타 검색서비스의 장점은 한 번의 검색만으로 여러 검색서비스를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여러 검색서비스를 검색한 결과를 제공하는 이유로 검색속도가 늦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디렉토리 서비스는 분류자가 인터넷 정보자원들을 일종의 분류표인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주제분류에 따라 조직하고 이용자의 검색 시 해당 주제의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요구에 따라 특정한 분류항목을 검색하거나,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분류체계의 계층을 따라 해당 분류항목으로 이동한다. 해당 분류항목에 수록된 정보자원을 검토한 후 상위, 동위, 하위의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 디렉토리 서비스의 특징은 사람이 직접 문서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인간이 자료수집 및 조직화 작업을 수행한다. 현재는 정보자원의 관리자가 디렉토리 서비스 제공사에 등록을 요청하면 제공사에서 검토 후 등록하는 방식도 병행되고 있다. 디렉토리 서비스의 장점은 정보자원들이 디렉토리에서 제공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주제별로 조직화되어 있어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정보자원을 검색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이다. 조직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직접 개입하므로 질적으로 검증 평가된 정보자

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정한 분야별로 어떤 정보들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을 때 유용하다. 또한 논리적으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따라 자신의 정보요구를 확장, 세분화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인간에 의해 미리 선별되고 조직된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검색의 결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비논리적인 분류체계의 구성이나 분류 작업자의 작업상 오류 혹은 탐색자의 항목 선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성원, 2005).

김성원(2005)은 디렉토리 서비스는 인간의 지능이 개입되어 수작업으로 정보조직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조직화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위이나 검색되어 제공되는 정보자원의 적합성이라는 정확률 관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궁극적으로 키워드 검색과 디렉토리 검색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는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판가름된다고 하였다.

#### **나. 분류체계 적용의 필요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디렉토리 서비스는 인간의 의하여 분류작업이 이루어진다. 즉,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의 지식과 정보조직 방법에 따라 분류방식이 다르며, 그 변동성도 매우 유동적인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렉토리 서비스의 특징으로 인하여 Koch(1997)는 디렉토리 서비스의 비논리적인 항목 세분과 이에 따른 정보자원의 분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김성원, 2005. 재인용)고 하였고, 김성원(2005)은 분류체계가 범용성을 갖기 어려우며, 편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명희(2004)도 표준화된 효율적인 주제 분류체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인터넷 정보자원을 조직하고 검색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가진 주제별 디렉토리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검색 효율성을 높이고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해주는 주제

접근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제범주는 각기 상이하고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Lancaster(1998)도 디렉토리형 검색엔진들이 가진 문제점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정보의 조직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디렉토리의 분류체계가 분류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의 계층구조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최종 이용자들은 탐색시간에 비해 만족할만한 탐색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Svenonius(1983)와 Vizine-Goets(1996)는 디렉토리의 색인항목이 체계적인 주제명 표목표 및 선택 원칙에 의하기보다는, 웹자료의 모든 용어를 색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관성과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디렉토리형 검색엔진의 분류체계에 문헌분류의 이론적 배경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상에 흩어져있는 수많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주제 간의 상·하위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주제를 함께 모아 이용자의 탐색노력을 줄이고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며, 궁극적으로 정보의 여과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이명희, 2004).

몇몇 연구자들은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에 올바른 분류체계가 적용되어야 그 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명희(1997)는, 이들 디렉토리 검색엔진이 많은 양의 자료를 찾게 해주는 계층적 트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 검색엔진이 메뉴의 깊이나 다양성, 자료의 설명 등에 있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공된 이들 자료에 대한 거시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온라인 검색 시 분류체계의 적용이 신속성, 정확성, 경제성 등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Svenonius(1983)의 연구는 인터넷 환경에서 체계적인 디렉토리 분류의 중요성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Svenonius(1983)는 분류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용어 간 상충관계를 계층적으로 보여주며, 의미론적 브라우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분류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적합율과 재현율을 높이고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통계자료와 같은

비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관련 색인, 유사 초록, 자연어 용어의 배치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Vazine-Goetz(1983)는 인터넷 사이트 Yahoo!의 분류체계와 도서관 분류표(DDC, LC)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항목들의 용어와 하위구성에 포함된 자료의 수를 조사하여 항목 간 균형성과 적절성을 밝혀냈다. Dahlberg(1995)는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분류이론(DDC, LC)의 적용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분류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각 주제의 분석과 추적 및 계층의 구분에 유용하며, 기존 분류되어 있던 자료의 네트워크 상 재조직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Wallace & Burden(1995)도 기존 분류체계(DDC)가 기반이 된 인터넷 검색엔진의 검색 기능이 우수함을 밝혀냈다(김영보, 1997 재인용).

그 외, Markey & Demeyer(1986), Dahlberg(1995), Vazine-Goetz(1996, 2002) 등의 연구자들이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에 분류체계 적용이 필요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인터넷 검색엔진 설계에 있어, 기존의 전통적 문헌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디렉토리 서비스의 문제점과 단점을 지적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디렉토리 설계 시 올바른 분류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Koch(1997)는 도서관 분류체계를 활용한 디렉토리 검색의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초보이용자도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체계화된 주제별 리스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계층적 특성에 따른 탐색의 확장, 문맥 파악, 정보요구의 명확화, 데이터베이스의 조작, 정보환경 개선, 지속성, 이용자 주지성 등(김성원, 2005. 재인용)을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디렉토리가 올바른 분류체계를 적용하였을 때 가능한 사항들이다.

#### 4.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연구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연구는 전통적 문헌분류법을 뼈대로 하여, 인터넷 환경에

서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 도출을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분류체계 요소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영역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나 야후 등 포털사이트의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와, 특정 주제 및 분야를 다루는 인터넷 사이트의 디렉토리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특정 주제 및 분야는 지리학, 지적학, 교육학, 건축학, 군사학,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서점, 검색엔진의 특정 분야(컴퓨터와 인터넷, 뉴스와 미디어 등) 등으로, 다양한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통적 문헌분류가 자료의 명확한 분류를 위한 분류체계 개발이 목적이었다면, 인터넷 정보 분류는 보다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보의 분류 기능과 동시에, 정보를 구하는 자의 검색 효율도 함께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엔진 디렉토리 분류체계와, 특정 분야를 주제로 한 사이트의 디렉토리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검색엔진의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 연구

검색엔진(search engine)은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사이트로, 사용자의 검색어 선정과 검색조건의 적절한 지정에 따라 검색 소요시간이 달라진다. 검색 방법으로는 사용자가 키워드, 즉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는 검색과 검색엔진이 제시한 몇 가지 항목들 중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혀가는 카테고리 검색이 있다. 검색엔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단어별 검색엔진(word-oriented searching)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검색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 웹페이지로 보여주는 검색엔진이다. 주제별 검색엔진(subject-oriented searching)은 인터넷 상에 있는 정보를 큰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혀가며 찾는 방식의 검색엔진이다. 메타 검색엔진



(Meta-search engine)은 인터넷에서 규모가 큰 검색엔진들에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에 대해 의뢰한 뒤 결과를 가져오는 검색엔진이다(두산백과사전<sup>9)</sup>, 2009).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란 웹 사이트를 일정 체계에 따라 계층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각종 웹을 목록으로 제공하며 계층적 구조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영선, 2000).

최희윤(2002)은 이러한 주제별 디렉토리 검색엔진 분류체계는 배열된 주제에 따라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의 개념을 논리적인 전개와 구체적인 주제명으로 제시해주므로 효과적이라 하였다. 김영보(1998)는 이러한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통한 검색은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접근함으로써, 이용자의 탐색노력을 줄이고 정보의 상·하위 관계를 파악하여 관련 주제를 함께 찾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 하였다. 신동민(2001)은 디렉토리 검색엔진의 분류체계는 학문분류를 기초한 문헌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별되며, 전 주제 분야를 대상으로 동일한 비중으로 분류하는 것과, 특정 분야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 디렉토리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분류체계의 주요 기준으로, ‘분류체계의 수평/수직 전개의 기준’, 분류의 ‘논리성’, ‘일관성’, ‘명확성’, ‘최신성’, ‘배열 순서’, ‘인터페이스’ 등을 꼽았다.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준들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인포마인(INFORMINE) 프로젝트(1997)는 미의회도서관 주제명 표목표(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원의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는데, 10개의 대주제 아래 각각의 하위주제를 자모순으로 배열하였고 이를 통해 상위주제와 특정주제에 접근이 가능한 메타-주제 용어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명옥(1989)은 시스템 중심으로 분류체계 구성의 핵심이 되는 기본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보편성 및 객관성을 갖춘 학문의 분류에 순응할

---

9) 두산백과사전(EnCyber & EnCyber.com) (2009.5)

것, 둘째, 자료에 표현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주제를 처리할 수 있는 포괄성, 정밀성, 가능성을 가질 것. 셋째, 구분원리가 일관적이고 체계적일 것, 넷째, 분류표가 구체적이고 정밀할 것, 다섯째, 분류명사가 명확할 것 등이다(김영보, 1998 재인용).

김영보는 1997년 연구에서 두 검색엔진 간의 동일분야(컴퓨터와 인터넷)의 디렉토리 항목을 비교한 결과, 대분류 항목과 세분항목의 수와 주제어 선택 등 분류체계에 큰 차이점이 나타났는데, 이는 분류체계 구축에 있어 단어의 선택, 중요도의 부여, 용어집의 활용, 컴퓨터와 인터넷 분야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유추하였다. 또한, 인터넷 검색엔진 분류체계에는 분류의 원칙과 주제의 망라성, 세분성, 계층성 및 항목간 균형성이 있어야 하며, 디렉토리 서비스 구축 기준으로 주제의 포괄성, 분류체계의 논리성, 주제어의 명확성, 분류체계의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이를 발전시켜 김영보(1998)는 보다 유용한 분류체계 검색엔진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검색엔진들(심마니, 정보탐정, 야후, Excite)의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형태의 검색엔진 분류체계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용자 중심의 분류체계 설계 시, 하이퍼텍스트의 응용을 통한 탐색의 공간적 거리 단축, 사용 빈도가 높은 주제어의 우선 배치를 통한 탐색 노력의 단축, 전문용어와 비전문용어의 혼용을 통한 보다 친숙한 인터페이스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김명옥(1989)의 분류이론에 이용자 중심의 조건을 포함하여, 포괄성, 논리성, 명확성, 효율성의 4개의 분류체계 구축 기준을 선정하였다. 이 기준으로 인터넷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분석한 결과, 포괄성, 논리성, 명확성은 Excite가, 효율성은 야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포괄성(the scoup of topics)

분류체계가 컴퓨터, 인터넷 분야의 주제를 포괄하여 망라하며, 이후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가?

#### ②논리성(the system logic)

분류체계가 컴퓨터, 인터넷 분야의 주제의 상·하위 간 인과관계, 항목간의 균형성과 일관성에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가?

③명확성(the clearness)

분류체계의 주제어가 컴퓨터, 인터넷 분야의 주제를 명확하고 정밀하게 표현하여, 탐색자의 인지 가능성은 높은가?

④효율성(the efficiency)

분류체계가 컴퓨터, 인터넷 분야의 주제를 색인하는데 적절하며, 탐색시의 노력을 줄이는데 효율적인가?

Molholt(1995)는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의 평가요소로 권위성, 확장성, 직관성, 논리성, 보편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Zins(2002)는 일관성, 논리성, 편향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김성원, 2005 재인용).

최희윤(1998)은 인터넷 정보자원의 조직을 위한 분류체계에 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별 디렉토리 사이트(야후)와, 기존 문헌분류체계(DDC, NetFirst)를 비교 분석하여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분류체계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상적인 분류체계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제 분류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의 분석을 통해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했다. 분류체계 설계 시 고려할 점으로, 분류항목의 주제별 설계, 항목수의 설정, 전개방법, 확장 가능성, 인터페이스(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접근점 등)를 들었다. 또한, 향후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 파악하여 정보자원을 배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창호·염성숙·이정모(2000)는 정보검색 엔진의 대분류 및 중분류에 대한 사용자들의 심성모형을 조사하여, 검색엔진의 분류체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심성모형과 분류체계가 일치할수록 정보검색자의 효율은 높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들이 실제 인터넷에서 분류 검색하는 과정을 실험하였다. 5개 검

색엔진에서 제공되는 최상위 분류(대분류)의 42개 단어들을 대상으로, 최대 20개 범위 내에서 같은 의미의 집단으로 묶어 범주화하는 실험이었다. 분석 결과, 사용자들이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분류체계(심성모형)와,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분류체계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어진 15개의 대분류에 검색엔진의 중분류 단어 109개를 적절하게 매치시키는 실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대분류와 중분류에 각 1개씩만 대응되는 단선체계(singular system)과, 2개 이상의 대분류에 포함된 중복체계(redundant system) 개념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단선체계와 중복체계에 따라 사용자들의 분류 검색 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하였다. 검색문제에 대한 정답 빈도, 경과한 단계들의 수와 시간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단선체계보다는 중복체계일 때 정보검색의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호 등(2000)은 이 연구를 통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탐색환경이 필요하다(Carroll & Mack, 1983)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좋은 탐색환경이란, 사용자의 심성모형과 잘 어울리거나, 혹은 사용자가 적절한 심성모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포털 사이트의 분류체계가 사용자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많은 자료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타 분야(쇼핑몰, 전문 웹사이트)에서도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동민(2001)은 인터넷 검색엔진들(심마니, 한미르, 네이버, 야후코리아, Zip)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열 가지 적용 지침을 도출하였다. ①분류체계 조건에 관한 지침, ②주제의 계층관계에 관한 지침, ③주제어 선정, 배열에 관한 지침, ④주제어간 상호관계에 관한 지침, ⑤주제의 일반성, 특정성에 관한 지침, ⑥이용목적에 따른 접근방안에 관한 지침, ⑦계층 간 웹 문서의 수용 범위(문서 수)에 관한 지침, ⑧비 주제 부문에 대한 적용방안에 관한 지침, ⑨주제어 검색 및 feedback에 관한 지침, ⑩유지관리에 관한 지침 등이다.

한편, 이용자 검색 행태를 조사하여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연구한 사례가 있다.

배희진 · 이준호 · 박소연(2004)은 로그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디렉토리 접근 행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주제별 디렉토리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 과정을 기록한 로그를 분석하였는데, 세션 유형별 디렉토리 접근 빈도, 세션 내 향해 길이, 세션 내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디렉토리 서비스 구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로그분석 결과, 첫째, 향해 길이가 짧으므로 디렉토리 구조에 지나치게 많은 계층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둘째,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보다는 검색 결과 출력된 디렉토리부터 세션을 시작하는 이용자가 더 많다. 셋째, 이용자들은 단순한 세션 유형을 선호하며, 넷째, 향해 세션보다 검색 세션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간단히 정보에 접근하고자 한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상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바, 인터넷 검색엔진 디렉토리 서비스의 주요 분류 체계 기준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9> 인터넷 검색엔진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 기준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분류체계 기준
김영보(1998)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 / 국내외 검색엔진들의 분류체계 비교 분석	-주제의 포괄성 -분류체계의 논리성 -주제어의 명확성 -분류체계의 효율성
최희윤(1998)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 / 주제별 디렉토리 사이트(야후)와, 기존 문헌분류체계(DDC, NetFirst)의 분류체계 비교 분석	-분류항목의 주제별 설계 -항목수의 설정 -전개방법 -확장 가능성 -인터페이스(접근점 등)
신동민(2001)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 / 검색엔진들(심마니, 한미르, 네이버, 야후코리아, Zip) 비교 분석 통해 각 엔진의 일반적 특성, 디렉토리 구성 분류체계의 분석과 계층관계 분석	-분류체계 조건 -주제의 계층관계 -주제어 선정 및 배열 -주제어간 상호관계 -주제의 일반성과 특정성 -이용목적에 따른 접근방안 -계층 간 웹 문서 수용범위(문서 수) -비 주제 부문에 대한 적용방안 -주제어 검색 및 피드백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
출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 나. 특정 주제의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연구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인터넷 디렉토리 분류체계 기준요소들을 기본으로 한, 특정 주제 및 분야의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도서관 문헌분류법의 분류체계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특정 주제의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한 후, 실용적이고 주제가 지니고 있는 환경에 적합한 분류체계를 도출해내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요약하자면, 특정 주제 분야의 분류체계 기준은 기존 일반적 분류체계 설계 요소를 기본으로 하되, 분야의 특성을 적용한 실용적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결과이다.

특정 분야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이명희, 2000), 군사학(오동근·황재영·배영환, 2001), 기독교(김명옥, 2007), 농학(김정현·문지현, 2002), 문화콘텐츠(김성희, 2002), 문헌정보학(최재황, 1998), 물리학(최희운, 1998), 산업(한상길, 2001), 쇼핑(곽철완, 2001), 어린이(배영환·오동근·여지숙, 2008), 여성학(이란주·성기주·양정하, 2001), 의학(정경희, 2004), 정보통신기술(이창수, 2000), 컴퓨터/인터넷(김영보, 1997)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박소연, 2009 재인용).

이명희(2000)는 교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기준으로, 김영보(1998)의 분류체계 기준을 참고하여 포괄성, 논리성, 정확성, 효율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란주(2001)는 여성학 분야의 분류체계 기준으로 포괄성, 논리성을 선정하였다.

고유경·윤춘섭(2001)은 인터넷에서 건축정보 검색 시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정보 구축의 체계화를 위해 건축정보 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건축 전문 포털사이트의 검색 디렉토리 설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설계원칙과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김영보(1997)의 연구를 참고하여 디렉토리 서비스 평가 시 고려할 다음의 4개 조건을 건축분야에 적용시켰다.

### ①주제의 포괄성

분류체계가 건축분야의 주제를 포괄·망라하며, 이후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 능

동적으로 대처 가능한가

②분류체계의 논리성

분류체계가 건축분야의 주제의 상·하위 간 인과관계, 항목 간의 균형성과 일관성에서 논리적인가

③주제어의 명확성

분류체계의 주제어가 건축의 주제를 명확하고 정밀하게 표현하며, 검색자의 인지 가능성은 높은가

④분류체계의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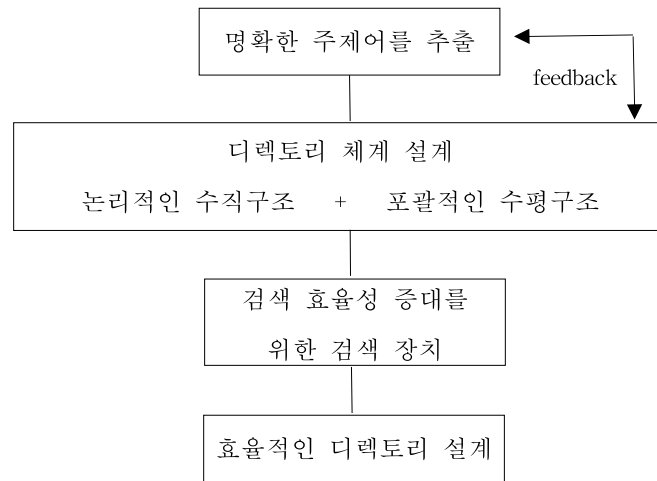
분류체계가 건축의 주제를 색인하는데 적절하며, 검색 시의 노력을 줄이는데 효율적인가

위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포털사이트 야후(Yahoo!)의 건축 관련 디렉토리를 분석하고, 주제어의 명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 비교적 주제어가 명확하다고 판단한 포털사이트인 클럽리치<sup>10)</sup>의 건축 관련 주제어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야후의 건축 관련 디렉토리는 포괄성은 문제가 없으나, 다른 분야와의 정보의 혼재로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논리성에 문제가 있었고, 주제어의 명확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효율적인 디렉토리 설계를 위해 다음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류항목의 용어를 명확히 한다. 둘째, 계층구조의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일관성 있어야 한다. 셋째,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을 포괄하고, 계속 변화하는 건축분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보 영역을 설정한다. 넷째, 타 분야와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공존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이것을 프로세스화하여 명시한 것이다. 이 중 검색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검색 장치란, 관련 디렉토리의 상호배치, 관련 정보의 편집 등 디렉토리 트리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10) 현재는 삭제되어 서비스되지 않는다. (삭제 전 주소: [www.clubrich.com](http://www.clubrich.com))





출처: 고유경·윤춘섭(2001), p4.

<그림 2-1> 효율적인 검색 디렉토리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

이란주·성기주·양정하(2001)는 여성학 분야에 대하여 5개 포털사이트와 3개의 전문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학분야는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성격과 여성학 용어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분류체계 설계 시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대부분의 주제 분야에 여성학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대분류 항목 설정 없이, 중분류 이하로 분류되어 있고, 분류체계의 포괄성, 논리성, 일관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한 제언으로, 상하동위 관계의 명확한 분석을 통한 논리적인 배열, 상하 범주의 내용의 적합성, 인터넷 분류체계라는 특성상의 실용성을 고려한 분류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곽철완(2001)은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분류에 기존의 도서관 분류이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분류체계 구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Ranganathan의 이론인 특성, 특성의 연속순위, 범주의 수평구조, 용어의 최신성, 용어의 명백성과, 그 자신

이 선정한 기준인 용어의 비중복성과 일관성을 추가하여 주요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사이트의 쇼핑부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삼성몰, LG eshop, 야후 쇼핑몰 등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세 곳을 대상으로 Ranganathan(1967)의 5개 분류체계 요소를 포함하여 총 7개의 분류체계 요소(상품 특성, 특성의 연속순위, 범주의 수평구조, 범주용어의 최신성, 범주용어의 명백성, 범주용어의 중복성, 범주용어의 일관성)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2-10> 인터넷 쇼핑물 상품 분류체계 기준

분류체계 기준	내용 및 측정기준
①상품 특성	<p>-분류대상의 어떤 특성을 범주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회사 또는 브랜드 명칭, 사용 목적 등)</p> <p>*측정기준: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특성을 범주로 삼았는가</p>
②특성의 연속순위	<p>-적합한 특성의 연속순위: 어떤 특성을 첫 번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특성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 (브랜드로 1차 분류 -&gt; 상품의 일반 명칭으로 2차 분류 등의 순서)</p> <p>*측정기준: 특성들의 순위</p>
③범주의 수평구조	<p>-한 범주에 속하는 하위범주의 구조에 대한 부분</p> <p>(a)포괄성: 모든 분류대상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p> <p>*측정기준: '기타'와 같이 어느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품을 포함시킬 범주 존재 여부</p> <p>(b)배타성: 한 범주의 하부범주는 상호배타적이어야 하며,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한 분류대상은 한 범주에만 포함되어야 하며, 여러 범주에 포함되어선 안됨)</p> <p>*측정기준: 유사한 범주의 존재 여부</p> <p>(c)이용자 검색에 도움 되는 순서: 범주명의 자모순 또는 친밀도에 따라 배열한다.</p> <p>*측정기준: 배열 방법의 존재 여부</p> <p>(d)범주의 일관된 순서: 서로 유사한 범주는 다른 선상 구조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일관된 순서를 가져야 한다. (‘Sony 브랜드 &gt; 캠코더 / CDP / 오디오 / TV / VTR’ 구조라면, AIWA 브랜드도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함)</p> <p>*측정 기준: 일관된 배열 기준 여부</p>
④범주용어의 최신성	<p>-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는 최신 분류대상물(상품)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p> <p>*측정기준: 최신의 용어 사용</p>
⑤범주용어의 명백성	<p>-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는 이해에 혼돈이 없도록 명백해야 한다.</p> <p>*측정기준: 명백하지 않은 용어가 사용되었는가 여부</p>
⑥범주용어의 중복성	<p>-한 범주에 포함된 하부범주는 상위범주의 용어를 중복해서 사용해선 안된다. (가구 &gt; 거실가구 / 사무용가구 / 유아용가구: ‘가구’의 불필요한 사용)</p> <p>*측정기준: 용어의 중복 사용 여부</p>
⑦범주용어의 일관성	<p>-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는 여러 곳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p> <p>*측정기준: 용어의 일관성 유지 여부</p>

출처: 박철원(2001)의 연구에 대하여 연구자 재정리

그는 위 7개 기준으로 세 곳의 쇼핑물 디렉토리를 상세히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특이한 것은 기존 분류이론 중 ‘배타성’에 관한 기준은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접근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 분류이론은 일직선상의 배열을 고려하여 나온 것이라면 인터넷은 일직선상이 아니라 여러 접근점을 사용하여 목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검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존 분류체계 기준을 환경에 맞게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에는 위 7개 분류체계 기준 이외에, 쇼핑몰 이용자의 상품 탐색 행태 및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영향을 추가 포함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인터넷 지리정보 체계화에 대한 연구(2006)에서 분류체계 기준을 크게 범주(디렉토리)의 수평구조와 디렉토리 용어의 적절성으로 보았다. 디렉토리 용어의 적절성은 용어의 명백성, 비중복성, 일관성으로 구성되었는데, 명백성은 디렉토리가 무엇인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 비중복성은 한 디렉토리에 포함된 하위범주는 상위범주의 용어를 중복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일관성은 디렉토리 지칭 용어가 여러 곳에 사용되더라도 동일한 명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원(2005)은 네이버, 야후, 엠파스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미디어’ 부분에 대하여 6개의 분류체계 기준들로 분석한 후, 이 세 포털사이트의 결과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중개 게이트웨이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는 분류체계 기준으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보편성, 망라성, 논리성, 명확성, 용어의 적합성, 유지관리 등 6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박소연(2009)은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디렉토리 서비스와, 국외 인터넷 디렉토리 서비스인 Open Directory를 컴퓨터와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 평가하였다. 특히 효율적 웹 사이트 구축을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개념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Information Architecture) 이론을 근거로 하여 효율적인 탐색을 위한 평가 기준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Rosenfeld & Morvill(2003)이 제시한 개념으로, “①인포

메이션 체계내의 네비게이션 체계, 레이블링, 조직화, ②컨텐츠에 직관적으로 접근하고, 업무처리가 용이하게 정보공간을 설계하는 것, ③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나 인트라넷을 분류하고 구조화하는 학문, ④디지털 세계를 구조화하고 설계하는 원칙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새롭게 등장한 전문 분야와 이와 관련한 커뮤니티”로 정의하고 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중요 요소로는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화, 네비게이션, 검색 체계 등을 들 수 있다(박소연, 1999 재인용). 즉, 정보검색자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인터넷 정보 체계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그는 ①커버리지(제공하는 사이트 수: 포괄성), ②카테고리 생성 기준, ③사이트 선택 및 등록 기준, ④계층 구조 설계(계층의 폭과 깊이), ⑤최신성, ⑥명확성, ⑦카테고리 및 사이트의 배열 순서, ⑧분류 체계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의 디렉토리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그는 분석 대상 포털사이트 디렉토리들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최소 등록 단위 및 사이트 선정 기준의 부재, 과도한 카테고리 및 링크 카테고리의 생성, 계층의 폭과 깊이의 문제점, 일관성 부족한 분류 기준과 미니그룹 구분 기준 등을 들었다. 또한, 인터넷 특성상 이러한 사이트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향후 디렉토리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는 비교적 신 개념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요소와 기존 분류체계 요소를 함께 기준으로 구성하여, 포털사이트 디렉토리를 상세히 분석하고 기술한 본격적인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상 살펴본 특정 주제 및 분야의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1> 특정 주제의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기준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분류체계 기준 및 고려 사항
고유경·윤춘섭 (2001)	포털사이트의 건축 정보 디렉토리 / 야후의 건축 관련 디렉토리 분류체계 분석	-주제의 포괄성, 분류체계의 논리성, 주제의 명확성, 분류체계의 효율성 -분류항목의 명확한 용어 사용,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계층구조, 건축 관련 전문적 영역 포괄, 변화하는 건축분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보 영역 설정, 타 분야와의 연계성 고려
곽철완(2001)	인터넷 쇼핑물의 상품 분류체계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7개 분류체계 기준으로 분석	-상품 특성, 범주의 포괄성, 다양한 접근점, 범주의 배열 순서와 용어의 일관성, 용어의 최신성과 명백성, 용어의 반복적 사용 금지 -이용자의 상품 탐색 행태와 쇼핑몰 인터페이스와의 관련성 연구 필요
김정현·문지현 (2002)	농학 분야 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 / KDC와 야후, 엠파스의 농학 분야 디렉토리, 농학 전문 포털사이트 분류체계 비교 분석	-검색엔진의 일반적 디렉토리 구조 및 기준에 맞추어 설계 -학술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 고려
김형년(2004)	포털사이트의 디자인관련 디렉토리 / 다음, 야후, 네이버와 디자인 전문 포털사이트 분류체계 분석	-주제의 포괄성, 분류체계의 논리성, 주제의 명확성, 분류체계의 효율성 -분류항목 주제별 설계, 항목 수 설정, 전개 방법, 확장 가능성 고려 -이용자가 쉽게 찾아 갈수 있는 접근점 배열 인터페이스, 적절한 분류 단계와 항목 수, 공통 항목과 순수 주제의 구분을 통한 접근점 적용
김성원(2005)	포털사이트의 뉴스 및 미디어 디렉토리 / 네이버, 야후, 엠파스의 뉴스, 미디어 분야의 인터넷 디렉토리 비교 분석, 중개 게이트웨이 모형 제안	-보편성, 망라성, 논리성, 명확성, 용어의 적합성, 유지관리
곽철완(2006)	지리정보 사이트 / 지도정보사이트와 네이버, 구글의 지역 관련 디렉토리 체계 비교	-디렉토리의 수평구조: 포괄성, 배타성, 순서의 일관성 -디렉토리 용어의 적절성: 명백성, 중복성, 일관성
박소연(2009)	포털사이트 디렉토리 / 네이버, 야후, 엠파스, 다음, Open Directory의 컴퓨터/인터넷 분야 디렉토리 서비스 비교 평가	-커버리지, 카테고리 생성 기준, 사이트 선택 및 등록 기준, 계층 구조 설계(계층의 폭과 깊이), 최신성, 명확성, 카테고리 및 사이트의 배열순서, 분류체계

출처: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 제3장 연구 설계

### 제1절 연구 과제

관광지의 특성에 따라 각 사이트에서 강조하고 표출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르겠지만, 타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광정보 분야에서도 기초적인 분류체계의 기준이 지켜진다면 정보검색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행 관광정보 사이트의 디렉토리 분석을 통하여 분류체계 적용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도울 수 있는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들을 설정하였다.

▪ 연구 과제 1: 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의 기초가 되는 분류체계 기준들을 선정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관광정보 분류에 적합한 분류체계 기준을 도출한다.

▪ 연구 과제 2: 선정한 분류체계 기준들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들의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분석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기준들을 충족하여 디렉토리가 설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분석을 통하여 현행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분석 대상 디렉토리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 ‘음식점’으로 한정하였다.

▪ 연구 과제 3: 효율적인 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 설계를 위한 분류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 향후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표준화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연구 설계

### 1. 분석 대상 사이트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사이트는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강원관광으로 총 4개이다.

이들은 정부 또는 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대표적인 관광정보 사이트로, 정보의 질에 공신력이 있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풍부하다. 또한 인터넷에서 해당 사이트의 검색이 용이하여 일반인이 사이트에 접근하기 쉽다.

이들이 다루고 있는 관광정보는 전국(한국관광공사)은 물론 국내 대표적인 주요 관광지인 서울과 제주도, 강원도를 포함하고 있다. 정보는 키워드 검색과 디렉토리 서비스 방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사전에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나 명칭을 알지 못해도 관심분야에 따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주도와 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광홈페이지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 평가는 전국 150여개 지자체 관광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관광정보, 여행일반정보, 사용자참여도, 운영관리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광학계 전문가와 일반사용자 등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2008년 12월 기사 인용). 이 관광홈페이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sup>11)</sup>에는, 관광 정보 및 숙박/음식 정보 부분에 ‘분류성’과 ‘분류체계’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 브랜드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국내 여행정보와 전국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은 ‘iTourSeoul’이라는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서울의 문화행사과 축제, 쇼핑, 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정보와 역사연표, 문화관광 지도를 제공하며,

---

11) 이 논문의 부록 부분(부록 2. pp176~183)에 평가지표를 실었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관광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의 여러 관광정보 디렉토리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유 콘텐츠 수가 풍부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 ‘음식점’ 디렉토리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sup>12)</sup>. 콘텐츠를 많이 보유한 디렉토리는 일정한 체계를 통해 그것들을 분류하고 조직해야 하며, 검색의 효율을 위하여 반드시 분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아래 표는 4개 관광정보사이트의 간략한 개요이다.

<표 3-1> 분석 대상 관광정보사이트 개요

사이트 명	운영 주체	목적 및 취지	사이트 주소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국내여행 정보 제공	korean.visitkorea.or.kr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iTourSeoul)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	서울의 종합관광정보 제공	www.visitseoul.net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 종합관광정보 제공	www.jejutour.go.kr
사이버강원관광	강원도청	강원도의 종합관광정보 제공	www.gangwon.to

출처: 연구자 정리

## 2. 분석 방법 및 분석 기준

인터넷 사이트는 정보의 등록과 갱신 등 유동적인 특성이 강하여 디렉토리 명이 수시로 변경되기도 하며, 사이트 자체가 삭제되는 등 휘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사이트의 자료 수집은 일정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개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정보 수집은 2009년 5월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12) <표 4-1. 4개 관광정보사이트의 디렉토리 구성>에 각 디렉토리 별 보유 콘텐츠 수를 명시하였다.

일부 사이트의 개편<sup>13)</sup> 및 관광정보 디렉토리의 변동으로 2010년 11월에 최종 수집을 완료하였다.

분석은 ‘관광지 및 관광자원’, ‘음식점’ 디렉토리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이 연구의 분류체계 기준들로 선정한 항목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연구자가 탐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분류체계 기준은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박소연, 2009; 곽철완, 2006, 2001; 김성원, 2005; 김형년, 2004; 고유경·윤춘섭, 2001; 신동민, 2001; 이란주, 2001; 오동근·황재영·배영환, 2001; 김영보, 1998 등)에서 도출된 분류체계 기준 항목들 가운데,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구성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콘텐츠 수가 많은<sup>14)</sup> 관광 정보자원의 특성 상, 방대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간결히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준인 ‘검색의 효율성(검색 옵션, 콘텐츠 수의 명시)’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하였다.

총 9개 기준의 12개 항목으로, ①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②디렉토리 폭의 적절성(디렉토리의 포괄성,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③콘텐츠 수의 균형성, ④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⑤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디렉토리의 배열성, 콘텐츠의 배열성), ⑥용어의 적절성, ⑦유지관리성·최신성, ⑧중복성, ⑨검색의 효율성이다. 아래는 이 항목들에 대한 설명 및 선행연구의 출처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13) 한국관광공사 사이트는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개편되었다.

14)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총 콘텐츠 수는 8,500여개에 이른다.

<표 3-2>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 분류체계 기준

분류체계 기준	내 용	기본개념 연구자
①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디렉토리의 깊이(계층)가 적절한가 -상하위 항목 전개가 점진적인가 -동위항목 간 관계가 수평적인가 -디렉토리의 상하위 간 인과관계가 논리적인가	박소연(2009), 김성원(2005), 신동민(2001), 고유경·윤춘섭(2001), 이란주(2001), 김영보(1998)
②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1)디렉토리의 포괄성 -해당 분야 주제를 누락시키지 않고 모두 포함할 수 있는가 -어느 디렉토리에도 해당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기타'가 존재하는가 2)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디렉토리의 수가 변화하는 정보와 잠재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가 -동위 디렉토리의 항목 간의 관계가 논리적인가	박소연(2009), 광철완(2006, 2001), 김형년(2004), 고유경·윤춘섭(2001), 이란주(2001)
③컨텐츠 수의 균형성	-동위 디렉토리 간 컨텐츠의 수의 균형이 적절한가 (평균 컨텐츠 수를 기준으로, 심하게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디렉토리가 존재하는가) -컨텐츠가 존재하지 않는 빈 디렉토리가 존재하는가 (*신생 디렉토리의 적절한 컨텐츠 수 기준: 20~30개, *1개 디렉토리의 최하 컨텐츠 수 기준: 5개 이하)	김성원(2005), 김형년(2004), 신동민(2001), 이란주(2001), 오동근·황재영·배영환(2001), 오픈디렉토리 서비스(2005), 연구자 선정
④디렉토리 명과 하위 컨텐츠의 일치성	-디렉토리와 하위 컨텐츠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컨텐츠 내용이 적절한가	김성원(2005), 이란주(2001)
⑤디렉토리 및 컨텐츠의 배열성	-디렉토리 및 컨텐츠의 배열이 검색에 도움이 순서로 정렬되었는가(보유 컨텐츠가 많은 순, 자모순 등) 1)디렉토리의 배열성 2)컨텐츠의 배열성	김성원(2005), 광철완(2001)
⑥용어의 적절성	-디렉토리 및 컨텐츠의 용어는 혼돈이 없도록 명확한가 -디렉토리 및 컨텐츠의 용어는 사이트 내에서 동일한 용어로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가 -디렉토리 및 컨텐츠의 용어의 표기법은 올바른가	박소연(2009), 광철완(2006, 2001), 김성원(2005), 김영보(1998)
⑦유지관리성·최신성	-최신 정보의 갱신과 등록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정보관리자 및 접근창구가 명시되어 있는가	김성원(2009), 광철완(2001), 연구자 선정
⑧중복성	-두 개 이상의 접근점이 존재하여 정보의 획득에 도움이	김성원(2009),

	되는가 -필요 이상으로 정보 및 페이지가 중복되는가 -필요 이상으로 용어가 중복되는가	곽철완(2006, 2001)
⑨검색의 효율성	1)검색 옵션 -디렉토리 형식은 아니지만 분류체계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2)컨텐츠 수의 명시 -최종 컨텐츠 페이지에 총 보유 컨텐츠 수가 명시되어 있는가	연구자 선정

출처: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기준 선정

연구 과제 1(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의 기초가 되는 분류체계 기준들을 선정한다.)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참고하여 12개 항목의 분류체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상세한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①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박소연(2009), 김성원(2005), 신동민(2001), 고유경·윤춘섭(2001), 이란주(2001), 김영보(1998) 등의 학자는 디렉토리 계층의 깊이를 분류체계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김성원(2005)은 분류항목의 전개에 있어 상·하위 항목간의 전개가 점진적이고, 동위 항목간의 계층관계가 수평적이며, 동일 분류항목이 분류체계 전반에 걸쳐 동일 계위에 배정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포털사이트의 계층 깊이<sup>15)</sup>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관광정보사이트의 디렉토리 계층은 1~2단계로 깊지 않다. 이처럼 짧은 계층으로는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전개를 평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을 숫자나 논리적 전개의 기준보

15) 네이버 디렉토리(<http://dir.naver.com>)의 여행 정보 계층의 깊이는 3~4단계이다. (세계정보, 여행 > 국내여행 > 여행지, 관광지 > 워터파크)

다는, 최종 콘텐츠가 분류된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즉, 최하위 디렉토리의 콘텐츠가 명백한 범주로 추가 구성을 할 수 있다거나, 콘텐츠 숫자가 너무 많아 계층을 추가 생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 디렉토리 계층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 ②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디렉토리의 포괄성,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디렉토리의 포괄성과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두 항목으로 나누었다.

곽철완(2006) 등의 선행연구자들은 디렉토리의 포괄성을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즉,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디렉토리를 변경하지 않고도 이를 당분간 포괄할 수 있도록 ‘기타’와 같은 범주구성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디렉토리의 포괄성을 모든 관광 주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타’ 디렉토리의 존재 여부로 평가하였다.

이란주(2001)와 여러 연구자들은 디렉토리의 폭 및 논리성 측정에 대하여, 디렉토리 수가 변화하는 정보와 잠재 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가, 동위 디렉토리 항목 간의 관계가 논리적인가<sup>16)</sup> 등으로 평가하였다. 이 항목들은 결과적으로 디렉토리의 폭(디렉토리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에 포함하여 측정하기로 하였다.

### ③ 콘텐츠 수의 균형성

오동근·황재영·배영환(2001)은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인터넷 디렉토리의 분류체계 구성은 실제 정보자원(콘텐츠)의 유무와 다과(숫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이를 분류항목의 전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표적 문헌정보 분류체계인 DDC, LCC 등도 문헌량 근거에 따라 항목을 신설하고 계층을 조정한다고 하였다. 김성원(2005), 김형년(2004), 이란주(2001) 등도 디렉토리 간 콘텐츠의 수의

16) 동위 디렉토리 항목 간 관계가 논리적으로 어긋날 경우, 직접적으로 디렉토리 (폭)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균형이 적절한지, 너무 많거나 적은 수의 콘텐츠로 구성된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분류체계의 기준으로 삼았다. 김성원(2005)은 신동민(2001)과 오픈디렉토리 서비스(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신규로 생성할 디렉토리의 적정 콘텐츠 수를 20개~30개로 보았다. 이 연구도 이를 참고하여 신규 생성할 디렉토리의 적절한 콘텐츠 수를 20개~30개로 정하였다. 더불어 동위의 디렉토리 평균 콘텐츠 수와 비교하여, 최종 콘텐츠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경우, 콘텐츠 수의 균형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상·하위 디렉토리의 통합 및 신규 생성을 통하여 콘텐츠 수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검색자의 인지 범위를 넘는 너무 많은 정보들(콘텐츠)은 검색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1개 디렉토리 당 최하 콘텐츠 수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콘텐츠 수가 많은 관광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5개로 잡았다. 이를 기준으로 보유 콘텐츠가 아예 없는 빈 디렉토리, 5개 이하의 콘텐츠를 포함한 디렉토리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디렉토리가 존재한다면, 동위의 다른 디렉토리, 통합할 수 있는 항목인지 분류 구성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텐츠 수가 너무 적은 디렉토리는 분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정보검색의 효율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김성원(2005), 이란주(2001) 등은 콘텐츠 내용의 적절성 및 디렉토리, 하위 콘텐츠 내용의 일치성을 분류체계의 기준으로 보았다. 콘텐츠의 적절성 정도의 차이에 따라, 이 개념은 ‘용어의 적절성(명확성)’과 혼동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히 구분을 하자면, 단순히 용어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위 계층 또는 동위의 디렉토리 배열로 보아 콘텐츠의 소속이 맞지 않거나, 의미하는 바가 다를 때 이 부분의 일치성이 어긋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보’ 디렉토리 아래에 국보가 아닌 일반 사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⑤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디렉토리의 배열성, 콘텐츠의 배열성)

Sayers(1975)는 배열순서에는 일반적으로 연대순, 진화순, 논리순, 공간순, 선호순, 전통순, 자모순 등이 있다고 하였다(김성원, 2005 재인용). 김성원(2005)은 이용자의 논리적 접근 및 검색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류체계의 배열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디렉토리의 배열은 검색 빈도가 높거나 보유 콘텐츠가 많은 순서 등, 총 디렉토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검색의 효율성을 도울 것이다. 또는 비슷한 성질의 디렉토리끼리 인접하게 배열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일 것이다. 최종 콘텐츠의 배열순서는 정보검색자의 인지와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검색 결과의 콘텐츠 수가 많게는 100여개가 넘기 때문이다. 정보검색자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 자모순 등으로 배열하여,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배열성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관성 있는 순서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디렉토리 배열이 비중이 높은 순서(보유 콘텐츠가 많은 순), 또는 서로 연관되어 있거나 자모순 배열이 지켜졌는지 보았으며, 콘텐츠 배열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확하고 일관된 순서가 지켜졌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모순 배열을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 ⑥용어의 적절성

박소연(2009), 광철완(2006, 2001), 김성원(2005), 김영보(1999) 등 분류체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용어의 명확성이 분류체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명확한 용어를 디렉토리 명으로 선정함으로써, 정보검색자의 인지를 높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검색자들에게 혼돈이 없도록 일반적이고 명확한 디렉토리 명

을 사용하였는가, 사이트 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디렉토리 및 콘텐츠 용어를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올바른 표기법 및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등을 용어의 적절성으로 포괄하여 평가하였다.

#### ⑦유지관리성 · 최신성

김성원(2009)은 분류체계의 최신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지관리 노력에 선행하여, 분류항목 전개 시부터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론적으로 우수하거나 분류체계 구성이 완벽하더라도 새로이 출현하는 주제 분야를 적절한 기간 내에 수용하여 분류체계의 최신성을 확보하는 유지관리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분류체계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곽철완(2001)은 최신 정보 제공과 분류체계의 갱신을 위해서는 용어의 최신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신 정보의 등록과 갱신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유지관리성을 분류체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보 등록 및 갱신을 담당하는 관리자나 관리창구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잘못된 정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열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 ⑧중복성

중복성은 정보의 중복 및 용어의 중복으로 나누어 보았다.

전통적인 문헌분류 체계에서는 자료 및 서지의 명확한 분류를 위하여, 하나의 정보가 다른 여러 개의 경로를 통하는 중복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즉, 특정한 정보는 반드시 하나의 범주에 속하여야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중복성의 금지 및 배타성 특징이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 해석을 달리하게 되었다. 곽철완(2001)은 인터넷 쇼핑몰 상품 분류체계 연구에서, 하나의 정보가 복수의 접근경로(링크)를 통해 검색되는 것이 정보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Ranganathan의 분류이론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최근에는 사이트의 인터페이스적 요소로 여러 접근점을 두어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환경에서의 중복성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개념으로 변하고 있다. 김성원(2005)은 도서관 서가분류와는 달리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는 중복분류가 가능하므로, 참조 링크 처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곽철완(2001)은 용어의 필요 없는 중복, 즉 반복적 사용의 금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 범주에 포함된 상·하위 디렉토리 내에서, 상위 디렉토리에서 사용한 용어를 하위 디렉토리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간의 낭비라는 개념이다. 그는 예를 들어, ‘가구’ 범주에 속하는 상품은 모두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범주 명에 ‘사무용 가구’, ‘유아용 가구’ 등 용어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접근점을 위한 정보의 적절한 중복은 허용하고, 필요 이상의 동일한 정보 및 페이지의 중복은 지양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하위 디렉토리 간 필요 없는 용어의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 ⑨검색의 효율성(검색 옵션, 콘텐츠 수의 명시)

김형년(2004)과 곽철완(2001) 등은 후속연구에서 분류체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고,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주로 링크와 배너 등 사이트의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것으로, 목표로 하는 콘텐츠에 다각도로 접근하여 검색의 효능과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검색 옵션과 콘텐츠 수의 명시, 두 가지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검색 옵션은, 디렉토리 형식은 아니지만 그 기능을 보완하여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세부적인 검색 옵션을 돕으로써, 한정된 구조를 가진 디렉토리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 ‘산’ 디렉토리에 총 150개의 콘텐츠가 검색되었고, 분류할 수 있는 디렉토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역’과 ‘높이’의 검색 옵션(선택 버튼, 라디오 버튼 등)을 두

어 최종 콘텐츠를 원하는 목적대로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디렉토리 당 콘텐츠 수의 명시 여부로 검색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총 콘텐츠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검색 결과의 규모를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반대로 최종 콘텐츠 페이지에, 총 검색된 콘텐츠 수와 현재의 페이지 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검색결과에 대한 전체 규모의 인지가 가능하여 검색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 명시된 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사이트를 비교하여 보면, 그로 인한 검색의 효율성 및 사이트 완성도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

## 제4장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 분석

### 제1절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 구조

디렉토리 분류체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 대상 사이트의 전체적인 디렉토리 구조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4개 관광정보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
- 서울특별시문화관광 ‘iTourSeoul’: <http://www.visitseoul.net>
-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tour.go.kr>
- 사이버강원관광: <http://www.gangwon.to>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정보 관련 디렉토리는 크게 5개로 나뉘어져 있다. 관광명소 정보를 제공하는 ‘어디로 갈까’,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무엇을 먹을까’, 숙박 정보를 제공하는 ‘어디서 잘까’, 그리고 주제별 여행지 및 추천여행지, 축제·공연·행사 등을 묶어 하나의 범주로 모은 ‘무엇을 할까’, 대학생 관광단의 여행 및 레저체험, 사진을 올리는 ‘여행이야기’ 이다.

‘어디로 갈까’는 관광명소 및 숙박, 음식점, 행사 등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렉토리를 합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관광명소’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하 분류 등 4단계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디렉토리들은 대부분 3단계로 구성되었다. 전국의 관광정보를 모아놓았기에 디렉토리 별 총 콘텐츠 수가 보통 5천개에 달한다. 따라서 각 디렉토리를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대한 콘텐츠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 ‘음식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2개 디렉토리(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문화관광의 'iTourSeoul'의 관광정보 디렉토리는 크게 8개로 나뉘어져 있다. '관광명소', '맛집', '숙박', '쇼핑', '문화행사', 테마별 여행코스를 하나의 범주로 모은 '추천여행', 그리고 'e-관광안내소', '커뮤니티'이다. '관광명소'와 '숙박'은 3단계 디렉토리로 구성되었고, '맛집'과 '쇼핑'은 2단계로 구성되었다. '관광명소', '맛집', '쇼핑'은 마지막 단계에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맛집'은 디렉토리 중 가장 많은 콘텐츠(1천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 '음식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2개 디렉토리(관광명소, 맛집)를 분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정보 관련 디렉토리는 크게 6개로 나뉘어져 있다. '볼거리', '즐길거리', '잘거리', '먹거리', '살거리', '여행도우미'이다. '즐길거리'의 일부 디렉토리들은 3단계로 구성되었고, 대부분의 나머지 디렉토리들은 2단계로 구성되었다. 이 중 '먹거리'는 가장 많은 콘텐츠(1천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 '음식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2개 디렉토리(볼거리, 먹거리)를 분석하였다.

사이버강원관광의 관광정보 관련 디렉토리는 크게 7개로 나뉘어져 있다. '즐길거리', '추천/테마거리', '행사/축제/쇼핑', '잠자리/먹거리', '커뮤니티', '강원여행TIP', 그리고 '모바일강원'이다. '즐길거리', '잠자리/먹거리'는 3단계로 구성되었고, 나머지 '추천/테마거리', '행사/축제/쇼핑' 등은 일부 디렉토리에 한하여 3단계로 이루어졌다. 이 중 관광지에 해당하는 '즐길거리'는 가장 많은 콘텐츠(1천 3백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 '음식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2개 디렉토리(즐길거리, 잠자리/먹거리 중 먹거리 부분)를 분석하였다.

4개 사이트는 공통적으로, 관광지, 숙박, 음식점, 쇼핑 및 행사 등의 필수적인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디렉토리 계층은 2단계에서 3단계로 그 깊이가 깊지 않은 편이나, 계층의 폭(동일 계층 내 디렉토리 수)은 최대 23개까지 존재한다. 사이트마다 디렉토리 계층과 폭에 차이가 있고 디렉토리 명이 다른

이유는, 보유하고 있는 관광정보의 특성에 따라 표출하고자 하는 주제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이 분류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이트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관광지와 음식점 정보에 관한 콘텐츠 수가 다른 디렉토리나 비교하여 현저히 많다. 또한, 관광정보사이트는 점점 더 종합적이고 시각적인 화면구성과, 여행기와 사진을 올리는 등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분류하는 디렉토리만으로 이루어진 구성에서 벗어나, 다른 정보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링크와 배너가 늘어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콘텐츠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래는 4개 사이트의 디렉토리 구성 및 단계별 디렉토리 수, 총 콘텐츠 수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표이다.

<표 4-1> 4개 관광정보사이트의 디렉토리 구성

분류 사이트	디렉토리 명 1단계	디렉토리 단계 및 수			총 콘텐츠 수	내 용	분석 여부
		2단계	3단계	4단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1.무엇을 할까	주제별 10 지역별 16	-	-	4,779	체험 및 주제여행, 쇼핑, 행사	X
	2.어디로 갈까 (관광명소)	유형별 7 지역별 16	57 229	84/일부 -	8,455	관광지 및 관광자원	O
	3.무엇을 먹을까 (음식점)	유형별 10 지역별 16	-	-	5,784	음식점	O
	4.어디서 잘까	유형별 5 지역별 16	30	-	6,163	숙박	X
	5.여행이야기	6	-	-	17)	여행기	X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iTourSeoul'	1.추천여행	8	11/일부 <sup>18)</sup>	-		체험 및 주제여행	X
	2.관광명소	4	23/일부 지역별 22	-	452	관광지 및 관광자원	O
	3.맛집	6	지역별 22 테마별 36	-	1,118	음식점	O
	4.숙박	5	6/일부 지역별 22	-	232	숙박	X
	5.쇼핑	9	지역별 22	-	84	쇼핑	X
	6.문화행사	7	-	-	110	행사	X
	7.e-관광안내소	16	-	-		여행정보	X
	8.커뮤니티	5	-	-		여행기, ucc	X
제주특별자치도	1.볼거리	15	-	-	553	관광지 및 관광자원	O
	2.즐길거리	8	51/일부	-	426	체험 및 주제여행	X
	3.잘거리	11	-	-	706	숙박	X
	4.먹거리	8	-	-	1,186	음식점	O
	5.살거리	6	-	-	38	쇼핑	X
	6.여행도우미	18				여행정보	X
사이버강원 관광	1.즐길거리	4	27/모두 <sup>19)</sup>	-	1,322	관광지 및 관광자원	O
	2.추천/테마거리	10	25/일부	-		체험 및 주제여행	X
	3.행사/축제/쇼핑	5	8/일부	-		행사, 쇼핑	X
	4.잠자리/먹거리	2	18/모두	-	814 (432/382)	숙박, 음식점	O(음 식점)
	5.커뮤니티	11	4/일부			여행기, UCC	X
	6.강원여행TIP	6	18/일부			여행정보	X
	7.모바일강원	3				모바일관광정보서비스	X

출처: 연구자 정리(2010년 11월 검색 자료)

## 제2절 주제별 디렉토리 분석

주요 관광정보 디렉토리(관광지 및 관광자원, 음식점)를 앞서 선정한 분류체계 기준들로 분석하였다. 분류체계 기준은 인터넷정보 분류체계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요소들(디렉토리의 포괄성·논리성·배타성, 용어의 명확성·비중복성·최신성·일관성, 계층의 폭과 깊이, 배열성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9개 기준의 12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 ▪ 관광정보사이트 분류체계 기준

- ①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 ②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디렉토리의 포괄성,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 ③ 콘텐츠 수의 균형성
- ④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 ⑤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디렉토리의 배열성, 콘텐츠의 배열성)
- ⑥ 용어의 적절성
- ⑦ 유지관리성·최신성
- ⑧ 중복성
- ⑨ 검색의 효율성(검색 옵션, 콘텐츠 수의 명시)

연구 과제 2(선정한 분류체계 기준들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들의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분석한다.)에 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두 디렉토리(관광지 및 관광자원, 음식점)에 대하여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

17) 콘텐츠 수를 세기 적합하지 않은 디렉토리는 빈 칸으로 두었다.(게시판 형태 또는 단순히 상호와 전화번호를 명시한 것을 포함한 디렉토리)

18) 일부: 일부 디렉토리에 하위범주가 존재하며, 그 총수를 의미한다.

19) 모두: 모든 디렉토리에 하위범주가 존재하며, 그 총수를 의미한다.

## 1.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분석

### 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표 4-2>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디렉토리 명: 어디로 갈까(관광명소)		
1단계: 5 <sup>20)</sup>	2단계: 8,455 <sup>21)</sup>	형식
1.자연관광: 9 <sup>22)</sup>	[지역 <sup>23)</sup> ], [지역별 <sup>24)</sup> ] 검색 구분: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 구분: ▪ 국/도립/군립공원: 96 <sup>25)</sup> ▪ 명산: 428 ▪ 자연생태관광지: 145 ▪ 자연휴양림/수목원: 205 ▪ 폭포/계곡/약수터: 318 ▪ 항구/어촌/등대: 186 ▪ 해안절경/해수욕장/섬: 533 ▪ 호수/강/동굴: 139 ▪ 희귀동식물/기암괴석: 67 (총 2,117개)	게시판
2.역사관광: 6	[지역], [지역별] 검색 구분: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 구분: ▪ 고궁/성/문: 143 ▪ 고택/생가/민속마을: 232 ▪ 사찰/종교성지: 1,063 ▪ 시군종합안내: 186 ▪ 안보관광: 26 ▪ 유적지/사적지: 1,045 (총 2,695개)	게시판
3.체험관광: 9	[지역], [지역별] 검색 구분: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 구분: ▪ 공원: 301 ▪ 산사체험: 94 ▪ 온천/욕장/스파/찜질방: 179 ▪ 유람선/잠수함관광: 66 ▪ 유원지/관광단지: 110 ▪ 이색체험/이색거리: 217 ▪ 전통체험: 48 ▪ 체험마을/관광농원: 625 ▪ 헬스투어: 5 (총 1,645개 <sup>26)</sup> )	게시판
4.테마관광: 6	[지역], [지역별] 검색 구분: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 구분: ▪ 드라이브코스: 137 ▪ 문학작품 배경지: 23 ▪ 산업관광지: 50 ▪ 시티투어 ▪ 영화·드라마촬영지: 149 ▪ 유명건축/조형물: 96 (총 455개)	게시판
5.문화시설: 10	[지역], [지역별] 검색 구분: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 구분: ▪ 공연장: 216 ▪ 대형서점: 3 ▪ 도서관: 113 ▪ 문화원: 229 ▪ 문화전수시설: 34 ▪ 미술관/화랑: 280 ▪ 박물관: 377 ▪ 외국문화원: 14 ▪ 전시관/기념관: 265 ▪ 컨벤션센터: 12 (총 1,543개)	게시판

출처: 한국관광공사(korean.visitkorea.or.kr)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토대로 작성 (2010년 10월 검색)



## 1) 디렉토리 개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디렉토리인 ‘어디로 갈까’ 중 ‘관광명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크게 5개 디렉토리(자연관광, 역사관광, 체험관광, 테마관광, 문화시설)로 구성되었다.

각 디렉토리의 계층(깊이)은 모두 2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 대분류는 자연, 역사, 체험, 테마, 시설 등의 5개 주제로 구분하였고, 2단계 분류는 6~10개의 디렉토리들로 구성되었다. 대분류 별로 450~2,700여개의 콘텐츠가 있고, 총 콘텐츠 수는 8,500여개에 달한다. 콘텐츠의 배열은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다.

최종 콘텐츠가 나열되는 페이지는 전국을 2단계의 지역으로 나누어 검색 가능하게 했다. 1단계는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등 16개 지역으로, 2단계는 선택한 각 지역 아래 시, 군, 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렉토리 별로 2,700여개에 달하는 전국의 방대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 콘텐츠를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 2) 분류체계 분석

### 가)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5개 디렉토리(자연관광, 역사관광, 체험관광, 테마관광, 문화시설)의 계층은 모두

---

20) 디렉토리 수

21) 총 콘텐츠 수

22) 하위 디렉토리 수

23)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16개 지역

24) 지역: 상위 지역 내 포함된 시·군·구 등

25) 하위 콘텐츠 수

26) 사이트에는 총 1,597개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2단계이다. 5개 대분류는 하위에 6~10개 디렉토리들로 구성되었다. 최종 콘텐츠 페이지에는 16개 지역 및 그 하위 지역(시, 군, 구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8,500여개에 이르는 전국의 방대한 콘텐츠를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다. 2단계 디렉토리는 복수의 비슷한 주제를 하나의 디렉토리로 묶은 것<sup>27)</sup>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렉토리 계층수를 필요 이상으로 깊게 늘리지 않고도 콘텐츠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콘텐츠를 세부 주제별<sup>28)</sup>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옵션 설정이 없어, 2단계의 디렉토리 계층수가 자칫 부족할 수도 있다. 복수 주제를 하나의 디렉토리로 묶은 것이 다수이므로, 반드시 세부 주제별 검색 옵션을 두어 방대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자연관광 > 명산’(428개)은 산, 오름과 봉, 대, 둘레길과 올레길 각 코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일출경관까지 산과 관련한 넓은 범위의 관광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산의 높이, 오름(봉), 길(둘레길 등), 기타 시설(케이블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옵션을 설정하는 것이다.

#### 나)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 ① 디렉토리의 포괄성

4개 대분류의 2단계 디렉토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 자연관광(9개): 국/도립/군립공원, 명산, 자연생태관광지, 자연휴양림/수목원, 폭포/계곡/약수터, 항구/어촌/등대, 해안절경/해수욕장/섬, 호수/강/동굴, 희귀동식물/기암괴석
- 역사관광(6개): 고궁/성/문, 고택/생가/민속마을, 사찰/종교성지, 시군종합안내, 안보관광, 유적지/사적지

27) ‘국/도립/군립공원’, ‘고궁/성/문’, ‘고택/생가/민속마을’ 등

28) ‘항구/어촌/등대’의 세부 주제는 ‘항구’, ‘어촌’, ‘등대’이다.

- 체험관광(6개): 공원, 산사체험, 온천/욕장/스파/찜질방, 유람선/잠수함관광, 유원지/관광단지, 이색체험/이색거리, 전통체험, 체험마을/관광농원, 헬스투어
- 테마관광(6개): 드라이브코스, 문학작품 배경지, 산업관광지, 시티투어, 영화·드라마 촬영지, 유명건축/조형물

모든 대상 자원을 빠짐 없이 포함하기 위해서는 2단계 디렉토리의 폭이 넓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9개의 많지 않은 수의 2단계 디렉토리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디렉토리 폭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슷한 성질의 복수의 자원들을 하나의 주제 범주로 묶었기 때문이다. ‘폭포/계곡/약수터’, ‘항구/어촌/등대’ 등이 그 예이다.

위 4개 대분류는 2단계 디렉토리 수가 많지 않음에도 모두 ‘기타’를 포함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기타’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것은 현 분류만으로 모든 관광지 및 관광자원을 충분히 포괄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본다. 디렉토리의 폭이 대상 자원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범위이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타’를 둘 이유는 없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타’를 두는 것은 이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관광, 역사관광과 같이 대부분의 콘텐츠 본질이 뚜렷한 유형자원일 경우, ‘기타’ 디렉토리가 없는 것은 자칫 분류의 오류가 생길 여지가 있다. 체험관광, 테마관광과 같이 주로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이 작용하는 분류가 아닌, 유형의 시설물을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대상자원을 포괄할 수 있는 분류가 준비되었을 때, ‘기타’를 제외할 수 있다.

현재의 5개 디렉토리로 그 소속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이 존재한다. 현재 ‘체험관광’에 속해 있는 ‘공원’과 ‘유원지/관광단지’의 성격을 5개 디렉토리의 한 곳으로 명확히 포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역사관광’ 디렉토리를 인문 범위까지 포함하여 ‘인문·역사관광’으로 확장시켜 포괄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분류 중 ‘체험관광’과 ‘테마관광’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개념이 겹치는 콘텐츠(‘이색체험/이색거리’ 및 ‘산업관광지’의 일부)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비슷한 주제를 각각의 독립된 디렉토리로 만들면 추후 자원의 분류를 지속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모든 관광지 및 관광자원 콘텐츠를 포괄할 수 있도록 디렉토리를 만들고, 비슷한 개념의 디렉토리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시설’은 모두 인위적인 유형의 자원으로 구성된 디렉토리이다. 새로운 형태의 문화시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타’를 두어 소수의 새로운 콘텐츠나, 아직 개념을 정의할 수 없는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 일례로, ‘대안공간’ 시설은 현재 ‘미술관/화랑’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다. 전시장과 공연장, 음식점 등을 겸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안공간 특성으로 볼 때, 미술관과 화랑으로 제한하여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콘텐츠 수가 충분히 많아져 독립적인 디렉토리가 생성될 때까지 ‘기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관광명소’ 디렉토리 폭은 1, 2단계 계층 모두 5~10개 사이이다. 전국의 8,500여 개에 달하는 자원을 이처럼 적은 수의 디렉토리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제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대분류를 자연, 역사, 체험, 테마, 문화시설 등 관광객체를 기준으로 잡고, 중분류는 세부 주제들을 비슷한 특성끼리 하나의 디렉토리로 묶어 디렉토리 폭을 10개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은 콘텐츠 배열 시, 지역(전국 16개) 및 하위 지역(시, 군, 구)의 검색 옵션이 있어 가능하였다. 하지만 2단계 전체 40개 디렉토리 중, 콘텐츠 수가 200~400여개에 달하는 것이 15개에 이른다. 이것은 8,500여개의 방대한 콘텐츠를 10여개의 디렉토리 폭으로 다루면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독립된 디렉토리를 추가 생성하여 분산시키거나, 세부 주제에 대한 검색 옵션을 강화하

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다) 콘텐츠 수의 균형성

위 <②디렉토리 폭의 적절성>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체적으로 디렉토리 1개 당 보유 콘텐츠 수가 많고, 디렉토리 간 콘텐츠 수의 편차도 심한 편이다.

‘역사관광’의 ‘사찰/종교성지’(1,063개), ‘유적지/사적지’(1,045개)는 동위의 디렉토리들과 비교하여 콘텐츠 수가 월등히 많다. 이런 경우 콘텐츠 수의 균형도 문제이지만, 검색페이지만 100 페이지가 넘는 등 검색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디렉토리 계층과 폭을 늘리고, 최종 콘텐츠 페이지에 검색 옵션을 강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여야 검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사찰/종교성지’는 불교, 유교, 기독교·천주교 등의 세부 디렉토리나 검색 옵션을 두어 콘텐츠를 분산시키고, ‘유적지/사적지’도 종교에 따른 분류나 문화재 지정 유형(보물, 기념물 등)에 따라 디렉토리나 검색 옵션을 두어 콘텐츠를 분산시킨다.

‘문화시설’의 ‘대형서점’은 총 콘텐츠 수가 고작 3개로, 서울 종로구와 중구의 세 곳만을 포함하고 있다. 콘텐츠의 꾸준한 수집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라)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체험관광’ 디렉토리에는 ‘공원’, ‘유원지/관광단지’가 속해 있다. ‘공원’은 일반 근린공원, 서울대공원, 제주공룡랜드, 판소리공원 등 주제(테마)공원이라 불리는 공원들이 혼재해있다. ‘유원지/관광단지’는 관광특구 및 리조트, 레저타운, 경주 보문관광단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체험관광’이라 함은 특수한 환경 내에서 학습이나 특별한 활동 및 체험을 위주로 하는 관광을 뜻한다. 동위의 ‘산사체험’, ‘유람선/잠수함관광’, ‘전통체험’, ‘체험마을’ 등과 비교하여 ‘공원’과 ‘유원지/관광단지’의 속성은 체험관광과 테마관광의 양쪽 모두에 속하는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체

험관광과 테마관광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서로 분명하게 나뉘기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분류로 나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체험관광과 테마관광 대신, 뚜렷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예를 들어 ‘인문·역사관광’, ‘체험·테마관광’)로 다시 처음부터 대분류 디렉토리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때, 소속을 정하기 애매한 관광활동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현재의 대분류를 유지한다면 ‘공원’과 ‘유원지/관광단지’의 자원을 분리하여 ‘체험’이나 ‘테마’에 가까운 것으로 나누어 속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자연관광’의 ‘국/도립/군립공원’ 디렉토리를 확장하여 ‘공원’으로 디렉토리 명을 포괄하고, 세부 디렉토리로 ‘국립, 도립, 군립, 도시/생활공원, 테마공원’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유원지/관광단지’도 같은 맥락에서 명확한 소속 디렉토리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분류 ‘체험관광’의 하위 ‘이색체험/이색거리’은 상·하위 디렉토리 명으로만 보았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색체험/이색거리’의 콘텐츠는 특별한 주제가 있는 거리나 음식골목, 영어마을, 주제공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역시 ‘테마관광’ 디렉토리와 경계를 분명히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주제에 따라 검색옵션을 설정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테마관광’ 디렉토리의 ‘유명건축/조형물’에는 전체 96개 콘텐츠 중, 전적비, 인물기념비 등 주로 역사와 관련된 기념물이 20여개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주제(테마)’ 보다는 ‘역사’에 선행되어 속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역사관광’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위에 독립된 디렉토리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상·하위 디렉토리의 일치성 및 논리성과 관련이 있으며,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검색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마)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 ①디렉토리의 배열성

5개 대분류 디렉토리(자연관광, 역사관광, 체험관광, 테마관광, 문화시설) 순서는 자연유형에서 인문유형으로 배열되었다. 2단계 디렉토리부터는 모두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검색옵션 ‘지역’은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도의 순서로, 하위 ‘지역별’은 자모순으로 배열되었다.

### ②컨텐츠의 배열성

최종 컨텐츠가 나열된 페이지는 게시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본 설정 배열이 디렉토리 명이나 컨텐츠 명 순서가 아니라 검색 결과가 무질서하게 조회된다.

더구나 검색옵션이 ‘지역’의 선택만 가능하여, ‘고궁/성/문’과 같이 복수 주제로 구성된 디렉토리인 경우, 원하는 1개(‘고궁’만 선택)의 주제로 정렬하여 볼 수가 없다. 검색자는 컨텐츠 검색 결과에 대하여 배열 기준의 의문이 드는 것은 물론, 조회된 결과에서 다시 찾고자 하는 결과를 공들여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들이게 된다. 기본 배열 설정을 자모순으로 하고, [분류]를 세부 주제(고궁, 성, 문 등)로 설정하여 검색 옵션처럼 정렬 기능을 부여한다면 배열성과 검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래 그림은 ‘고궁/성/문’을 서울지역만 선택하여 검색한 결과이다. 현재의 [분류] 항목(인문>역사관광지>성)은 컨텐츠가 소속된 디렉토리의 경로일 뿐, 분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곳에 세부 주제에 대한 정렬 기능을 부여하면, 세부 분류와 배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HOME > 여행정보 검색

여행정보 검색

서울 지역 검색

관광명소

- 자연관광
- 역사관광
  - 고궁/성/문
    - 고택/생가/민속마을
    - 사찰/종교성지
    - 시군종합안내
    - 안보관광
    - 유적지/사적지
  - 체험관광
  - 테마관광
  - 문화시설
- 숙박
- 음식
- 쇼핑
- 교통
- 레포츠
- 축제/공연/행사
- 여행코스

총 18건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10개씩

번호	지역	제목	분류
18	서울 종로구	홍지문 및 당촌대성	인문(문화/예술/역사)>역사관광지>성
17	서울 종로구	해화문 (홍화문)	인문(문화/예술/역사)>역사관광지>문
16	서울 성북구	서울성곽 북악산 숙정문	인문(문화/예술/역사)>역사관광지>문
15	서울 중구	광화문	인문(문화/예술/역사)>역사관광지>문
14	서울 중구	송례문(崇禮門)	인문(문화/예술/역사)>역사관광지>문
13	서울 중구	덕수궁	인문(문화/예술/역사)>역사관광지>고궁
12	서울 종로구	창덕궁과 후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문(문화/예술/역사)>역사관광지>고궁
11	서울 종로구	운현궁	인문(문화/예술/역사)>역사관광지>고궁
10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문(문화/예술/역사)>역사관광지>고궁
9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獨立門)	인문(문화/예술/역사)>역사관광지>문

처음 이전 1 2 다음 끝

검색결과 엑셀 다운로드

출처: 한국관광공사(korean.visitkorea.or.kr) (2010년 11월)

#### <그림 4-1>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검색 화면

##### 바) 용어의 적절성

대분류 ‘역사관광’의 하위 ‘안보관광’에는 ‘시군종합안내’ 디렉토리가 있다. 시, 군, 구의 개요와 자연, 역사 및 문화정보를 관할서(시청, 구청 등) 연락처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시, 군, 구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 지역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sup>29)</sup>. 서울(3개)과 제주도(3개), 경기도(32개) 등 주요 지역의 정보도 양적인 면이 많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정보의 질을 낮추고 있다. 따라서 디렉토리의 존재 의미도 퇴색되었다. 정보의 추가 등 꾸준한 유지관리가 반드시

29) 서울로 검색할 경우, ‘서울의 문화’, ‘서울특별시’, ‘합정동’ 단 3개의 정보만 검색된다.



필요한 디렉토리이다. 디렉토리 명도 콘텐츠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시군종합안내’라고 하기에 극히 일부 지역만 포함하고 있고, 관공서에 대한 정보를 주로 다루는 곳 같은 어감을 주기 때문이다. 현 콘텐츠를 고려할 때 ‘지역별 역사·문화 소개(이야기)’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대분류 ‘체험관광’의 하위 ‘헬스투어’ 디렉토리 명은 차차 적절한 우리말로 순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동위 디렉토리화 비교하여 유독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외래어가 아니다. 따라서 ‘건강마을’과 같이 적절한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 유지관리성·최신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사관광 > 시군종합안내’와 ‘문화시설 > 대형서점’의 보유 콘텐츠량은 실제 존재하는 자원 양에 비하여 무척 빈약하다. 특히 ‘시군종합안내’는 등록일자가 대부분 2009년 12월로, 그 이후 정보의 추가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두 디렉토리는 꾸준한 정보 등록과 수정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콘텐츠의 상단에 최종 수정일자와 관리처가 명시되어 있다. 위 두 디렉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콘텐츠는 2010년 11월 현재까지 꾸준히 정보가 수정되고 있다. 다만, 최종 수정일자만 있고 최초 등록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콘텐츠가 언제부터 등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아) 중복성

모든 최종 콘텐츠 페이지에는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이 있다. 정보의 수정일에 따라, 이용자들의 추천 평이 높은 순서에 따라, 그리고 게시물 조회수에 따라 정렬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는 상위 10위

~20위 정도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수백 개의 콘텐츠를 그저 부여된 순위대로 늘어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이것이 탭 수대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보의 중복이 심하여 페이지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용자들에게 순위를 알려주는 원래의 의미를 살리고, 지나친 중복성과 페이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최신순], [추천순]은 상위 20위, 1~2페이지 정도까지만 설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더구나 콘텐츠 정보 어디에도 조회 수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조회순]으로 정렬은 되고 있으나, 실제 몇 번의 조회가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초기 설정(default)으로 배열된 목록과, [추천순] 탭이 이미 존재하므로 [조회순]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으며 콘텐츠의 중복성도 강하다. 따라서 삭제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 자) 검색의 효율성

##### ①검색 옵션

모든 디렉토리의 최종 콘텐츠가 나열되는 페이지 상단에 ‘지역’(전국 16개), ‘지역별’(16개 지역의 하위 시·군·구 등)의 검색 옵션이 있어, 8,500여개에 달하는 전국의 방대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총 콘텐츠 수는 많은데 비하여, 디렉토리는 깊지 않은 2단계 계층으로 구성되어 필연적으로 하나의 디렉토리가 복수 주제로 이루어진 것(온천/욕장/스파/찜질방 등)이 많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검색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부 주제별로 검색 옵션을 추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래는 그 예이다.

▪ ‘자연관광’ > ‘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사회 및 근린공원, 주제공원 등 하위 콘텐츠 포함

▪ ‘역사관광’ > ‘안보 관광·기념물’ > 전망대, 땅굴, 전쟁기념비·탑 등 하위 콘텐츠 포함

## ②컨텐츠 수의 명시

모든 디렉토리의 최종 컨텐츠 페이지는 게시판 형태로써, 게시물의 번호가 내림차순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컨텐츠 첫 페이지만 보아도, 이 디렉토리 내에 몇 개의 정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 3) 디렉토리 개선 안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4-3>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디렉토리 명: 어디로 갈까(관광명소)		
1단계	2단계	컨텐츠
1.자연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 명산 ▪ 자연생태관광지</li> <li>▪ 자연휴양림/수목원 ▪ 폭포/계곡/약수터 등</li> </ul>	[지역], [지역별] 검색 구분  [최신10위], [추천10위] 탭 구분  [세부 주제: 국립공원, 주제공원 등] 디렉토리 또는 검색옵션
2.인문·역사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궁/성/문 ▪ 고택/생가/민속마을</li> <li>▪ 사찰/종교성지 ▪ 지역별 역사소개 ▪ 안보 관광/기념물 ▪ 유원지/관광단지 등</li> </ul>	
3.체험·테마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공원 ▪ 이색체험/이색거리 ▪ 전통체험</li> <li>▪ 체험마을/관광농원 ▪ 건강마을 등</li> </ul>	
4.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라이브 코스 ▪ 문학작품 배경지</li> <li>▪ 산업관광지 ▪ 시티투어 ▪ 유명건축/조형물 등</li> </ul>	

출처: 연구자 작성

## 나. 서울특별시문화관광 'iTourSeoul'

<표 4-4>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디렉토리 명: 관광명소		
1단계: 4 <sup>30)</sup>	2단계: 447 <sup>31)</sup>	형식
1.인기관광지역	[지역선택] 구분: (21개 지역) [맛집, 숙박, 관광명소, 쇼핑, 문화행사, 관광안내소] 선택: ▪ 광화문 ▪ 남대문시장 ▪ 남산일대 ▪ 대학로 ▪ 동대문시장 ▪ 명동 ▪ 무교동 ▪ 북촌&삼청동 ▪ 삼성동 ▪ 시청 ▪ 신사동&압구정&청담 ▪ 신촌&이대 ▪ 강남역 ▪ 여의도 ▪ 이태원&용산 ▪ 인사동 ▪ 잠실 ▪ 정동&덕수궁 ▪ 종로&청계천 ▪ 홍대 ▪ 기타	이미지/텍스트 배열
2.주제별 관광명소: 23 <sup>32)</sup>	▪ 고궁: 6 ▪ 유적지·문화재: 56 ▪ 랜드마크: 7 ▪ IT서울: 9 ▪ 박물관·기념관: 50 ▪ 미술관: 46 ▪ 문화·관람시설: 15 ▪ 문화원: 6 ▪ 전통문화체험: 26 ▪ 공연장: 32 ▪ 영화관: 18 ▪ 도서관: 12 ▪ 산: 8 ▪ 강·하천: 14 ▪ 청계천: 9 ▪ 공원: 56 ▪ 조망명소: 5 ▪ 레포츠: 14 ▪ 테마파크: 4 ▪ 테마거리: 25 ▪ 북카페: 7 ▪ 한옥레스토랑: 9 ▪ 스타일리쉬 레스토랑: 13 (총 447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3.세계문화유산: 5 <sup>33)</sup>	컨텐츠: 정릉 태릉, 강릉 창덕궁 종묘 선정릉 (총 5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4.지역별 관광명소찾기	[지역선택] 구분: (21개 지역) ▪ 전체보기: 407 <sup>34)</sup> ▪ 광화문: 20 ▪ 남대문시장: 6 ▪ 남산일대: 16 ▪ 대학로: 28 ▪ 동대문시장: 4 ▪ 명동: 6 ▪ 무교동: 0 ▪ 북촌&삼청동: 54 ▪ 삼성동: 9 ▪ 시청: 4 ▪ 신사동&압구정&청담: 25 ▪ 신촌&이대: 14 ▪ 강남역: 16 ▪ 여의도: 3 ▪ 이태원&용산: 19 ▪ 인사동: 18 ▪ 잠실: 9 ▪ 정동&덕수궁: 14 ▪ 종로&청계천: 23 ▪ 홍대: 12 ▪ 기타: 150	이미지/텍스트 배열

출처: 서울특별시문화관광(www.visitseoul.net)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토대로 작성 (2010년 9월 검색 자료)

30) 디렉토리 수

31) 총 컨텐츠 수(디렉토리 2)

32) 하위 디렉토리 수

33) 하위 컨텐츠 수

34) 실제 21개 지역 컨텐츠 수를 더한 수는 451개임

## 1) 디렉토리 개요

서울특별시문화관광 'iTourSeoul'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디렉토리인 '관광명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4개 대분류(인기관광지역, 주제별 관광명소, 세계문화유산, 지역별 관광명소찾기)로 구성되었고, 크게 '지역'과 '관광 주제', 2개의 특성으로 나뉘었다.

'인기관광지역'은 서울을 2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맛집, 숙박, 관광명소, 쇼핑, 문화행사, 관광안내소)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별 관광명소찾기'는 21개 지역별로 관광지를 구분하였는데, '인기관광지역'과 비교하여 유형별 검색 옵션 부분이 빠진 것이다. 즉, '인기관광지역'과 '지역별 관광명소찾기'는 검색 과정과 검색 결과가 서로 중복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디렉토리이다.

'주제별 관광명소'는 고궁, 미술관, 산, 강·하천 등 23개의 비교적 자세한 세부 주제로 하위 디렉토리를 구성하였다. 이 디렉토리의 총 콘텐츠 수는 450여개이다.

'세계문화유산'은 서울의 문화유산을 모아서 소개한 디렉토리로, 아직까지 총 콘텐츠 수는 5개에 불과하다.

## 2) 분류체계 분석

### 가)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관광명소'라는 큰 틀을 '지역'(인기관광지역, 지역별 명소 찾기)과 '관광 주제'(주제별 관광명소)를 기준으로 하여 대분류를 나누었다. '지역' 관련 디렉토리는 서울의 변화가 및 관광요소가 있는 장소들(남대문시장, 강남역 등)로 총 21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하위 디렉토리로 두었다.

'주제별 관광명소'의 디렉토리 계층은 1단계로 이루어졌다. 디렉토리 명에 따라 관광지 주제와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23개의 디렉토리로 구성되었다.

고궁, 유적지, 서울의 랜드마크, 영화관, 산, 하천, 레스토랑 등 다양한 면을 관광의 주제와 특성으로 잡아 구분하였다.

서울이라는 한정된 1개의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디렉토리 계층의 수는 줄이고, ‘지역’과 ‘주제’를 수평적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 나)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 ①디렉토리의 포괄성

‘인기관광지역’과 ‘지역별 관광명소찾기’ 아래에 ‘기타’ 디렉토리가 존재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한 20개의 지역 외에 포함되어 있는 관광지들을 포괄할 수 있다. ‘기타’의 관광물들은 광진구, 상암동, 수유동, 한강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한강공원, 유람선, 자전거 길 등이 모두 ‘기타’에 포함되어 있다. ‘한강’이 서울에서 갖는 대표성과 보유 콘텐츠 수(5개 이상)로 보아 ‘기타’에 분류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지역으로 디렉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한강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았고, 수영장과 공원, 체육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인왕산, 북악산 등 가까운 지역의 산을 하나의 독립된 범주로 구성하여 산과 관련한 관광물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현재 산과 한강 관련 관광물들은 모두 ‘기타’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기 지정된 21개 지역 범위를 확장하거나 독립된 디렉토리로 구성하여, ‘기타’에 들어가 있는 몇몇 관광지들을 21개 지역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울 전 지역의 관광물을 균형 있게 포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②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관광명소’라는 큰 틀을 ‘지역’(인기관광지역, 지역별 명소 찾기)과 ‘관광 주제’(주

제별 관광명소)를 기준으로 하여 대분류를 나누었다. 하지만 4개의 대분류는 디렉토리 간의 관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은 동위 디렉토리들(주제별, 지역별)과 비교하여 대분류로 독립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동위 디렉토리인 ‘주제별 관광명소’의 하위로 들어가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인기관광지역’과 ‘지역별 관광명소찾기’ 디렉토리들도 동일한 서울의 ‘지역’과 ‘관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검색 과정과 검색 결과물이 동일하다. ‘인기관광지역’에 ‘유형별’ 검색 옵션 기능이 포함되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의 디렉토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간결한 사이트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다) 콘텐츠 수의 균형성

모든 대분류(인기관광지역, 주제별 관광명소)의 2단계 디렉토리 폭이 넓어(주제별 23개, 지역별 21개), 대부분의 하위 콘텐츠 수가 20개 안쪽으로 다른 사이트와 비교하여 콘텐츠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일부 디렉토리의 하위 콘텐츠의 수가 많은 경우 30~60개 정도이다. 다만, ‘기타’ 디렉토리의 콘텐츠 수가 150개가 넘어 위 <①디렉토리의 포괄성>에서 언급하였듯이, 기 지정된 21개 지역 범위를 확장하거나 독립된 디렉토리로 구성하여, ‘기타’에 들어가 있는 몇몇 관광지들을 분산시켜 균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문화유산’은 하위 디렉토리 없이 콘텐츠가 바로 나열된 형식인데, 콘텐츠의 수가 5개 밖에 되지 않는다. 위 <②디렉토리 폭의 적절성>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의 독립된 대분류로 구성하기 어려운 주제이고, 콘텐츠 수도 대분류로 놓기에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주제별 관광명소’의 하위 디렉토리로 포함되는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 라)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대분류 ‘세계문화유산’은 총 5개의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세계문화유산은 인류 공통적으로 가치 있는 자연·문화적 자원을 보존하고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자원이라는 보편적 의미가 있다. 이 중 창덕궁과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맞지만, 나머지 3곳(정릉, 태릉, 선정릉)은 우리나라 사적으로 지정되었을 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다. 디렉토리명과 콘텐츠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디렉토리 명을 너무 광범위하게 일반화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 디렉토리 명칭은 보편적인 개념으로 지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콘텐츠를 정비해야 한다.

‘주제별 관광명소 > 레포즈’(14건)는 야구·축구 경기장, 아이스링크, 온라인게임 전용 경기장, 암벽등반공원, 국기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범주에 카지노와 온라인게임을無理 없이 포함하기 위해서는 ‘오락·레포즈’로 디렉토리 명을 확장시키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즉, 디렉토리가 하위 콘텐츠 내용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 마)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 ① 디렉토리의 배열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내용의 ‘인기관광지역’과 ‘지역별 관광명소찾기’ 디렉토리를 일원화하고, 대분류로 독립하기 적절하지 않은 ‘세계문화유산’을 대분류에서 삭제하여 디렉토리를 정리하고 배열한다.

##### ② 콘텐츠의 배열성

‘인기관광지역’과 ‘지역별 관광명소찾기’의 하위 21개 지역은 대부분 자모순으로 배열되었다.



‘주제별 관광명소’의 하위 디렉토리는 자모순은 아니지만, 옛 문화(고궁, 유적지·문화재), 건물·시설물(박물관·기념관, 공연장, 도서관), 자연물(산, 강·하천), 주제관광(테마파크, 테마거리), 음식점(카페, 레스토랑) 순으로 일관성 있게 배열되었다. 다만, 세로로 길게 23개 디렉토리가 늘어나므로, 추후 비슷한 군끼리 동일한 색상의 텍스트로 구분한다면 배열성이 더 나아질 것이다.

모든 디렉토리의 최종 콘텐츠들이 자모순이나 수정일자 순이 아닌, 일정한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다. ‘주제별 관광명소 > 유적지·문화재’(56건)와 같이 비교적 콘텐츠 수가 많은 디렉토리의 콘텐츠들이 일정한 순서 없이 12페이지에 걸쳐 나열되었다. 따라서 모든 콘텐츠의 배열에 자모순 등의 일정한 순서를 적용하여 검색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바) 용어의 적절성

대분류 ‘지역별 관광명소찾기’ 중 명소찾기의 띄어쓰기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 [맛집 > 지역별 맛집찾기, 테마별 맛집 찾기]. [숙박 > 지역별 숙소찾기] 등 동일한 사이트 내에서도 쓰임이 달라 일관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주제별 관광명소 > 스타일리쉬 레스토랑’(13건)은 ‘스타일리쉬’의 보편적인 의미로 보아 ‘멋진 레스토랑’을 모아놓은 곳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소개된 레스토랑은 대부분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음식점(태국, 인도, 파키스탄, 스페인, 멕시코 등)이라는 특징이 더 강하다. 따라서 디렉토리 명인 ‘스타일리쉬’를 ‘세계 각국 레스토랑’ 또는 ‘특색 있는 레스토랑’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본다.

#### 사) 유지관리성·최신성

모든 디렉토리의 콘텐츠 하단에 등록일자와 최종 수정일자, 관리처가 명시되어 있다. 2010년 10월 현재까지 꾸준히 정보가 수정되고 있다.

#### 아) 중복성

독립된 디렉토리로서, 서울을 21개 지역(광화문, 남대문시장, 북촌&삼청동, 기타 등)으로 세분하고 그 아래 다시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차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이다. 하지만 ‘인기관광지역’과 ‘지역별 관광명소찾기’는 디렉토리 특징은 물론, 정보검색 과정과 그 결과물이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된 개념의 디렉토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개 디렉토리로 통합하여 집중하는 것이 보다 간결한 홈페이지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자) 검색의 효율성

##### ① 검색 옵션

‘인기관광지역’, ‘지역별 관광명소 찾기’ 디렉토리의 최종 콘텐츠 페이지 상단에는 서울을 21개 지역별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인기관광지역’은 찾고자 하는 관광정보(맛집, 숙박, 관광명소, 쇼핑, 문화행사, 관광안내소)의 선택을 할 수 있어, 원하는 정보(지역, 관광정보)로 다방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검색 옵션은 디렉토리 계층이 얇아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지역별 관광명소 찾기’에 주제별(고궁, 북카페 등)로 관광정보를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다면, 찾고자 하는 정보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별 관광명소’는 2단계의 디렉토리 아래 콘텐츠가 나열된 형식이다. 최종 콘텐츠 페이지에 세부 지역(광화문, 남대문 시장 등)별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 않다. ‘박물관/기념관’(50개), ‘공원’(56개)과 같이 콘텐츠 수가 50여개에 이르는 것은 추후 세부 지역별로 검색 옵션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주제별 관광명소 > 유적지·문화재’(56건)는 선사유적지, 절, 왕릉, 성당, 대학교의 역사적인 건물,

그림 등 다양한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관광정보 및 자원의 특성대로 나눈 하위범주가 없이 12페이지에 걸쳐 콘텐츠가 나열된다는 것이다. 관광정보의 특성에 따라 검색 옵션을 설정하면 효율적인 검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②콘텐츠 수의 명시

모든 디렉토리의 최종 콘텐츠 페이지 상단에, 총 콘텐츠 수 및 해당 페이지 수가 명시<sup>35)</sup>되어 있다. 따라서 콘텐츠 첫 페이지만 보아도, 이 디렉토리 내에 몇 개의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3) 디렉토리 개선 안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4-5>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디렉토리 명: 관광명소		
1단계	2단계	검색 옵션
1.인기관광지역 (지역별 관광명소 찾기)		[지역] 구분 [유형: 맛집, 숙박, 관광명소, 쇼핑 등] 구분  -콘텐츠 자모순 배열
2.주제별 관광명소	고궁, 유적지·문화재, 랜드마크, 랜드마크, 세계 각국 레스토랑 등	[지역] 구분 [유형: 맛집, 숙박, 관광명소, 쇼핑 등] 구분 [관광자원 특성: 종교, 건물 등] 구분 -콘텐츠 자모순 배열

출처: 연구자 작성

35) (콘텐츠 수 명시 예) 총256개, 1 / 6페이지

## 다. 제주특별자치도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디렉토리 명: 불거리		
1단계: 15 <sup>36)</sup>	컨텐츠 수: 541 <sup>37)</sup>	형식
1.유적지/사적지: 26 <sup>38)</sup>	[지역별검색 <sup>39)</sup> ]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관덕정, 관음사, 대정향교, 모충사, 백조일손지묘, 법화사지, 별방진, 불탑사 5층석탑, 산천단, 삼사석, 삼성혈 등 (총 26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2.명산: 7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고근산, 금봉곡, 단산, 삼방산, 성산일출봉, 송악산, 한라산 (총 7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3.오름: 347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산굼부리, 별도봉, 수월봉, 용눈이오름, 다랑쉬오름, 성산일출봉, 사라봉, 새별오름, 사라오름, 묘산봉, 아부오름, 거문오름, 백록담, 돛대오름 등 (총 347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4.자연동굴: 10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만장굴, 협재굴, 미천굴, 김녕사굴, 검멀레동굴, 송악산 진지동굴, 쌍용굴, 황금굴, 황우지해안열두굴, 빌레못동굴 등 (총 10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5.폭포/계곡/유원지: 10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 정방폭포, 소정방폭포, 돈내코, 무수천, 영또폭포, 안덕계곡, 강정천유원지, 방선문 (총 10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6.경승지: 30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대포주상절리, 섭지코지, 쇠소깍, 용머리해안, 외돌개, 신비의 도로, 용두암, 큰영, 용연, 쉬리의 언덕, 애월해안도로, 용담해안도로, 절부암 등 (총 30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7.섬/등대: 15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우도, 마라도, 비양도, 추자도, 가파도 차귀도, 형제섬, 섯섬, 토끼섬, 산지등대, 우도등대, 새섬, 문섬, 범섬, 서건도 등 (총 15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8.해수욕장: 17	[지역별검색] 구분:	이미지/텍스트

디렉토리 명: 불거리		
1단계: 15 <sup>36)</sup>	컨텐츠 수: 541 <sup>37)</sup>	형식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신양 섬지코지 해변, 협재해수욕장, 중문·색달 해변, 금능 으뜸원 해변, 표선 해비치 해변, 이호 테우해변, 괏지과물 해변 등 (총 17개)	배열
9.자연휴양림/수목원:5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제주절물자연휴양림, 비자림, 서귀포자연휴양림, 한라수목원, 걸매생태공원 등 (총 5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10.고택/생가/민속마을: 3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성읍민속마을, 추사적거지, 이중섭 거주지 (총 3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11.테마공원: 29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휴애리 자연생활공원, 소인국테마파크, 제주러브랜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김녕미로공원, 여미지식물원, 한림공원, 제주미니미니랜드 등 (총 29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12.공연/행사장: 8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퍼시픽랜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매직월드, 더마파크, 해피타운, (주)제주드림랜드, 제주문예회관, 탐동해변공연장 (총 8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13.전시/박물관: 34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테디베어뮤지엄, 프시케월드,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민속촌 박물관, 설록차 뮤지엄, 아프리카 박물관, 건강과 성 박물관 등 (총 34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14.신규관광지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이미지/텍스트 배열
15.주간베스트 <sup>24</sup>	[지역별검색] 구분: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이미지/텍스트 배열

출처: 제주특별자치도(www.jejutour.go.kr)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토대로 작성 (2010년 9월 검색 자료)

36) 디렉토리 수

37) 총 컨텐츠 수

38) 디렉토리 내 하위 컨텐츠 수

39) 제주시내권, 서귀포시내권,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등 14개 지역

## 1) 디렉토리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디렉토리인 ‘볼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5개 대분류(유적지/사적지, 명산, 오름, 자연동굴, 폭포/계곡/유원지, 경승지, 섬/등대, 해수욕장, 자연휴양림/수목원, 고택/생가/민속마을, 테마공원, 공연/행사장, 전시/박물관, 신규관광지, 주간베스트 24)로 구성되었다. 대분류의 성격은 관광의 주제 및 객체로 나누었고, ‘신규관광지’, ‘주간베스트 24’는 신규로 등록된 관광지 및 방문 네티즌의 추천점수가 높은 곳을 다시 한번 모은 디렉토리이다.

디렉토리의 계층은 모두 1단계로 이루어졌다. 15개 디렉토리 아래에 하위 디렉토리 없이 콘텐츠가 나열되었다. 총 콘텐츠 수는 540여개로, ‘오름’(347개)의 수가 가장 많다.

## 2) 분류체계 분석

### 가)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각 디렉토리의 계층은 모두 1단계로 이루어졌다. 관광지 종류 및 특성, 시설(명산, 경승지, 테마공원, 공연/행사장 등)을 기준으로 13개 디렉토리로 구성되었고, ‘신규관광지’와 ‘주간베스트24’는 위 13개와는 성격이 다른 디렉토리이다.

디렉토리 계층의 수는 줄이고, 관광지 특성에 따라 수평적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대부분의 디렉토리의 콘텐츠 수는 30개 안쪽이다. 하지만 오름(347개)의 콘텐츠 수가 많아 1단계로는 섬세한 검색을 하기 어렵다. 또한, ‘폭포/계곡/유원지’와 같이 복수 주제로 이루어진 디렉토리는 추후 콘텐츠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관광지의 특성 등을 검색 옵션으로 설정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나)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 ①디렉토리의 포괄성

관광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디렉토리를 13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 8개 디렉토리가 자연관광자원과 관련되어 있다. 나머지 5개는 유적지, 시설과 마을, 공원 등 인문·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자연자원의 비중이 높아 디렉토리가 치중하는 경향이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외의 특성을 가진 관광거리가 발생할 시, 이것을 포함할 수 있는 ‘기타’ 디렉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②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명산’과 ‘오름’은 그 의미가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동위의 2개 디렉토리로 나누기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명산’(7건) 중 5개 산<sup>40)</sup>이 ‘오름’ 디렉토리에 중복되어 들어가 있다. 더구나 ‘명산’(7건)은 콘텐츠 수가 적어 독립된 디렉토리 보다는 ‘오름’(347개)과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름’(347건)은 오름 및 봉(293건), 봉(45건), 나머지는 산과 기타로 이루어졌다. 이럴 경우 디렉토리 명은 ‘산, 오름·봉’으로 하는 것이 세밀하다. 또한 검색 옵션으로 ‘산’, ‘오름·봉’, ‘기타’를 두어 검색의 효율성을 도울 수 있다. 덧붙여 ‘오름’과 같이 제주도 관광정보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을 경우, 최종 콘텐츠 페이지 상단에 오름이 기생화산을 의미한다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정보검색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동위의 디렉토리가 의미가 비슷하거나 중복이 되면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디렉토리의 폭(수)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 다) 콘텐츠 수의 균형성

콘텐츠 수가 다른 디렉토리와 비교하여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것은 분류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명산’은 콘텐츠 수도 적고, ‘오름’과 의미가 비슷

---

40) 고근산, 단산, 삼방산, 성산일출봉, 송악산이 산과 오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여 중복되는 콘텐츠가 있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오름’의 콘텐츠 수가 다른 디렉토리에 비해 현저히 많아 균형이 맞지 않기도 하다. 이럴 경우, 검색 옵션(산, 오름·봉, 기타)을 둬으로써 효율적인 검색을 도모할 수 있다.

#### 라)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몇몇 디렉토리 명은 하위 콘텐츠를 온전히 포괄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디렉토리 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은 해변(9건)과 해수욕장(8건)으로 구성되었다. 해수욕을 할 수 없는 해변도 포함하는 만큼, 디렉토리 명을 ‘해수욕장/해변’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위 콘텐츠를 보다 잘 대표할 것이다.

‘자연휴양림/수목원’은 휴양림(3건), 수목원(1건)과 생태공원(1건)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생태공원은 동위의 ‘테마공원’으로 옮긴다. ‘테마공원’(30건)의 절반 이상은 일반적 의미의 테마공원이고, 나머지는 식물원, 자연·생활·생태공원, 박물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테마공원은 일관된 주제가 있고 오락이나 편의시설이 있는 곳을 뜻한다. 현재의 ‘테마공원’ 디렉토리에 생태공원과 일반 자연공원, 생활공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디렉토리 명을 ‘공원’으로 잡고 검색 옵션을 설정하여 테마, 생태, 일반공원을 선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최상위 디렉토리 제목을 보고 그 안의 관광자원을 더 잘 유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마)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 ① 디렉토리의 배열성

대분류는 관광 객체의 특성에 따라 크게 자연자원, 인문·사회 자원, 시설로 나뉘었고, 위 흐름에 따라 디렉토리가 배열되었다. 다만, ‘신규관광지’와 ‘주간베스트24’가 위 13개와는 다른 성격의 디렉토리인데, 동일한 배열에 들어가 있어 혼란이 될



수 있다. 다른 색상의 텍스트나 배너 등의 형식으로 위 13개 디렉토리와의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②컨텐츠의 배열성

최종 컨텐츠 페이지는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으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평가점수순]과 [네티즌추천순]은 이용자의 추천평 및 별점으로 순위를 매긴 것으로, 두 컨텐츠 배열은 매우 흡사하여 동일한 탭을 중복하여 걸어놓은 것과 같다. 하나의 탭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페이지의 중복과 나열을 막도록 한다. 또한 [평가점수순]이 기본페이지로 설정되어 있어 컨텐츠가 효과적으로 배열되지 않았다. 일부 유명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관광자원이 추천평이 없어 이 순서가 의미가 없고 검색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네티즌추천순’ 탭 역시 ‘평가점수순’ 탭과 내용과 관광자원 배열순서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페이지를 중복되게 걸어놓았다. 두 개 중 한 개 탭은 삭제하고, 첫 화면도 ‘이름순’을 기본 페이지로 보이게 하면 무분별한 나열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름순] 탭을 기본페이지로 설정하여 배열성을 확보하고, [네티즌추천순] 탭은 상위 16위 정도(1개 페이지)로 제한하여 보여주도록 한다. 또한, [이름순] 탭의 컨텐츠 정보에 신규등록일자나 수정일자를 보여주고, 이를 등록일자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옵션기능을 추가한다면 따로 [신규등록순] 탭을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열성이 좋아지고,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신규등록순]의 의미 없이 중복되는 정보 및 페이지 수를 줄일 수 있다.

## 바) 용어의 적절성

디렉토리 명을 일부 적절하게 조정하고 변경할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하위 컨텐츠를 온전히 포괄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디렉토리 명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라)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에서 언급한 것으로 대신한다.

#### 사) 유지관리성 · 최신성

최종 콘텐츠 페이지에 [신규등록순] 탭이 있어, 수정되거나 새로 등록된 정보를 따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하단에 최초 등록일과 최종 수정일, 자료 갱신일, 자료 관리자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 콘텐츠의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규관광지’ 디렉토리는 최근 1년 안에 개장한 새로운 관광지 정보를 모아놓은 곳인데, 실제 보유 콘텐츠는 하나도 없는 텅 빈 디렉토리이다. 비슷한 성격의 ‘주간베스트24’ 디렉토리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아) 중복성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신규관광지’와 ‘주간베스트24’ 디렉토리를 하나로 일원화함으로써, 디렉토리를 줄이고 콘텐츠의 중복과 페이지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주간베스트24’의 [신규등록순] 탭을 [신규관광지]로 변경하고, 최근 1년 이내 개장한 관광지 정보를 모으는 곳으로 용도를 수정하는 것이다.

위 <②콘텐츠의 배열성>에서 언급하였듯이, 콘텐츠 최종 페이지의 [이름순] 탭을 기본페이지로 설정하고, [네티즌추천순] 탭은 상위 16위 정도(1개 페이지)로 제한하여 보여줌으로써,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신규등록순]의 의미 없이 중복되는 정보 및 페이지 수를 줄일 수 있다.

#### 자) 검색의 효율성

##### ①검색 옵션

모든 디렉토리의 최종 콘텐츠 페이지 상단에 제주시내, 서귀포시내, 읍 등 14개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1단계 분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디렉토리 당 평균 콘텐츠 수가 그리 많지 않아<sup>41)</sup>, 검색의 효율성이 아직까지 문제 되지는 않으나, 차후 ‘유적지/사적지’나 ‘경승지’와 같은 디렉토리는 세부 주제 (산, 폭포 등)별로 정렬할 수 있도록 검색옵션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렉토리 별로 최대 340여개에 달하는 콘텐츠를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② 콘텐츠 수의 명시

모든 디렉토리의 최종 콘텐츠 페이지 상단에는, 총 콘텐츠 수 및 해당 페이지 수가 명시<sup>42)</sup>되어, 이 디렉토리에 몇 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쉽다.

## 3) 디렉토리 개선 안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41) ‘오름’을 [제주 시내]로 검색했을 경우, 59개 콘텐츠가 5페이지에 걸쳐 나열된다.

42) (콘텐츠 수 명시 예) 전체 256 개 :: 현재 1 페이지 / 전체 22 페이지

<표 4-7>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디렉토리 명: 불거리		
1단계	2단계	검색 옵션
1.유적지/사적지 2. <u>명산/오름</u> 3.자연동굴 4.폭포/계곡/유원지 5.경승지 6.섬/등대 7. <u>해변/해수욕장</u> 8.자연휴양림/수목원 9.고택/생가/민속마을 10. <u>공원</u> 11.공연/행사장 12.전시/박물관	명산/오름, 해변/해수욕장, 공원 등 일부 디렉토리 하위에 2단계 디렉토 리 추가 생성	[이름순], [추천 Top10] 탭 구분 [지역] 검색 구분  이름순 배열(기본설정)

출처: 연구자 작성

## 라. 사이버강원관광

<표 4-8> 사이버강원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디렉토리 명: 즐길거리		
1단계: 443)	2단계: 1,308 <sup>44)</sup>	형식
1.자연관광자원: 9 <sup>45)</sup>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구분: [지역검색 <sup>46)</sup> ] 구분: ▪ 공원: 26 <sup>47)</sup> ▪ 해변: 65 ▪ 해안명소: 17 ▪ 주요산행지: 91 ▪ 호수/댐/섬: 25 ▪ 하천: 59 ▪ 계곡: 59 ▪ 자연생태: 12 ▪ 폭포: 44 (총 398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2.레저/스포츠: 6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구분: [지역검색] 구분: ▪ 스키/골프/리조트: 11 ▪ 드라이브/유람선: 11 ▪ 수상/육상/항공레포츠: 19 ▪ 수렵장/사격장/낚시: 41 ▪ 테마파크: 12 ▪ 캠프/수련: 15 (총 109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3.역사/문화자원: 8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구분: [지역검색] 구분: ▪ 국보: 479 ▪ 전통가옥: 34 ▪ 사찰/불상/탑/동종: 40 ▪ 천주(기독교) 성지: 9 ▪ 박물관/기념관/미술관: 61 ▪ 인물: 23 ▪ 통일안보전적자원: 18 ▪ 5일장/재래시장: 33 (총 697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4.보양/휴양관광: 4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구분: [지역검색] 구분: ▪ 온천/약수: 14 ▪ 강원도체험: 24 ▪ 관광농원/허브농원: 44 ▪ 자연휴양림: 22 (총 104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출처: 사이버강원관광(www.gangwon.to)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토대로 작성 (2010년 9월 검색 자료)

43) 디렉토리 수

44) 총 콘텐츠 수

45) 하위 디렉토리 수

46)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18개 지역

47) 하위 콘텐츠 수

## 1) 디렉토리 개요

사이버강원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디렉토리인 ‘즐길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크게 4개 디렉토리(자연관광자원, 레저/스포츠, 역사/문화자원, 보양/휴양관광)로 구성되었다.

디렉토리의 계층은 모두 2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대분류는 관광객체인 자연, 레저, 역사/문화, 휴양 등을 주제로 나뉘었고, 2단계 중분류는 각 4개~9개의 디렉토리로 구성되었다. 총 콘텐츠 수는 1,300여개로, 2단계 디렉토리들이 각각 100~690여개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역사/문화자원’ 디렉토리의 콘텐츠 수가 690여개로 가장 많다.

콘텐츠 배열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한 페이지 당 16개씩 보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 2) 분류체계 분석

### 가)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모든 디렉토리의 계층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관광의 특성에 따라 4개의 대분류로 나뉘어졌고, 2단계는 세부 관광 활동 및 시설의 특징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뉘어졌다.

하지만 ‘역사/문화자원 > 국보’(479개)의 콘텐츠 수가 많아 2단계 계층의 디렉토리를 통해 검색되는 콘텐츠 양과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다. 따라서 ‘국보’는 1~2개 계층의 디렉토리(형태: 절, 능, 인쇄물 등)를 반드시 추가하여 검색결과를 지금보다 간결하게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보’는 디렉토리의 계층도 문제이지만, 용어나 콘텐츠의 일치성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 부분의 해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일부 디렉토리를 제외하면 각 디렉토리의 콘텐츠 수가 20~60개 정도로, 아직까지는 1단계 계층을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자연관광자원 > 호수/댐/섬’과 같이 복수의 주제로 구성된 디렉토리는, 추후 세부주제를 검색옵션으로 두어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나)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 ①디렉토리의 포괄성

자연, 레저/스포츠, 역사/문화, 보양/휴양의 4개의 큰 특징으로 강원도 관광의 범위를 정의하였다. 모든 디렉토리의 최종 2단계에는 ‘기타’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현 4~9개의 디렉토리로 모든 자원의 특징을 포괄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일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모든 대상자원을 포괄할 수 있는 분류가 준비되었을 때, ‘기타’를 제외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대분류와 비교할 때 특이할 만한 사항은, ‘테마관광’의 개념이 대분류로 표출되지 않고 ‘레저/스포츠’와 ‘보양/휴양관광’ 대분류의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테마관광’으로 통칭하지 않고, 그 개념을 ‘ 드라이브’, ‘테마파크’, ‘강원도 체험’ 등으로 상세히 나누어 각 특성에 맞는 대분류 범주 안에 포함시켜 구성하였다.

##### ②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즐길거리’ 디렉토리는 4개의 대분류로 나뉘어졌다. ‘자연자원’, ‘레저/스포츠 활동’, ‘역사/문화자원’, ‘보양/휴양관광’으로, 관광 객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서로의 명확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2단계 디렉토리는 관광자원의 특징 및 레저 활동에 따라 4~9개의 하위 디렉토리로 나뉘었다.

하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디렉토리 수가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일부 존재하여, 아래 <라>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에서 언급하였다.

#### 다) 콘텐츠 수의 균형성

‘자연관광자원 > 주요산행지’(91개)는 다른 디렉토리과 비교하여 콘텐츠 수가 많은 편이다. 강원도가 산악지대로, 91개가 모두 산과 봉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모든 콘텐츠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렉토리로서 재분류하기는 어렵고, 산의 높이(해발 미터 등)에 따른 검색옵션을 설정한다면 효율적인 검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역사/문화자원 > 국보’(479개)도 디렉토리 수가 많으나, 아래 <라> 콘텐츠의 일치성>에서 언급하였듯이 콘텐츠의 내용에 맞게 디렉토리를 재분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라)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역사/문화자원 > 국보’는 콘텐츠 내용 일치와 용어의 적절한 사용 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국보 범주 안에 479개의 관광자원이 30페이지에 걸쳐 열거되어 있다. 국보는 나라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문화재의 의미인데, 이 단어를 임의로 너무 포괄적으로 사용한 문제가 있다. 콘텐츠 내용은 국보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며, 사찰과 향교, 자연경관, 무형의 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보’의 의미를 살리려면 정확한 내용을 포함한 디렉토리를 따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 디렉토리를 만들어 이 안에 국보, 보물,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분류로써 자원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나머지 대다수의 내용물은 동일한 수준의 디렉토리인 ‘전통가옥’, ‘사찰/불상/탑/동종’ 중 알맞은 곳의 아래로 재구성해야 한다.

‘레저/스포츠 > 테마파크’(12개)는 눈썰매장(5건), 워터파크(4건), 카지노(1건), 테



마공원(1건)과 촬영세트장(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단위로 강원도를 찾을 경우 어른은 스키장, 아이는 눈썰매장을 찾는 경우가 많다. 테마파크라는 이름에서 눈썰매장이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유추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테마파크는 각종 오락시설과 놀이기구, 주제에 맞는 건축과 조경 등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놀이공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눈썰매장을 굳이 스키장과 다른 범주 안에 넣고자 한다면, 테마파크라는 용어대신 ‘눈썰매/워터파크/기타 테마시설’이라 칭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겠다. 한편, 동일한 자원 ‘눈’을 이용하는 맥락에서 도리어 눈썰매장은 ‘스키/골프/리조트’에 하위분류로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테마파크’ 디렉토리 안에 워터파크와 카지노 등이 남는다. 강원도 내 워터파크 시설과 이용자들이 점차 늘면서 워터파크를 독립된 디렉토리(레저/스포츠 > 워터파크)로 등록한다면 이용자들의 빠른 검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강원도의 카지노는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다. 따라서 ‘워터파크/카지노/기타 테마시설’로 분류하여 강조하는 것도 검색의 효율을 높일 것이다.

‘레저/스포츠 > 스키/골프/리조트’는 눈썰매를 포함하여 ‘스키/눈썰매/골프’로 디렉토리 명을 조정하고, 하위에 스키·골프와 눈썰매장 검색 옵션을 설정한다. 스키와 골프는 동일한 리조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이 디렉토리에 속해있는 해양레저에 관한 1개 리조트는, 리조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속성 상 ‘레저/스포츠 > 수상/육상/항공레포츠’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리조트는 하나의 독립된 디렉토리로 ‘레저/스포츠’ 아래 생성하여, 스키/눈썰매/골프나 워터파크/카지노/기타 테마시설 등에 포함된 모든 리조트 시설들을 한 번에 모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디렉토리에 분산되어 있던 리조트들을 종합적으로 검색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상위 디렉토리 명이 하위 콘텐츠 내용을 더 잘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일부 디렉토리 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연관광자원 > 자연생태’(12개)는 자연동굴(8개)이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목장,

평야, 철새도래지(4개)이다. 같은 선상의 분류에서 해변, 해안, 하천, 계곡, 호스/댐/섬 등 자세하게 디렉토리 명을 부여했으므로 이 부분도 자연생태라는 용어 대신 '자연동굴/목장/철새도래지'와 같이 보다 명확하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이용자의 검색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단, 목장은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자연생태'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레저/스포츠 > 드라이브/유람선'에는 도로와 기차역이 포함되어 있다. 추후 기차역이 더 추가된다면, '도로/역/유람선'으로 칭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역사/문화자원 > 전통가옥'(697개)은 향교 및 서원(17건), 전통가옥 및 마을(17건)로 이루어졌다. '향교·서원/전통가옥'으로 디렉토리 명을 조정하는 것이 하위 콘텐츠 내용을 더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 > 박물관/기념관/미술관'은 박물관(28건), 전시관 및 체험관(29건), 미술관(1건), 인물 기념관(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및 체험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디렉토리 명에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전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기념관은 '인물' 디렉토리로 옮겨, 인물에 대한 소개와 기념관을 같이 링크시킴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전시·체험관'으로 디렉토리 명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인물'은 인물에 대한 기념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인물·인물기념관'으로 디렉토리 명을 조정할 수 있다.

'보양/휴양관광 > 관광농원/허브농원'은 전문식물원(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광 및 허브농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후 식물원의 추가를 대비하여 '농원/식물원'으로 디렉토리 명을 조정할 수 있다.

## 마)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 ① 디렉토리의 배열성

대분류는 관광자원 및 객체의 특성에 따라 ‘자연관광’, ‘레저/스포츠’, ‘역사/문화’, ‘보양/휴양’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현재의 배열 순서는, 정보검색자가 강원도 관광지 중 많이 찾는 곳을 위주로 한 것으로 유추된다. 다른 관광지와 비교하여 강원도는 산 등의 자연관광자원과, 스키·골프 등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기 때문이다.

## ②컨텐츠의 배열성

모든 디렉토리의 최종 컨텐츠 페이지는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으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천점수순]이 기본페이지로 설정되어 있어, 컨텐츠의 배열성이 효과적이라 하기 어렵다. 사이트 이용자의 추천별점에 따라 관광지 정보가 순위대로 나열되는데, 대부분의 추천별점이 아예 없거나, 1~2개로만 이루어져 있어 배열에 의미가 없고 혼란스럽다. 보유 컨텐츠 수가 많은 ‘국보’도 검색된 첫 페이지 16개 정도만 별점에 의미가 있고, 나머지 컨텐츠들은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이름순] 탭을 기본페이지로 설정하여 배열성을 먼저 확보하고, [추천점수순]과 [신규등록순] 탭은 상위 16위(1페이지) 정도로 제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또는 [이름순] 탭의 관광지 정보에 신규등록일자나 수정일자를 보여주고, 이를 등록일자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옵션기능을 추가한다면 따로 [신규등록순] 탭을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열성이 좋아지고, [추천점수순]과 [신규등록순]의 의미 없이 중복되는 정보 및 페이지 수를 줄일 수 있다.

## 바) 용어의 적절성

4개 대분류 명칭을 ‘관광’ 하나의 주제로 포괄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용어로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자연관광자원’ → ‘자연관광’
- ‘레저/스포츠’ → ‘레저/스포츠활동’ 또는 ‘레저/스포츠관광’
- ‘역사/문화자원’ → ‘역사/문화관광’
- ‘보양/휴양관광’

‘레저/스포츠 > 수렵장/사격장/낚시’의 디렉토리 명도 주제를 ‘장소’나 ‘레저’ 중 하나로 정하여, ‘낚시터/사격·수렵장’ 또는 ‘낚시/사격·수렵’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렵장/사격장/낚시’(41건)는 낚시터(39건), 사격장(1건), 수렵장(1건)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사격장은 시설물명에 ‘사격장’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 ‘OO랜드’처럼 고유명사 그대로 등록되어 있어, 이름만 보아서는 어떤 관광시설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분류 안에 수렵장과 사격장의 검색 옵션을 설정하여 시설의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문화자원 > 사찰/불상/탑/동종’은 같은 수준의 ‘천주(기독교) 성지’ 디렉토리 명과 동일한 맥락으로 ‘불교문화/사찰’로 하는 것이 추후 더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 > 통일안보전적자원’은 ‘통일안보·전적 자원’으로 단어 사이에 점(·)을 두어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보양/휴양관광 > 강원도체험’은 마을체험(21건), 솥가마·찜질방(3건)으로 구성되었다. ‘강원도’의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찜살이·마을체험’ 등으로 명하면 추후 보양·휴양 개념의 체험활동이 포함되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 유지관리성·최신성

모든 디렉토리의 최종 콘텐츠 페이지에는 [신규등록순] 탭이 있어, 가장 최근에

정보가 수정되거나 등록된 콘텐츠 순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자료관리자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콘텐츠의 꾸준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수정된 정보가 2010년 4월에 한 개가 전부였고, 대부분의 정보 수정일이 2006년 11월 10일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 2006년 사이트 리뉴얼이나 구축과 함께 전체적으로 같은 날짜로 수정일자가 변경된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최종 콘텐츠 페이지의 간단 목록에서 보면, 등록일과 수정일이 서로 바뀌어 명시되었다. 예를 들어, ‘강릉 농약’의 세부 정보페이지에서 본 최초 등록일은 2006년 11월 10일이고 최종수정일은 2009년 11월 10일이다. 하지만, 간단 목록에서 본 화면은 [최근 수정일: 2010년 11월 10일]이라 명시되었다.

#### 아) 중복성

모든 디렉토리 최종 콘텐츠 페이지의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을 <마> ②콘텐츠의 배열성>에서 언급하였듯이, 필요성이 크지 않은 탭은 삭제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의미 없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나열되는 정보의 중복과 페이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자) 검색의 효율성

##### ①검색 옵션

모든 디렉토리의 최종 콘텐츠가 나열되는 페이지 하단에 18개 지역(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등)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지역을 선택하고 반드시 [제목]을 선택해야 검색이 되는 형식<sup>48)</sup>이라, 특정 지역의 모든 자원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없다. 이러한 검색 형식은 검색 옵션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48)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하면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세요’라는 메시지 창이 뜬다.

## ②컨텐츠 수의 명시

보유하고 있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 총 컨텐츠 수 또는, 2단계 디렉토리 하위 각 디렉토리의 컨텐츠 수가 따로 명시되지 않다. 컨텐츠 수는 명시되지 않은 채, 한 페이지 당 16개의 컨텐츠 이미지가 배열된 형식이라, 한 눈에 몇 개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각 디렉토리의 최종 컨텐츠가 나열되는 페이지 상단에, 컨텐츠 수, 해당 페이지 및 전체 페이지 수를 명시하여 정보검색자에게 검색 환경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3) 디렉토리 개선 안

사이버강원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4-9> 사이버강원관광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디렉토리 명: 즐길거리			
1단계	2단계	3단계	검색 옵션
1.자연관광	공원, 해변, 해안명소, 주요 산행지 등	*주요 산행지: 산, 봉, 해발 높이 등	[이름순], [추천 Top10] 탭 구분 [지역검색] 구분 [자원 특성 분류] 구분
2.레저/스포츠 활동	낚시터/사격·수렵장 등		[이름순], [추천 Top10] 탭 구분 [지역검색] 구분 [자원 특성 분류] 구분
3.역사/문화관광	국보, 전통가옥, 시찰/불상/탑/동종 불교문화/사찰 등	‘국보’, ‘불교문화/사찰’ 등 일부 디렉토리 1단계 생성	[이름순], [추천 Top10] 탭 구분 [지역검색] 구분 [자원 특성 분류] 구분
4.보양/휴양관광	참살이·마을체험 등		[이름순], [추천 Top10] 탭 구분 [지역검색] 구분 [자원 특성 분류] 구분

출처: 연구자 작성

## 2.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분석

### 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표 4-10> 한국관광공사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디렉토리 명: 음식점	
구분	1단계
유형별: 949)	<p>[지역<sup>50)</sup>], [지역별<sup>51)</sup>] 검색 구분: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5,795    ▪ 한식: 4,591    ▪ 양식: 356    ▪ 일식: 208    ▪ 중식: 260</li> <li>▪ 아시아식: 134    ▪ 이색음식점: 10    ▪ 채식전문점: 9    ▪ 바/카페/클럽: 141</li> <li>▪ 패밀리레스토랑: 84    (총 5,795개)</li> </ul>
지역별: 17	<p>[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1,398    ▪ 인천: 438    ▪ 부산: 336    ▪ 대구: 199    ▪ 대전: 40    ▪ 울산: 74</li> <li>▪ 경기도: 1,063    ▪ 강원도: 515    ▪ 충청남도: 242    ▪ 충청북도: 158</li> <li>▪ 경상북도: 250    ▪ 경상남도: 301    ▪ 전라북도: 210    ▪ 전라남도: 304건</li> <li>▪ 광주: 130    ▪ 제주도: 126    (총 5,784개)</li> </ul>
추천 맛집 검색: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113    ▪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15</li> <li>▪ 인천시 추천맛집: 248    ▪ 고속도로 주변 맛집: 37    ▪ 강원도 으뜸 음식점: 73</li> <li>▪ 대구시 외국인 대상 맛집: 37    ▪ 경기도 외국인 대상 맛집: 90</li> <li>▪ 충청남도 외국인 대상 맛집: 22    (총 735개)</li> </ul>

출처: 한국관광공사(korean.visitkorea.or.kr)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토대로 작성 (2010년 10월 검색)

#### 1) 디렉토리 개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디렉토리인 ‘무엇을

49) 디렉토리 수

50)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7개 지역

51) 17개 지역의 하위 시, 군, 구 등



먹을까’ 중 ‘음식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초기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유형별, 지역별, 추천 맛집 검색)으로 나뉘는데, 이를 완전한 디렉토리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터페이스 구성과 디렉토리의 혼합된 성격인데, 이 연구에서는 일종의 디렉토리 개념으로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유형별 음식점’은 9개 디렉토리(한식, 양식, 일식, 중식, 아시아식, 이색음식점, 채식전문점, 바/카페/클럽, 패밀리레스토랑)로 구성되었다. 크게 음식 종류 및 음식점 형태로 나뉘었고, 총 콘텐츠 수는 5,800여 개에 이른다.

‘지역별 음식점’은 5,800여 개의 음식점을 전국 17개 지역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였다. ‘추천 맛집 검색’은 8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절반이 외국관광객 대상 음식점에 대한 정보이다.

## 2) 분류체계 분석

### 가)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유형별 음식점’ 디렉토리의 계층은 1단계이다. 1단계는 모두 8개 디렉토리로 구성되었는데, 최종 콘텐츠 페이지에는 17개 지역 및 그 하위 지역(시, 군, 구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5,800여개에 이르는 방대한 콘텐츠를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의 세부 항목(육류, 해산물, 산채백반, 피자·파스타 등)에 대한 검색 기능이 없어, 한식과 같이 4,500개에 이르는 방대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색을 할 수 없다. 한식(4,591개), 양식(356개), 일식(208)과 같이 콘텐츠 수가 많고, 대표적인 세부 메뉴가 있는 경우에는 디렉토리를 1단계 추가생성하거나 검색 옵션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도모해야 한다.

## 나)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 ① 디렉토리의 포괄성

‘유형별 음식점’은 음식의 종류와 음식점 형태별로 9개의 디렉토리(한식, 양식, 일식, 중식, 아시아식, 이색음식점, 채식전문점, 바/카페/클럽, 패밀리레스토랑)로 나뉘었다. 디렉토리가 1단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디렉토리의 폭이 넓어질 수 밖에 없다. 뷔페나 퓨전 음식점 등의 디렉토리를 생성하여 검색의 편의를 돕고, 다양한 정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타’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아 적절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음식점들을 다룰 공간이 없다. ‘기타’를 반드시 두어 이러한 특성의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추천 맛집 검색’의 8개 디렉토리는 크게 추천 음식점과 외국인 대상 음식점 2개 주제로 압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대분류를 2개로 정리하고, 하위에 디렉토리 또는 검색 옵션을 두면 논리적이고 깔끔한 분류가 될 것이다.

- ‘추천 맛집’ > ‘서울 한국음식점’, ‘인천 맛집’, ‘강원도 맛집’, ‘고속도로 주변 맛집’
- ‘외래·외국인 대상 맛집’ >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경기도 맛집’, ‘대구 맛집’, ‘충청도 맛집’

## 다) 콘텐츠 수의 균형성

특정 디렉토리의 콘텐츠 수가 타 디렉토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으면 디렉토리를 재조정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유형별 음식점’의 ‘한식’ 디렉토리는 총 콘텐츠 수가 4,600여개로, 양식(356개), 중식(260개) 등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다. 이럴 경우 한식에 속해있는 콘텐츠 중, 독립할 수 있는 것들

- 뷔페, 해산물 전문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 을 따로 빼어 신규 디렉토리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지금처럼 검색 옵션으로 세부 메뉴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이 디렉토리 수를 조정하여 디렉토리 간 콘텐츠 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라)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유형별 음식점’, ‘지역별 음식점’, ‘추천 맛집 검색’ 모두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마)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 ①디렉토리의 배열성

‘유형별 음식점’의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아시아식 등의 배열은 대체적으로 보유 콘텐츠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었다. ‘지역별 음식점’의 지역 순서도 특별시, 직할시, 광역시, 도의 순서로 배열되었다. 다만, ‘추천 맛집 검색’의 디렉토리 배열을 위 <②디렉토리 폭의 적절성>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분류를 크게 ‘추천 음식점’과 ‘외국인 대상 음식점’ 2개 주제로 압축하여 배열하면 정보검색자의 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②콘텐츠의 배열성

‘유형별 음식점’, ‘지역별 음식점’, ‘추천 테마 맛집’ 콘텐츠의 기본 배열이 자모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단, ‘추천 테마 맛집’의 ‘외래관광객 전문식당’만이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기본 설정 배열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 정보검색자는 콘텐츠 검색 결과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배열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 기본 배열 설정을 자모순으로 하여 현재의 순서 없는 나열을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게시판 형태의 ‘여행정보 검색<sup>52)</sup>’ 페이지도 콘텐츠 배열에 기준이 없다. 아래 그림과 같이 순서 없이 음식점이 배열되는데, 자모순으로 기본 배열을 맞추고 [분류]를 ‘주력 메뉴’(한정식, 산채정식, 피자·파스타 등)로 설정하여 검색 옵션처럼 정렬 기능을 부여한다면 지금보다 배열성이 좋아질 것이다. 현재의 [분류] 내용(음식>음식점>한식)은 콘텐츠가 소속된 디렉토리의 경로일 뿐, 공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 곳에 ‘주력 메뉴’에 대한 정렬 기능을 부여하면, 세부 분류와 배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searching travel information. On the left is a sidebar with a tree view of categories: Home, Travel Information Search, Sightseeing, Accommodation, Food, and Travel. Under 'Food', there are sub-categories like Korean Food, Japanese Food, Chinese Food, Asian Food, etc. The main area has search filters for 'Region' and 'Region Name',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filters, it shows a total of 4564 results. A table lists the results with columns for 'No.', 'Region', 'Title', and 'Category'. The categories are listed as 'Food > Restaurant > Korean Food'.

번호	지역	제목	분류
4564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천지한우프라자	음식&gt;음식점&gt;한식
4563	충청북도 제천시	고원갈비	음식&gt;음식점&gt;한식
4562	경기도 남양주시	머치골원조매운탕	음식&gt;음식점&gt;한식
4561	전라북도 남원시	뽕사골 지리산식당	음식&gt;음식점&gt;한식
4560	강원도 영월군	하안집 풍천장어	음식&gt;음식점&gt;한식
4559	전라남도 순천시	장원식당	음식&gt;음식점&gt;한식
4558	전라남도 담양군	떡갈비본가 (담양)	음식&gt;음식점&gt;한식
4557	서울 종로구	길북정	음식&gt;음식점&gt;한식
4556	경상남도 산청군	삼신봉원생식당	음식&gt;음식점&gt;한식
4555	부산 강서구	배꼽빠진고기	음식&gt;음식점&gt;한식

한국관광공사(korean.visitkorea.or.kr) (2010년 11월)

<그림 4-2> 한국관광공사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검색 화면

#### 바) 용어의 적절성

‘유형별 음식점’의 ‘이색음식점’ 디렉토리에는 모두 10개의 콘텐츠가 있다. 디렉토

52) 여행정보 검색: [http://korean.visitkorea.or.kr/kor/ut/smart/smart\\_list.jsp?cat1=F](http://korean.visitkorea.or.kr/kor/ut/smart/smart_list.jsp?cat1=F)

리 명은 ‘이색음식점’이지만, 검색자는 음식점 이름과 사진, 메뉴 정보를 가지고 이 음식점이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를 유추해야 한다. 추후 콘텐츠가 많아지고 이색 음식점에 대한 공통된 주제들이 생겨난다면, 검색옵션으로 주제를 설정하여 어떤 점이 이색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다.

‘추천 맛집 검색’의 ‘외래관광객 전문식당’의 외래관광객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외래’의 의미가 동일 위치의 디렉토리인 ‘대구시 외국인 대상 맛집’, ‘경기도 외국인 대상 맛집’, ‘충청남도 외국인 대상 맛집’과 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굳이 ‘외래’를 붙이지 않고 ‘관광객 대상 전문식당’이라 하면 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으로 하여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사) 유지관리성 · 최신성

‘유형별 음식점’의 9개 디렉토리 및 ‘추천 맛집 검색’의 8개 디렉토리 모두 총 콘텐츠 하단에 등록일자 및 최종 수정일자, 관리처가 명시되어 있다. 2010년 10월 현재 까지 꾸준히 정보가 수정되고 있다.

#### 아) 중복성

‘유형별 음식점’, ‘지역별 음식점’의 최종 콘텐츠 페이지는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이 있다. 정보의 등록일 및 수정일에 따라, 이용자들의 추천 평이 높은 순서에 따라, 그리고 게시물 조회수에 따라 정렬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는 상위 10위~20위 정도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수백 개의 콘텐츠를 그저 부여된 순위대로 늘어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 이것이 탭 수대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

보의 중복이 심하여 페이지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용자들에게 순위를 알려주는 원래의 의미를 살리고, 지나친 중복성과 페이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최신순], [추천순]은 상위 20위, 1~2페이지 정도까지만 설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초기 설정(default)으로 배열된 목록과 [추천순] 탭이 이미 존재하므로 [조회순] 탭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더구나 게시판 형태의 ‘여행정보 검색<sup>53)</sup>’으로 이동하여 [조회순] 탭을 볼 때, 콘텐츠는 정렬되나 조회 수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순위만 알 뿐, 실제 몇 번의 조회가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조회순]은 콘텐츠의 중복성이 강하여 삭제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 자) 검색의 효율성

##### ① 검색 옵션

‘유형별 음식점’, ‘지역별 음식점’, ‘추천 맛집 검색’은 1단계 디렉토리 아래에 최종 콘텐츠가 나열된 형식이다. 이 중 ‘유형별 음식점’은 최종 콘텐츠가 나열되는 페이지 상단에 ‘지역’(전국 17개), ‘지역별’(17개 지역의 하위 지역: 시, 군, 구 등)의 검색옵션이 있어, 디렉토리가 없어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하지만 음식의 종류에 대한 검색 기능이 없어 콘텐츠 수가 많은 한식(4,591개)의 경우, 서울 강남구로 검색하면 27페이지에 걸쳐 270여개의 음식점 정보가 나열된다. 따라서 콘텐츠 수가 많고, 즐겨찾는 대표적인 메뉴가 있는 한식, 양식, 일식 등은 ‘주력 메뉴’를 디렉토리를 1단계 추가한다거나 검색옵션을 추가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아래는 그 예이다.

- ‘한식’ > ‘일반한식’, ‘한정식’, ‘채식’, ‘육류’, ‘회·해산물’, ‘뷔페’ 등
- ‘양식’ > ‘피자·파스타’, ‘프랑스식’, ‘이탈리아식’, ‘햄버거’, ‘뷔페’ 등
- ‘일식’ > ‘라면·우동’, ‘회정식’, ‘복어’ 등

53) 여행정보 검색: [http://korean.visitkorea.or.kr/kor/ut/smart/smart\\_list.jsp?cat1=F](http://korean.visitkorea.or.kr/kor/ut/smart/smart_list.jsp?cat1=F)

‘지역별 음식점’은 시각적인 방법으로 지도의 시, 도, 구를 클릭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형식이다. 이미지와 텍스트로 음식점 정보가 나열되는데, 검색 결과로 유형(한식), 지역(서울 종로구), 대표메뉴(양념갈비) 등 주요 정보가 잘 나타난다. 다만, 한식과 같이 콘텐츠 수가 많은 경우, 수 십 페이지에 걸쳐 정보가 나열되어 원하는 메뉴를 찾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한다. 검색옵션으로 주력 메뉴를 설정한다면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것은 ‘추천 맛집 검색’에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 ② 콘텐츠 수의 명시

‘유형별 음식점’의 최종 콘텐츠 페이지는 게시판 형태로써, 게시물의 번호가 내림차순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역별 음식점’, ‘추천 맛집 검색’은 게시판 형태가 아닌 이미지와 텍스트의 배열이지만, 최종 콘텐츠 페이지 상단에 보유한 콘텐츠 수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콘텐츠 첫 페이지만 보아도, 이 디렉토리 내에 몇 개의 음식점 정보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3) 디렉토리 개선 안

한국관광공사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4-11> 한국관광공사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디렉토리 명: 맛집			
구 분	1단계	2단계	컨텐츠
유형별 음식점	1.한식 2.양식 3. 일식 등 9개 유형	[지역별] 검색 구분 [최신10위], [추천10위] 탭 구분 [주력 메뉴: 한정식, 산채정식 등] 디렉토리 또는 검색옵션	
지역별 음식점	1.서울 2. 인천 3. 부산 등 16개 지역	[최신10위], [추천10위] 탭 구분 [유형별: 한식, 양식 등] 검색 구분	
추천 맛집 검색	1.추천 맛집 2.외래·외국인 관광객 대상 맛집	[유형별: 한식, 양식 등] 검색 구분  1.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인천 맛집, 강원도 맛집, 고속도로 주변 맛집 2. 외래관광객 전문식당, 경기도 맛집, 대구 맛집, 충청도 맛집	

출처: 연구자 작성



## 나. 서울특별시문화관광 'iTourSeoul'

<표 4-12>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디렉토리 명: 맛집		
1단계: 654)	컨텐츠: 1,118 <sup>55)</sup>	형식
1.서울 맛집 찾기: 1,118 <sup>56)</sup>	<p>[선택] 구분: (20개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탕/국/찌개): 30    ▪ 한식(일반한식): 122    ▪ 한식(육류): 97</li> <li>▪ 한식(어패류): 62    ▪ 한식(민물어패류): 2    ▪ 한식(면류): 40</li> <li>▪ 한식(가금류): 10    ▪ 프랑스식: 26    ▪ 중식: 71    ▪ 일식: 122</li> <li>▪ 이탈리아식: 103    ▪ 유럽식: 21    ▪ 아프리카식: 2    ▪ 아시아식: 31</li> <li>▪ 바/펍: 48    ▪ 미국식: 9    ▪ 디저트/차: 129    ▪ 독일식: 2</li> <li>▪ 남미식: 8    ▪ 기타: 31    (총 1,118개)</li> </ul>	이미지/텍스트 배열
2.에센의 맛있는 이야기: 10	음식잡지 기자의 취재기 (총 10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3.한국 대표 음식	▪ 요리법 소개 (총 42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4.지역별 맛집 찾기: 1,118	<p>[지역선택] 구분: (21개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보기: 1,118    ▪ 광화문: 21    ▪ 남대문시장: 6    ▪ 남산일대: 23</li> <li>▪ 대학로: 18    ▪ 동대문시장: 6    ▪ 명동: 34    ▪ 무교동: 1</li> <li>▪ 북촌&amp;삼청동: 39    ▪ 삼성동: 97    ▪ 시청: 40    ▪ 신사동&amp;압구정&amp;청담: 187</li> <li>▪ 신촌&amp;이대: 23    ▪ 강남역: 193    ▪ 여의도: 5    ▪ 이태원&amp;용산: 45</li> <li>▪ 인사동: 17    ▪ 잠실: 51    ▪ 정동&amp;덕수궁: 2    ▪ 종로&amp;청계천: 25</li> <li>▪ 홍대: 52    ▪ 기타: 45    (총 1,118개)</li> </ul>	이미지/텍스트 배열
5.테마별 맛집 찾기: 1,100	<p>[테마별] 구분: (36개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영업하는 곳: 28    ▪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 2</li> <li>▪ 주목할 만한 새 레스토랑: 1    ▪ fine dining을 할 수 있는 곳: 6</li> <li>▪ <u>사케 리스트가 좋은 곳</u><sup>57)</sup>: 9    ▪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 183</li> <li>▪ 프리포즈 하기에 좋은 곳: 12    ▪ 호텔 레스토랑: 35</li> <li>▪ 갤러리가 있는 곳: 4    ▪ 전망이 좋은 곳: 28</li> <li>▪ 결혼기념일에 가면 좋은 곳: 24    ▪ 공연이 있는 곳: 9</li> <li>▪ 낮에만 영업을 하는 곳: 3    ▪ 와인리스트가 좋은 곳: 21</li> <li>▪ <u>낮에만 영업하는 곳</u>: 4    ▪ 정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곳: 4</li> <li>▪ 외국인 접대에 좋은 곳: 24    ▪ 점심 뷔페를 하는 곳: 6</li> <li>▪ 비즈니스 다이닝에 좋은 곳: 87    ▪ 역사가 오래된 곳: 53</li> <li>▪ 테라스가 있는 곳: 84    ▪ 저녁에만 영업을 하는 곳: 48</li> <li>▪ <u>저녁에만 영업을 하는 곳</u>: 35    ▪ 약선요리를 하는 곳: 3</li> </ul>	이미지/텍스트 배열

디렉토리 명: 맛집		
1단계: 6 <sup>54)</sup>	컨텐츠: 1,118 <sup>55)</sup>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있는 곳: 4</li> <li>▪ 사케리스트가 좋은 곳: 1</li> <li>▪ 연인과 같이 가면 좋은 곳: 113</li> <li>▪ 주말 브런치를 하는 곳: 33</li> <li>▪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있는 곳: 3</li> <li>▪ 주말 뷔페를 하는 곳: 6</li> <li>▪ 가족과 외식하기에 좋은 곳: 33</li> <li>▪ 인테리어가 좋은 곳: 48</li> <li>▪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곳: 96</li> <li>▪ 상견례에 좋은 곳: 28</li> <li>▪ 가족과 외식하기에 좋은 곳: 14</li> <li>▪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곳: 8</li> </ul> (총 1,100개)	
6.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2	서울시 선정 한국 전통 맛집 정보 (총 122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출처: 서울특별시문화관광(www.visitseoul.net)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토대로 작성 (2010년 9월 검색 자료)

## 1) 디렉토리 개요

서울특별시문화관광 ‘iTourSeoul’의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디렉토리인 ‘맛집’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6개 대분류(서울 맛집 찾기, 에센의 맛있는 이야기, 한국 대표 음식, 지역별 맛집 찾기, 테마별 맛집 찾기,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로 구성되었고, 크게 종류 및 국적별/지역별/테마별 음식점, 한국음식 정보 및 한국음식점, 음식관련 취재기 등 3개 주제로 나뉘었다. 총 컨텐츠 수는 1,100여 개로, 이것을 각 주제(종류/지역/테마)별로 3개 디렉토리(서울 맛집 찾기, 지역별 맛집 찾기, 테마별 맛집 찾기)로 구분한 형식이다.

디렉토리 중 ‘에센의 맛있는 이야기’는 음식잡지 ‘에센’의 취재기사를 모은 것이다. ‘한국 대표 음식’ 아래 ‘요리법 소개’는 한국음식 요리 정보를 제공하며, ‘자랑스

54) 디렉토리 수

55) 총 컨텐츠 수(‘디렉토리 1’만 산정)

56) 하위 컨텐츠 수

57) 동일한 카테고리 명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러운 한국음식점’은 서울시에서 선정한 전통 음식점을 모아놓은 곳이다.

## 2) 분류체계 분석

### 가)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서울 맛집 찾기’, ‘지역별 맛집 찾기’, ‘테마별 맛집 찾기’ 3개 디렉토리의 계층은 모두 1단계로 이루어졌다. 디렉토리에 따라 검색옵션이 있어 1,100여개에 이르는 방대한 콘텐츠를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맛집 찾기’는 음식의 종류 및 음식점 형태에 따라 20개의 검색옵션이 있고, ‘지역별 맛집 찾기’는 21개 지역별 검색옵션이 있다. ‘테마별 맛집 찾기’는 36개의 주제별로 적합한 음식점을 분류하여 검색 가능하게 했다. 단, ‘서울 맛집 찾기’는 디렉토리를 1단계 추가로 생성하는 반면, 검색 옵션의 수를 줄여 합리적인 분류와 초기 화면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열된 20개의 검색 옵션을 주제를 명확하게 하여 재조정해야 한다. ‘서울 맛집 찾기’ 아래에 ‘음식점’, ‘바/펍’, ‘카페/제과’ 3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음식점’ 아래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아시아], [중남미식], [퓨전식], [기타] 등의 검색 옵션을 넣으면 논리적인 전개가 될 것이다. 아래는 재조정한 디렉토리 및 검색 옵션의 예이다.

- ‘음식점’ > ‘한식’ > [탕/국/찌개], [일반한식], [육류 · 가금류], [어패류], [면류], [기타]

- ‘음식점’ > ‘양식’ > [프랑스식], [이탈리아식(피자 · 파스타, 정통이탈리아식)], [유럽식], [미국식], [독일식], [기타]

- ‘음식점’ > ‘일식’, ‘중식’, ‘아시아식/중남미식’, ‘퓨전식’, ‘기타’

- ‘카페/제과’ > [샌드위치 · 제과], [카페], [기타]

- ‘bar/pub’ > [와인], [맥주], [양주], [기타]

‘테마별 맛집 찾기’의 36개 주제는 비슷한 군으로 묶을 수 있다. 가령, ‘24시간 영업하는 곳’과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을 ‘영업시간이 긴 곳’으로 묶을 수 있고, ‘점심 뷔페를 하는 곳’과 ‘주말 뷔페를 하는 곳’을 ‘뷔페’로 묶을 수 있다. 이처럼 비슷한 군으로 묶어 디렉토리를 1단계 생성하고, 그 아래 세부적인 검색옵션을 두면 검색자의 인지를 집중시키고 단순화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래는 일부 예이다.

- 영업시간이 긴 곳: 24시간 영업하는 곳(28),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183)
- 와인/일본주가 다양한 곳: 사케 리스트가 좋은 곳(9), 사케리스트가 좋은 곳(1), 와인리스트가 좋은 곳(21)
- 품격 있는 정찬 레스토랑: fine dining을 할 수 있는 곳(6), 비즈니스 다이닝에 좋은 곳(87)
- 뷔페: 점심 뷔페를 하는 곳(6), 주말 뷔페를 하는 곳(6)
- 아침식사·브런치: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곳(96), 주말 브런치를 하는 곳(33)

#### 나)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 ① 디렉토리의 포괄성

‘서울 맛집 찾기’와 ‘지역별 맛집 찾기’ 아래에 ‘기타’ 디렉토리가 존재하여, 적절한 디렉토리로 포함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음식점 및 20개 이외 지역의 음식점들을 포괄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맛집 찾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몇몇 검색 옵션의 범주가 빠져있어 ‘기타’에 포함된 콘텐츠 수가 31개로 많은 편이고, 그 내용도 비슷한 군으로 묶어 검색 옵션으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기타’에는 퓨전식, 스테이크 전문점, 해산물 뷔페, 브런치 및 샌드위치 카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음식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타’로 포괄하는 것은 검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퓨전식’, ‘스테이크·해산물’, ‘브런치·샌드위치’, ‘뷔페’ 등의 검색 옵션을 추가로 두고 ‘기타’는 나머지 특성들의 소수의 음식점을 두어야 한다.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이, 피자나 파스타 등 프랜차이즈 및 패스트푸드 식당이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의도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 유추하지만, 수요와 인지도, 매장 수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언급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 ②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6개의 대분류는 크게 3개의 주제로 묶을 수 있다. 주제와 상관없이 분산된 6개의 대분류 디렉토리를 1차적으로 비슷한 군으로 묶어 단순화함으로써 디렉토리의 폭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서울 맛집 찾기’, ‘한국음식’, ‘맛있는 이야기’ 3개 대분류로 나눈 후, 하위 디렉토리로 연속하여 분류한다.

- ‘서울 맛집 찾기’ > ‘음식 종류별’, ‘지역별’, ‘테마별’ > (검색옵션) > 콘텐츠
- ‘한국음식’ > ‘요리법’,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 (검색옵션) > 콘텐츠
- ‘맛있는 이야기’ > 콘텐츠

## 다) 콘텐츠 수의 균형성

특정 디렉토리의 콘텐츠 수가 동위의 다른 디렉토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면 디렉토리를 재조정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 맛집 찾기’의 검색 옵션 중 ‘한식(민물어패류)’의 콘텐츠 수는 2개로, 독립된 범주로 구성하기에는 콘텐츠 수가 너무 적다. 2개 모두 추어탕 전문점으로, 이것은 ‘한식(탕/국/찌개)’에 포함되는 편이 디렉토리 명과 콘텐츠의 일치성 면에서도 적합할 것이다. 그 외, 아프리카식(2개), 독일식(2개) 음식점도 콘텐츠 수가 충분해질 때까지 ‘기타’나 ‘유럽식’ 등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식에 관한 세부 사항은 7개나 되는데

비하여, 양식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음식의 종류(피자·파스타, 육류, 브런치·샌드위치 등)에 따른 분류가 아닌 국적(이탈리아, 프랑스, 독일)별 분류를 하였다. 이것이 디렉토리의 논리적 흐름을 깨트리고, 콘텐츠 수의 균형에도 문제를 가져온 것으로 유추된다.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음식점들을 주제별로 디렉토리 화하거나 검색 옵션(퓨전, 스테이크 및 해산물, 브런치 및 샌드위치 등)을 설정하여, 콘텐츠를 재조정함으로써 균형성을 맞출 수 있다.

‘한식(일반한식)’(122개), ‘일식’(122개), ‘이탈리아식’(103개)과 같이 콘텐츠 수가 25페이지에 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세부 검색 옵션을 추가로 두어 콘텐츠를 분산 시킴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한식(일반한식) > [한정식], [산채식], [분식] 등
- 일식 > [회정식], [초밥 전문점], [라면·우동] 등
- 이탈리아식 > [피자·파스타], [정통이탈리아식] 등

그 외, 한식의 ‘민물어패류’(2개)는 ‘어패류’(62개)에 포함시키고, ‘가금류’(10개)는 ‘육류’(97개)에 포함시켜 검색옵션으로 세부사항을 두는 것이 콘텐츠의 균형성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 대표 음식’은 하위에 단 1개의 디렉토리(요리법 소개)가 있다. 요리법 외에 추후 다른 디렉토리를 생성할 의도가 아니라면, 이 두 개의 연속된 디렉토리(한국 대표 음식, 요리법 소개)는 하나로 흡수하는 것이 불필요한 클릭과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음식’ > ‘요리법’,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묶어 간결하게 만든다.

‘테마별 맛집 찾기’의 ‘유기농식재료를 사용하는 곳’, ‘주목할만한 새 레스토랑’과 같이 1~2개의 콘텐츠만 가지고 있는 범주도 36개의 주제를 비슷한 군끼리 묶어 축소시킴으로써, 콘텐츠 수의 균형을 맞추어 정보검색자의 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라)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서울 맛집 찾기’ 디렉토리에는, 추어탕과 삼계탕이 ‘한식(탕/국/찌개)’에는 포함되지 않고 ‘한식(민물어패류)’와 ‘한식(가금류)’에만 포함되는 콘텐츠의 소속 및 디렉토리 명과의 일치성의 문제가 있다. 디렉토리를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큰 개념의 디렉토리에 콘텐츠가 일치하여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디렉토리를 조정함으로써 일치성을 해결하고, 정보의 적절한 중복 효과도 함께 높일 수 있다.

- ‘한식’ > ‘탕/국/찌개’ > 추어탕, 삼계탕
- ‘한식’ > ‘어패류’ > 추어탕
- ‘한식’ > ‘육류 · 가금류’ > 삼계탕

#### 마)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 ① 디렉토리의 배열성

음식점 정보와 취재기, 요리법 등 6개의 대분류가 서로 관련성 없이 배열되어 있어 산만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대분류의 배열은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구성은 물론, 연속되는 하위 분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분류를 크게 3개 주제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특성대로 재배열하여 검색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맛집 찾기’(음식종류별/지역별/테마별), ‘한국음식’(요리법/한국음식점), ‘맛있는 이야기’ 순으로 대분류를 배열한다.

##### ② 콘텐츠의 배열성

‘서울 맛집 찾기’는 20개의 검색 옵션(음식 종류(국적)별/음식점 형태별)이 있어 검색하고자 하는 것만 선택하여 배열이 가능하다. 검색 옵션을 주제별로 재조정하여 검색 옵션 수를 줄이고, 한식 이후부터는 포함된 콘텐츠 수가 많은 순서대로 배

열하는 것이 검색의 효율성을 더 높일 것이다.

‘지역별 맛집 찾기’는 21개 지역을 자모순이나 비슷한 지역순으로 배열한다면 검색의 집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자모순을 따르나 ‘강남역’의 위치가 중간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순서가 완전하지는 않다.

‘테마별 맛집 찾기’도 검색 옵션을 주제별로 재조정하여 검색 옵션 수를 줄이고, 포함된 콘텐츠 수가 많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 대표 음식’과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의 콘텐츠도 자모순으로 배열하여 현재의 순서 없는 나열을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의 종류(육류, 면류 등)별로 검색 옵션을 두어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배열할 수 있도록 한다.

#### 바) 용어의 적절성

‘에센의 맛있는 이야기’의 ‘에센’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에센은 음식과 관련된 생활 잡지인데, 이러한 것에 평소 관심을 두지 않는 이는 단지 디렉토리 명만 보고 이를 유추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디렉토리의 콘텐츠는 취재원들의 기사와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디렉토리 명을 ‘맛있는 이야기’ 또는 ‘맛있는 서울 이야기’로 하고, 콘텐츠 페이지 상단에 배너로 음식잡지 ‘에센’ 기자들의 취재기라는 것을 설명한다면, 이용자들의 인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테마별 맛집 찾기’에 짧지만 외래어를 섞은 용어들이 있다는 것이다. ‘fine dining을 할 수 있는 곳’, ‘비즈니스 다이닝에 좋은 곳’, ‘사케리스트가 좋은 곳’, ‘와인리스트가 좋은 곳’ 등이다. ‘fine dining’은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레스토랑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다이닝’은 업무와 정찬을 함께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뜻한다. 비슷한 용어임에도 하나는 영어 알파벳으로, 다른 하나는 발음대로 한국어를 사용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비즈니스 다이닝’을 ‘business dining’으로 바꾸어 국·영문 표기에 일관성을 갖추거나, 모두 적절한 우리말로 바



꾸는 것이 올바른 사용일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품격 있는 레스토랑’ 또는 ‘정찬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 ‘비즈니스 모임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 정도가 적합할 것이다. ‘사케/와인리스트가 좋은 곳’도 ‘와인이 다양한 곳’, ‘일본술(사케)이 다양한 곳’ 등 적절한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곳’(8개)은 음식점 정보의 주요 기준이 ‘가격과 만족도’라는 이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처럼 ‘테마’로 일반화하여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다. 만족도의 주요 기준이 ‘맛’과 ‘분위기(환경)’임을 생각하여, ‘2~3만원대 맛집’, ‘4~5만원대 분위기 있는 곳’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정보검색자의 인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사) 유지관리성 · 최신성

6개 디렉토리 모두 콘텐츠 마다 하단에 등록일자와 최종 수정일자, 출처 및 관리처가 명시되어 있다. 2010년 10월 현재까지 꾸준히 정보가 수정되고 있다.

#### 아) 중복성

‘테마별 맛집 찾기’에 ‘테마’로 지정된 36개 항목 중, 중복된 주제가 몇 개 있다. 디렉토리 명의 띄어쓰기와 조사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디렉토리가 중복 생성되었고, 그에 따라 하위 콘텐츠가 제각기 분류되었다. 제각기 분류된 항목의 콘텐츠들은 중복된 정보가 아니다. 꾸준한 검수와 관리를 통해 위와 같은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래는 중복된 디렉토리 항목이다.

- 사케 리스트가 좋은 곳(9), 사케리스트가 좋은 곳(1)
- 낮에만 영업을 하는 곳(3), 낮에만 영업하는 곳(4)
- 저녁에만 영업을 하는 곳(48), 저녁때만 영업을 하는 곳(35)
-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있는 곳(4),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있는 곳(3)

- 가족과 외식하기에 좋은곳(33), 가족과 외식하기에 좋은 곳(14)

#### 자) 검색의 효율성

##### ①검색 옵션

3개 대분류(서울 맛집 찾기, 지역별 맛집 찾기, 테마별 맛집 찾기)는 하위 단계의 디렉토리 없이 콘텐츠가 나열된 형식이다. 하지만 최종 콘텐츠가 나열되는 페이지 상단에 음식 종류, 지역, 테마 등의 검색 옵션이 있어, 디렉토리가 없어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단, ‘서울 맛집 찾기’에는 음식 종류와 함께 21개 지역별로도 검색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다면, 찾고자 하는 정보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역별 맛집 찾기’에도 해당된다. 검색 옵션으로 음식 종류를 추가 설정한다면, 지역과 음식 종류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테마별 맛집 찾기’의 검색 옵션에 검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예를 들어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을 선택하여 총 37페이지에 걸쳐 183개의 콘텐츠가 검색되었다. 2페이지를 클릭하면 디폴트 항목인 ‘24시간 영업하는 곳’으로 페이지가 변경된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콘텐츠가 검색되었다 할지라도 첫 페이지의 5개 항목만 볼 수 있고, 2페이지부터는 검색 결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사이트의 꾸준한 검수와 관리를 통해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 ②콘텐츠 수의 명시

6개 대분류의 콘텐츠 페이지 상단에, 총 콘텐츠 수 및 해당 페이지 수가 명시<sup>58)</sup>되어 있다. 따라서 콘텐츠 첫 페이지만 보아도, 이 디렉토리 내에 몇 개의 음식점 정보가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58) (콘텐츠 수 명시 예) 전체 256 개 :: 현재 1 페이지 / 전체 22 페이지

### 3) 디렉토리 개선 안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4-13>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디렉토리 명: 맛집		
1단계	2단계	검색 옵션
1.서울 맛집 찾기	1.음식 종류별 2.지역별 3.테마별	1: [세부 음식 종류], [지역] 검색 구분 2: [음식 종류] 검색 구분 3: [테마] 검색 구분
2.한국음식	1.요리법 2.한국음식점	[음식 종류] 구분 검색
3.맛있는 이야기	주제별 배열	

출처: 연구자 작성

## 다. 제주특별자치도

<표 4-14>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디렉토리 명: 먹거리		
1단계: 8 <sup>59)</sup>	컨텐츠: 448 <sup>60)</sup>	형식
1.제주향토음식: 128	[제주], [서귀포] 탭 구분: 갈치국 등 17개 향토음식 정보 및 음식점 정보 (총 128개)	리스트 배열
2.한정식: 256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지역별검색 <sup>61)</sup> ] 구분: 흑돈가, 정의골식당, 화진전복, 흑돼지 전문점 돼랑 등 (총 256개)	이미지/리스트 배열
3.경양식: 3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지역별검색] 구분: UFO레스토랑, 마녀가 탄 빗자루, 라이트하우스 등 (총 3개)	이미지/리스트 배열
4.일식/횃집: 61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지역별검색] 구분: 대포횃집, 칠십리갈치요리전문점, 제주올레횃집 등 (총 61개)	이미지/리스트 배열
5.모범음식점	[제주], [서귀포] 탭 구분: [업소명], [소재지], [메뉴], [유형] 탭 구분: (주)광원, 가야횃집, 가향일식 등 (총 438개)	리스트 배열
6.향토음식점	[제주], [서귀포] 탭 구분: [업소명], [소재지], [메뉴] 탭 구분: 갯것이, 거상, 김정보리국수 등 (총 88개)	리스트 배열
7.네티즌 추천 맛집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구분: [지역별검색] 구분: 대포횃집, 흑돈가, 정의골식당, 화진전복 등 (총 319개)	이미지/리스트 배열
8.제주음식만들기	음식 정보	이미지 배열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사이트(www.jejutour.go.kr)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토대로 작성 (2010년 9월 검색 자료)

59) 디렉토리 수

60) 총 컨텐츠 수(디렉토리 1~4)

## 1) 디렉토리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 디렉토리인 ‘먹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8개 대분류(제주향토음식, 한정식, 경양식, 일식/횃집,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네티즌 추천 맛집, 제주음식만들기)로 구성되었고, 크게 음식 종류에 따른 음식점 정보, 모범/향토/추천음식점, 제주 향토음식 정보 등 3개 주제로 나뉘었다. 총 콘텐츠 수는 440여 개로, 이 중 ‘한정식’(256개)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디렉토리 중, ‘제주향토음식’은 갈치국, 돔배고기 등 대표적인 제주도 음식 소개 및 음식점 정보를 다루었다. ‘한정식’, ‘경양식’, 일식/횃집’은 음식 종류에 따라 음식점 정보를 모은 곳이고,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은 음식점 리스트와 연락처를 모은 디렉토리이다. ‘네티즌 추천 맛집’은 이용자의 평가 및 추천점수 순으로 모은 곳이고, ‘제주음식만들기’는 음식 만들기 정보를 수록한 디렉토리이다.

## 2) 분류체계 분석

### 가)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한정식’, ‘경양식’, ‘일식/횃집’ 디렉토리들의 계층은 모두 1단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정식(256개)과 일식/횃집(61개)의 콘텐츠 수가 많아 1단계로는 섬세한 검색을 하기 어렵다. 한식과 일식은 1~2개 계층의 디렉토리(주력메뉴, 규모 등)를 추가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가령, ‘한정식’은 [한식·향토식], [한정식]으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 아래 [흑돼지], [오분자기], [백반] 등으로 검색 옵션을 만든다. ‘일식/횃집’은 [회], [조개구이], [일식] 등으로 디렉토리 또는 검색 옵션을 생성한다. 이렇게 디렉토리나 검색 옵션을 추가 생성할 때에는, 음식 종류 및 주력

---

61) 제주시내권, 서귀포시내권,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등 14개 지역

메뉴와 같이 모든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나)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 ① 디렉토리의 포괄성

음식의 종류를 기준으로 대분류를 ‘제주향토음식’, ‘한정식’, ‘경양식’, ‘일식/횃집’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기타’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아, 위 4개 이외의 종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다. 추후 중식, 퓨전식 등 다양한 음식점 정보를 망라하기 위해서 ‘기타’ 디렉토리의 생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타’ 디렉토리 내에는 음식의 종류를 검색 옵션으로 두어야 한다.

##### ②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8개의 대분류는 뚜렷한 3개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디렉토리의 폭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즉, 종류별 음식점(제주향토음식, 한정식, 경양식, 일식/횃집, 기타), 음식점 정보(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네티즌추천맛집), 향토음식소개(제주향토음식, 제주음식만들기)로 디렉토리를 묶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제별로 대분류를 구분하고 하위 디렉토리로 연속하여 분류함으로써 디렉토리의 논리성을 충족시키고 정보검색자의 인지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다) 콘텐츠 수의 균형성

‘경양식’의 콘텐츠 수가 3개로 ‘한식’(256개) 및 ‘일식/횃집’(61개)과 비교하여 그 수가 매우 적어, 독립된 디렉토리로 구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콘텐츠 수가 다른 디렉토리와 비교하여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것은 분류체계 기준에 맞지 않고, 정보 검색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분류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여 콘텐츠 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콘텐츠 정보를 충실히 발굴하여 디렉토리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추후 충분한 콘텐츠가 모일 때까지 ‘기타’ 디렉토리 안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제주향토음식’, ‘한식’, ‘회/일식’, ‘기타’로 디렉토리 수를 조정하고, ‘기타’ 안에는 [양식], [중식] 등의 옵션을 넣어 콘텐츠 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 라)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한정식’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반상차림을 서양의 정찬처럼 시간전개형으로 격식을 갖추어 차려내는 음식’으로, 전통반상차림을 현대에 맞게 변형시킨 것<sup>62)</sup>이다. 하지만 ‘한정식’ 디렉토리 콘텐츠에는 일반 한식 식당과 향토음식점, 고깃집, 해산물 식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도 한정식 식당보다 월등히 많다. 이처럼 일반 음식점을 한정식 식당으로 일반화하여 디렉토리 명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디렉토리 명과 콘텐츠가 일치하도록 ‘한식’으로 디렉토리 명을 정정하고, 하위에 ‘일반한식’, ‘한정식’, ‘향토음식’ ‘해산물’ 등의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하위에 주력메뉴에 대한 검색 옵션을 추가하도록 한다.

#### 마)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 ① 디렉토리의 배열성

대분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제주향토음식, 한정식, 경양식, 일식/횃집’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제주향토음식은 강조하기 위하여 맨 앞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는 콘텐츠 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한정식, 일식/횃집, 경양식’의 순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대분류의 주제(음식의 종류, 음식점, 음식정보)에 따라 디렉토리를 구분, 또는 3가지 색상으로 구분한다면 배열성을 높여 검색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

---

62)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2010.9)

## ②컨텐츠의 배열성

‘한정식’, ‘경양식’, ‘일식/횃집’, ‘네티즌 추천 맛집’ 디렉토리의 최종 컨텐츠가 나열된 페이지는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으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평가점수순]과 [네티즌추천순]은 이용자의 추천평 및 별점으로 음식점 순위를 매긴 것으로, 두 컨텐츠 배열은 매우 흡사하여 동일한 탭을 중복하여 걸어놓은 것과 같다. 하나의 탭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페이지의 중복과 나열을 막도록 한다. 또한 [평가점수순]이 기본페이지로 설정되어 있어 컨텐츠의 배열성이 지켜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음식점에 추천평 및 별점이 없거나, 1~2개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 배열에 의미가 없고 혼란스럽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이름순] 탭을 기본페이지로 설정하여 배열성을 먼저 확보하고, [네티즌추천순] 탭은 상위 16위 정도(1개 페이지)로 제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름순] 탭의 음식점 정보에 신규등록일자나 수정일자를 보여주고, 이를 등록일자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옵션기능을 추가한다면 따로 [신규등록순] 탭을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열성이 좋아지고,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신규등록순]의 의미 없이 중복되는 정보 및 페이지 수를 줄일 수 있다.

## 바) 용어의 적절성

디렉토리 명에 사용된 ‘먹거리<sup>63)</sup>’는 명사 ‘먹을거리’의 잘못된 표현이다. ‘먹을거리’와 같이 올바른 용어로 디렉토리 명을 순화함으로써, 공식적인 지방자치 관광홈페이지의 격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식/횃집’은 동위의 디렉토리 명(제주향토음식, 한정식, 경양식)과 균형을 맞추어 ‘회·일식’으로 조정하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정식은 ‘한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논리에 맞고 매끄럽다고 할 수 있다.

63) [명사]‘먹을거리’의 잘못 -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2010. 9)



#### 사) 유지관리성 · 최신성

‘한정식’, ‘경양식’, ‘일식/횃집’, ‘네티즌 추천 맛집’ 디렉토리의 최종 콘텐츠가 나열된 페이지에 [신규등록순] 탭이 있다. 하지만 음식점이 나열되어 있을 뿐, 등록일자나 최종 수정일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로 유지관리가 얼마나 자주, 빠르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자료의 유지관리와 최신성을 위해 음식점의 등록 및 수정일, 자료 관리자를 명시하여 상위 16위 정도(1개 페이지)로 제한하여 보여주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처럼 등록일자 없이 모든 보유 음식점 정보를 나열하는 것은 중복된 페이지의 낭비일 수 있다.

#### 아) 중복성

인터넷 디렉토리 체계에서 중복성은 정보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이것이 지나치면 동일한 콘텐츠가 세 번 이상 중복되어 페이지의 낭비를 가져오며, 검색자의 집중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것은 대분류 디렉토리의 재조정을 통해서 필요이상의 디렉토리는 제거하고, 적절한 수준의 중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 ‘흑돈가’는 5개의 디렉토리(제주향토음식, 한정식,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네티즌 추천 맛집)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이다. ‘제주향토음식’은 단순히 음식의 종류에 따른 분류라기 보다는, 강조하기 위해 상위에 따로 분류해 놓은 디렉토리이다. 따라서 ‘제주향토음식’, ‘한정식’ 두 디렉토리는 필수적으로 나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네티즌 추천 맛집’은 디렉토리의 일원화를 통하여 중복성을 줄여야 한다.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로 일원화하여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네티즌 추천 맛집]의 탭 형식으로 정리하거나 한 개의 페이지

지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개의 디렉토리로 분산된 중복된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중복성의 오류가 ‘네티즌 추천 맛집’에 나타난다.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의 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디렉토리 자체와 콘텐츠 탭들이 중복된 것이다. 이것은 위의 디렉토리의 일원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자) 검색의 효율성

##### ①검색 옵션

4개 디렉토리(한정식, 경양식, 일식/횃집, 네티즌 추천 맛집)는 최종 콘텐츠가 나열되는 페이지 상단에 제주시내, 서귀포시내, 읍 등 14개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1단계 분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3개 디렉토리(제주향토음식,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는 2개 지역(제주, 서귀포)과 일부에 한해 업소명/메뉴/유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옵션이 설정되었다. 다만, 업소명/메뉴/유형의 검색방법이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는 형식이라 검색 성공률이 떨어진다<sup>64)</sup>. 따라서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선택하거나, 검색어를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렉토리 별로 최대 2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콘텐츠를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②콘텐츠 수의 명시

4개 디렉토리(한정식, 경양식, 일식/횃집, 네티즌 추천 맛집)의 총 콘텐츠 수가

---

64) 예를 들어, [메뉴]를 선택하고 검색어로 ‘소고기’라 입력하면 ‘쇠고기요리’ 식당이 검색되지 않는다.

페이지 상단에 명시<sup>65)</sup>되어, 이 디렉토리에 몇 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쉽다. 3개 디렉토리(제주향토음식,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에도 음식점마다 번호가 매겨짐으로써 콘텐츠 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3) 디렉토리 개선 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4-15>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디렉토리 명: 먹을거리			
1단계	2단계	3단계	검색 옵션
1.종류별 음식점	1.제주향토음식 2.한식 3.회 · 일식 4.기타	*한식: 일반한식/한정식/향토음식/훈돼지 *회 · 일식: 회/해산물구이/일식 *기타: 양식/중식	[이름순], [추천 Top10] 탭 구분 [지역] 검색 구분
2.음식점 정보	1.모범음식점 2.향토음식점 3.네티즌추천맛집	[이름순], [추천 Top10] 탭 구분 [지역] 구분 [업소명, 소재지, 메뉴, 유형] 정렬 기능	
3.제주음식만들기	이름순 배열		

출처: 연구자 작성

65) (콘텐츠 수 명시 예) 전체 256 개 :: 현재 1 페이지 / 전체 22 페이지

## 라. 사이버강원관광

<표 4-16> 사이버강원관광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디렉토리 명: 잘거리/먹거리		
1단계: 9 <sup>66)</sup>	컨텐츠: 382 <sup>67)</sup>	형식
1.한식: 206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구분: [지역검색 <sup>68)</sup> ], [분류 <sup>69)</sup> ] 구분:  옥산막국수, 한가죽숯불닭갈비, 통나무집닭갈비 등 (총 206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2.중식: 5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구분: [지역검색], [분류] 구분:  차스민, 왕부, 태홍루 등 (총 5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3.양식: 3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구분: [지역검색], [분류] 구분:  라고, 섬 레스토랑, 경포사과나무 (총 3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4.일식: 88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구분: [지역검색], [분류] 구분:  어라연송어장 횡집, 송어의 집, 광범이네 횡집 등 (총 88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5.먹거리단지: 19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구분: [지역검색], [분류] 구분:  주문진중앙시장, 횡성먹거리단지, 대계마을 등 (총 19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6.향토음식점: 61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구분: [지역검색], [분류] 구분:  오대산서울식당, 산촌, 산들산채식당 등 (총 61개)	이미지/텍스트 배열
7.네티즌추천음식점	네티즌 추천음식점 리스트 및 별점 (총 254개)	게시판
8.지자체추천음식점	음식점 리스트 및 연락처 (총 63개)	텍스트 배열
9.향토음식소개	음식 정보 (총 42개)	이미지 배열

출처: 사이버강원관광(www.gangwon.to)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토대로 작성 (2010년 9월 검색 자료)

66) 하위 컨텐츠 수

67) 총 컨텐츠 수(디렉토리 1~6)

6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18개 지역

## 1) 디렉토리 개요

사이버강원관광은 숙박과 음식점 정보를 ‘잘거리/먹거리’ 한 개의 디렉토리로 함께 구성하였다. 이 중, 음식점 정보에 해당하는 ‘먹거리’를 독립적인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9개 대분류(한식, 중식, 양식, 일식, 먹거리단지, 향토음식점, 네티즌추천음식점, 지자체추천음식점, 향토음식소개)로 구성되었고, 크게 음식 종류에 따른 음식점 정보, 음식점 목록, 강원도 향토음식 정보 등 3개의 주제로 나뉘었다. 총 콘텐츠 수는 380여 개로, 이 중 ‘한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디렉토리 중 ‘먹거리단지’는 음식점 밀집지역을 소개하였고, ‘향토음식점’, ‘지자체추천음식점’은 음식점 리스트와 연락처를 명시한 페이지이다. ‘네티즌추천음식점’은 이용자들이 추천평과 사진을 올리는 게시판이고, ‘향토음식소개’는 강원도 향토음식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였다.

## 2) 분류체계 분석

### 가)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디렉토리들의 계층은 모두 1단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식(206개)과 일식(88개)의 콘텐츠 수가 많아 1단계로는 섬세한 검색을 하기 어렵다. 한식과 일식은 1~2개 계층의 디렉토리(주력메뉴, 규모 등)를 추가함으로써 검색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가령, ‘한식’은 [한우], [닭갈비], [산채정식] 등으로, ‘일식’은 [회], [조개구이], [일식] 등으로 주력메뉴를 주제로 하여 디렉토리 계층을 추가할 수 있다.

### 나)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

69)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먹거리단지 등 5개 종류

### ①디렉토리의 포괄성

음식의 종류를 기준으로 대분류를 ‘한식’, ‘중식’, ‘양식’, ‘일식’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기타’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위 4개 이외의 종류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다. 추후 동남아식, 퓨전식 등 다양한 음식점 정보를 망라하기 위해서 ‘기타’ 디렉토리의 생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타’ 디렉토리 내에는 음식의 종류를 검색 옵션으로 두어야 한다.

### ②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9개의 대분류는 뚜렷한 3개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디렉토리의 폭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즉, 종류별 음식점(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음식점 정보(먹거리단지, 향토음식점, 네티즌추천음식점, 지자체추천음식점), 향토음식소개로 디렉토리를 묶는 것이다.

#### 다) 콘텐츠 수의 균형성

‘중식’과 ‘양식’의 콘텐츠 수가 3~5개로 ‘한식’(206개) 및 ‘일식’(55개)과 비교하여 그 수가 매우 적어, 독립된 디렉토리로 구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콘텐츠 수가 다른 디렉토리들과 비교하여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것은 분류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분류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여 콘텐츠 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콘텐츠 정보를 충실히 발굴하여 디렉토리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추후 충분한 콘텐츠가 모일 때까지 ‘기타’ 디렉토리 안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 라)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일식’은 80여 개 콘텐츠 대부분이 횃집이고, 소수의 해산물 구이집과 일식집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식 횃집을 일식집으로 일반화하여 디렉토리 명을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디렉토리 명과 콘텐츠가 일치하도록 ‘회·일식’ 등으로 디렉토리 명을 확장해야 한다.

#### 마)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 ① 디렉토리의 배열성

대분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콘텐츠 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의 순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대분류의 주제(음식의 종류, 음식점, 음식정보)에 따라 디렉토리를 구분, 또는 3가지 색상으로 구분한다면 배열성을 높여 검색의 편의를 도울 수 있다.

##### ② 콘텐츠의 배열성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먹거리단지’, ‘향토음식점’ 디렉토리들의 최종 콘텐츠가 나열된 페이지는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으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천점수순]이 기본페이지로 설정되어 있어, 콘텐츠의 배열성이 효과적이라 하기 어렵다. 사이트 이용자의 추천별점에 따라 음식점이 순위대로 나열되는데, 대부분의 음식점 별점이 아예 없거나, 1~2개로만 이루어져 있어 배열에 의미가 없고 혼란스럽다. 그나마 콘텐츠 수가 많은 ‘한식’도 첫 16개 정도의 식당만 별점에 의미가 있고, 나머지 180여개의 식당이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이름순] 탭을 기본페이지로 설정하여 배열성을 먼저 확보하고, [추천점수순] 탭은 상위 10위 정도로 제한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름순] 탭의 음식점 정보에 신규등록일자나 수정일자를 보여주고, 이를 등록일자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옵션기능을 추가한다면 따로 [신규등록순] 탭을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열성이 좋아지고, [추천점수순]과 [신규등록순]의 의미 없이 중복되는 정보 및 페이지 수를 줄일 수 있다.

#### 바) 용어의 적절성

디렉토리 명에 사용된 ‘먹거리<sup>70)</sup>’는 명사 ‘먹을거리’의 잘못된 표현이다. 굳이 잘못된 용어를 디렉토리 명으로 정한 이유는, 숙박 정보와 디렉토리를 공유함으로써 부득이 용어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하지만 ‘잘거리’도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부적절한 관용어구로, ‘잘곳/먹을거리’와 같이 올바른 용어로 디렉토리 명을 순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위 디렉토리의 ‘먹거리단지’도 같은 맥락에서 ‘먹을거리 단지’ 또는 ‘먹을거리촌’과 같이 최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화된 용어로 정정하여야 한다. 올바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식적인 지방자치 사이트의 격을 한층 완성시킬 수 있다.

#### 사) 유지관리성 · 최신성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먹거리단지’, ‘향토음식점’ 디렉토리들의 최종 콘텐츠가 나열된 페이지에 [신규등록순] 탭이 있어, 가장 최근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음식점 정보 순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향토음식소개’의 음식정보도 등록 및 수정일, 자료관리자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콘텐츠의 꾸준한 유지관리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 중복성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먹거리단지’, ‘향토음식점’ 디렉토리들의 최종 콘텐츠 페이지의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을 <마> ②콘텐츠의 배열성>에서 언급하였듯이 줄임으로써, 의미 없이 10여 페이지에 걸쳐 나열되는 정보의 중복과 페이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

70) [명사]‘먹을거리’의 잘못 - 네이버 국어사전(2010. 9)



### 자) 검색의 효율성

#### ①검색 옵션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먹거리단지’, ‘향토음식점’ 디렉토리들의 최종 콘텐츠가 나열되는 페이지 하단에 18개 지역별 검색과 5개 종류별(한식, 양식 등)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렉토리 별로 최대 20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콘텐츠를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②콘텐츠 수의 명시

전체 콘텐츠 수 또는, 각 디렉토리의 콘텐츠 수가 따로 명시되지 않아 한 눈에 몇 개의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각 디렉토리의 최종 콘텐츠가 나열되는 페이지 상단에 콘텐츠 수를 명시함으로써 정보검색자의 검색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3) 디렉토리 개선 안

사이버강원관광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4-17> 사이버강원관광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개선 안

디렉토리 명: 잘곳/먹을거리			
1단계	2단계	3단계	검색 옵션
1.종류별 음식점	1.한식 2.회·일식 3.기타	*한식: 닭갈비/한우/산채 정식 *회·일식: 회/해산물구 이/일식 *기타: 양식/중식	[이름순], [추천 Top10] 탭 구분: [지역검색 <sup>71)</sup> ], [분류 <sup>72)</sup> ] 구분:
2.음식점 정보	1.먹을거리 단지 2.향토음식점 3.네티즌추천음식점 4.지자체추천음식점		[이름순], [추천 Top10] 탭 구분: [지역검색], [분류] 구분:
3.향토음식소개	이름순 배열		

출처: 연구자 작성

71)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18개 지역

72)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먹거리단지 등 5개 종류

## 제3절 종합 결과

### 1. 디렉토리 종합 분석

#### 가.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표 4-18>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비교

분류	디렉토리 단계 및 수		컨텐츠 수	총 컨텐츠 수	검색 옵션
사이트: 디렉토리 명	1단계(대분류) 수 / 이름	2단계 수			
한국관광공사: 어디로갈까- ‘관광명소’	5	자연관광	9	8,455	-지역, 지역별 검색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 -컨텐츠 수 명시 O -자모순 배열 X
		역사관광	6		
		체험관광	9		
		테마관광	6		
		문화시설	10		
서울특별시문화관광: ‘관광명소’	4	인기관광지역	21	447 <sup>73)</sup>	-지역별 검색 -컨텐츠 수 명시 O -자모순 배열 X
		주제별 관광명소	23		
		세계문화유산			
		지역별 관광명소찾기	21		
제주특별자치도: ‘볼거리’	15	유적지/사적지		541 <sup>74)</sup>	-지역별 검색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컨텐츠 수 명시 O -자모순 배열 X
		명산			
		오름			
		자연동굴			
		폭포/계곡/유원지			
		경승지			
		섬/등대			
		해수욕장			
		자연휴양림/수목원			
		고택/생가/민속마을			
		테마공원			
		공연/행사장			
		전시/박물관			
		신규관광지			
		주간베스트24			
사이버강원관광: ‘즐길거리’	4	자연관광자원	9	1,308	-지역별 검색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컨텐츠 수 명시 X -자모순 배열 X
		레저/스포츠	6		
		역사/문화자원	8		
		보양/휴양관광	4		

출처: 연구자 정리

제주특별자치도(1단계)를 제외한, 한국관광공사와 서울특별시문화관광(주제별 관광명소), 사이버강원관광 3개 사이트는 총 2단계 디렉토리로 구성되었다. 총 콘텐츠 수는 한국관광공사(8,455개) > 사이버강원관광(1,308개) > 제주특별자치도(541개) > 서울특별시문화관광(447개) > 순이다. 1단계 대분류 수가 4~5개로 비교적 적은 3개 사이트는 6~23개의 자세한 2단계 디렉토리를 두어 콘텐츠를 분류하였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단계 디렉토리를 15개로 자세하게 두어 중간 소분류를 두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보유 콘텐츠 수가 많은 대분류가 하위 디렉토리(2단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분류를 나누는 특성은 대부분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형태이다. 한국관광공사와 사이버강원관광은 자연, 역사, 체험 및 테마, 문화시설 등 자원의 형태로 대분류를 나누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산, 오름, 해수욕장, 공연/행사장과 같이 위와 같은 개념을 더 세분하여 15개 대분류를 두었다.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은 2단계 주제별 관광명소에 위와 같은 세분화한 개념의 자원을 23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를 아우르고 있어, ‘어디로 갈까’ 디렉토리의 초기페이지에 전국을 17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광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은 서울을 21개 인기관광지역으로 나누어 2개의 디렉토리(인기관광지역, 지역별 관광명소찾기)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두 사이트는 ‘지역별’ 관광정보를 대분류 및 초기페이지에 둬으로써 강조하였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이버강원관광은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특유의 관광자원 정보를 대분류로 나타냄으로써 강조하였다. 강원도는 스키, 골프, 해양레포츠 등 풍부한 레저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레저/스포츠’ 대분류 디렉토리로 지역 관광정보 특성을 표출하였다. 또한 풍부한 산림이 있어 휴양림 및 휴양마을에 대한 정보를 강조하여 대분류로 두었다. 이와 같이 대분류 디렉토리를 살펴봄으로써, 사이트

---

73) 디렉토리 2 콘텐츠 총계

74) 디렉토리 1~13 콘텐츠 총계

가 특별히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디렉토리의 계층(깊이)은 디렉토리의 수평적 폭(너비)에 영향을 미친다. 2단계 디렉토리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단계로써 콘텐츠 수를 조절하여야 하기에 15개의 대분류가 구성되면서 수평적인 폭의 너비가 넓어졌다. 다른 3개 사이트는 2단계 디렉토리가 존재하여, 대분류는 4~5개로 간소하게 시작하였다.

각 디렉토리 별 보유 콘텐츠 수가 동위의 다른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디렉토리들이 있다.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세계문화유산’(5개),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산’(7개), ‘자연휴양림/수목원’(5개), ‘고택/생가/민속마을’(3개), ‘신규관광지’(0개) 등은 각 디렉토리가 속한 계층의 콘텐츠 수 평균값<sup>75)</sup>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것은 ‘명산·오름’ 등과 같이 비슷한 개념의 다른 디렉토리나 통합하거나, 꾸준한 콘텐츠 발굴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대표 디렉토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콘텐츠 수가 너무 적은(0~7개) 디렉토리가 4개나 있어 비슷한 대분류를 통합하여 수를 감소시키는 조정이 필요하다.

4개 사이트 모두 어느 범주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운 콘텐츠를 속하게 하는 ‘기타’ 디렉토리를 두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 분류된 범주에 모든 자원을 가급적 명확하게 속하게 하고, 정보검색자의 검색행동을 집중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타’를 두지 않은 것으로 유추한다. 하지만 시설물과 관련한 자원은 새로운 개념 및 형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명확하게 기존 범주로 두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대안공간’은 현재 ‘미술관/화랑’ 디렉토리에 속하게 하였으나 그 속성상 단정 짓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위적인 시설자원과 관련한 디렉토리에는 반드시 ‘기타’ 범주를 두어 어느 곳에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의 자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사이트마다 효율적인 검색의 능력을 올려주는 검색 옵션 기능을 두고 있다.

---

75) 디렉토리별 평균 콘텐츠 수: \*서울특별시문화관광(1,2,4 디렉토리) 400여개, \*제주특별자치도(1~15 디렉토리) 37개

사이트 모두 세부 지역별 검색 옵션이 있어 디렉토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검색 옵션은 1~2단계밖에 되지 않은 짧은 디렉토리의 깊이(계층)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검색된 전체 콘텐츠 수 및 페이지의 명시 역시 검색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사이버강원관광을 제외한 세 개 사이트는 모두 이 부분이 명시되었다. 추후 사이버강원관광도 검색된 전체 콘텐츠 수 및 페이지 수를 명시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콘텐츠의 자모순 배열은 네 개 사이트 모두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다. [이름순] 탭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이버강원관광은 그나마 자모순으로 보는 방법이 있으나, 이 탭이 기본 페이지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나머지 두 사이트들은 검색된 콘텐츠의 배열이 평가점수순, 추천점수순 등으로 되어 있어 첫 페이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배열순서에 의미를 찾기 힘들다. 반드시 자모순 배열을 기본 설정으로 두어 검색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을 제외한 3개 사이트는 콘텐츠의 배열을 돕는 탭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비슷한 탭이 중복되어 있어, 정보의 중복성 및 페이지 공간의 낭비성이 강하다. 따라서 [추천순], [조회순],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추천점수순] 등의 탭은 추천 '상위 10~20위' 정도로 제한하고 서로 비슷한 내용은 하나도 통합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신순], [신규등록순] 탭도 동일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신규관광지' 및 '주간베스트24' 디렉토리는 그 하위의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탭과 서로 정보가 중복되고 충돌하는 면이 있다. 비슷한 정보의 탭은 하나로 통합하고, 콘텐츠 수도 의미 있는 것까지만 조회되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 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표 4-19>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비교

분류 사이트: 디렉토리 명	디렉토리 단계 및 수		컨텐츠 수	총 컨텐츠 수	검색 옵션
	1단계(대분류) 수 / 이름	2단계 수			
한국관광공사: ‘무엇을 먹을까’	3	유형별	9	5,795	-지역, 지역별 검색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 -컨텐츠 수 명시 O -자모순 배열 X
		지역별	17	5,784	
		추천 맛집 검색	8	735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맛집’	6	서울 맛집 찾기	20	1,118	-음식종류별, 지역별, 테마별 검색 -컨텐츠 수 명시 O -자모순 배열 X
		에센의 맛있는이야기		10	
		한국 대표 음식		42	
		지역별 맛집 찾기	21	1,118	
		테마별 맛집 찾기	36	1,100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22	
제주 특별자치도: ‘먹거리’	8	제주향토음식		128	-지역별 검색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컨텐츠 수 명시 O -자모순 배열 X
		한정식		256	
		경양식		3	
		일식/횃집		61	
		모범음식점		438	
		향토음식점		88	
		네티즌 추천 맛집		319	
		제주음식만들기		3	
사이버 강원관광: ‘즐길거리’	9	한식		206	-지역별 검색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컨텐츠 수 명시 X -자모순 배열 X
		중식		5	
		양식		3	
		일식		88	
		먹거리단지		19	
		향토음식점		61	
		네티즌추천음식점		254	
		지자체추천음식점		63	
		향토음식소개		42	

출처: 연구자 정리

76) 디렉토리 1 컨텐츠 총계

77) 디렉토리 1 컨텐츠 총계

78) 디렉토리 1~4 컨텐츠 총계

79) 디렉토리 1~6 컨텐츠 총계

한국관광공사와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은 총 2단계의 디렉토리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이버강원관광은 1단계의 대분류로 구성되었다.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2단계에 해당하는 음식종류별, 지역별, 테마별 구분은 인터페이스 상 온전한 디렉토리 형식은 아니지만 기능은 디렉토리를 대체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디렉토리 구성으로 간주하였다. 총 콘텐츠수는 한국관광공사(5,795개) > 서울특별시문화관광(1,118개) > 제주특별자치도(448개) > 사이버강원관광(382개) 순으로, 보유 콘텐츠가 많은 대분류가 하위 디렉토리(2단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분류를 나누는 특성은 2단계 디렉토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관광공사와 서울특별시문화관광처럼 2단계가 존재하면 지역과 유형, 테마 등으로 대분류를 나눈 후, 2단계에서 음식종류별(한식, 양식 등)로 분류하였다. 사이버강원관광과 제주도와 같이 1단계만 존재할 경우, 음식종류별(한식, 양식 등) 특성이 대분류로 구성되었다.

2단계 디렉토리의 유무는 수평적인 폭의 너비도 조절하는 기능을 하였다. 2단계가 존재할 시, 대분류 수는 3개에서 6개로 비교적 간소하게 시작한다. 2단계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8~9개의 대분류로 자세하게 시작하기에 폭이 넓어진다.

각 디렉토리 별 보유 콘텐츠 수가 동위의 다른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디렉토리들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양식’(5개), 사이버강원관광의 ‘중식’(5개), ‘양식’(3개)은 이 연구의 기준으로 삼은 5개 이하에 해당하며, 각 디렉토리가 속한 계층의 콘텐츠 수 평균값<sup>80)</sup>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앞으로 콘텐츠 발굴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음식점 정보 대표 디렉토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개 사이트 모두 공통적으로 추천음식점 또는 향토,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분류로서 나타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추천 맛집 검색’,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80) 디렉토리별 평균 콘텐츠 수: \*제주특별자치도(1~4 디렉토리) 112개, \*사이버강원관광(1~4 디렉토리) 76개



‘네티즌 추천 맛집’, 사이버강원관광의 ‘먹거리단지’, ‘향토음식점’, ‘네티즌추천음식점’, ‘지자체추천음식점’) 이 음식점들은 음식종류별로 나뉜 디렉토리의 하위 콘텐츠로 이미 속해 있지만, 그 지역의 대표할만한 음식점으로 강조하고자 대분류로 모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3개 사이트는 음식 만들기 정보를 대분류로서 나타내고 있다.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한국 대표 음식’,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음식만들기’, 사이버강원관광의 ‘향토음식소개’) 지역 고유의 음식정보 및 요리법을 제공함으로써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분류 디렉토리를 살펴봄으로써 사이트별 특징을 알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포괄적으로 전국의 음식점을 다루고 있어, 전국 17개 지역별로 검색하는 방법을 강조하여 대분류로 두었다.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은 서울을 특성 있는 관광지 20개 권역으로 나누어 음식점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대분류로 두었다. 두 사이트는 음식종류별 정보와 대등하게 ‘지역별’ 정보를 강조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이버강원관광은 지역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정보를 강조하여 대분류로 두었다. 특히 네티즌 및 지자체 추천음식점과 모범음식점 정보를 대분류로 둠으로써 그 지역 음식점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두 사이트 모두 음식점 정보를 각각 3개 이상<sup>81)</sup>의 디렉토리로 구성하여, 전체 디렉토리(8~9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정보의 중복성과 페이지 공간의 낭비성이 강하다. 또한, 디렉토리 내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추천점수순] 탭이 있어 디렉토리 자체와 정보가 중복되고 충돌되는 면이 있다. 추후 한 개의 디렉토리로 통합하고 그 안에 각 정보별 탭으로써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사이트마다 효율적인 검색의 능력을 올려주는 검색 옵션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트 모두 세부 지역별 검색 옵션이 있어 디렉토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은 다양한 테마별

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향토음식’,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네티즌 추천 맛집’ \*사이버강원관광: ‘향토음식점’, ‘네티즌추천음식점’, ‘지자체추천음식점’

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 옵션을 두어 상황에 따라, 가족과 연인 등 함께 하는 이에 따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음식종류별, 테마별 검색 옵션은 1~2단계밖에 되지 않은 짧은 디렉토리의 깊이(계층)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검색된 전체 콘텐츠 수 및 페이지의 명시 역시 검색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사이버강원관광을 제외한 세 개 사이트는 모두 이 부분이 명시되었다. 추후 사이버강원관광도 검색된 전체 콘텐츠 수 및 페이지 수를 명시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콘텐츠의 자모순 배열은 네 개 사이트 모두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다. [이름순] 탭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이버강원관광은 그나마 자모순으로 보는 방법이 있으나, 이 탭이 기본 페이지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나머지 두 사이트들은 검색된 콘텐츠의 배열이 평가점수순, 추천점수순 등으로 되어 있어 첫 페이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배열순서에 의미를 찾기 힘들다. 반드시 자모순 배열을 기본 설정으로 두어 검색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추천순], [조회순],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추천점수순] 등의 탭은 추천 '상위 10~20위' 정도로 제한하고 서로 비슷한 내용은 하나도 통합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신순], [신규등록순] 탭도 동일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 2. 주요 분류체계 문제점 분석

### 가.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아래는 4개 사이트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4-20>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분류체계 문제점 비교

사이트 명 분류체계 기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강원관광
1.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1단계 계층 또는 세부 검색 옵션을 두어, 방대한 최종 컨텐츠 수의 조절 필요	-일부 컨텐츠가 많은 디렉토리에 1단계 계층 또는 세부 검색 옵션의 필요	-일부 컨텐츠가 많은 디렉토리에 1단계 계층 또는 세부 검색 옵션의 필요	-일부 컨텐츠가 많은 디렉토리에 1단계 계층 또는 세부 검색 옵션의 필요
2.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1)디렉토리의 포괄성 2)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1)-비슷한 개념의 대분류 통합 필요(체험, 테마) -문화시설에 ‘기타’ 디렉토리 필요 2)-독립된 디렉토리를 생성하여 폭을 넓히는 것 필요	1)-‘기타’에 포함된 ‘한강’과 ‘산’을 독립된 디렉토리로 생성 -시설물과 관련하여 ‘기타’ 디렉토리 필요	1)-시설물과 관련하여 ‘기타’ 디렉토리 필요 2)-비슷한 개념(명산, 오름)의 대분류 통합 필요	1)-시설물과 관련하여 ‘기타’ 디렉토리 필요
3.컨텐츠 수의 균형성	-평균값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컨텐츠 조절(검색 옵션 설정, 디렉토리 재구성) 필요 (사찰/종교성지, 유적지/사적지, 대형서점)	-‘기타’ 디렉토리에 포함된 컨텐츠의 분산(디렉토리 재구성) -컨텐츠 수가 적은 ‘세계문화유산’ 디렉토리의 재구성	-컨텐츠 수가 현저히 적은 디렉토리를 다른 디렉토리와 적절히 통합(명산, 오름)	-컨텐츠 수가 많은 ‘주요산행지’에 검색 옵션 설정
4.디렉토리 명과 하위 컨텐츠의 일치성	-디렉토리 간의 컨텐츠 재조정(체험관광, 테마관광)	-‘세계문화유산’의 부적합한 컨텐츠 삭제 -‘주제별 관광명소 > 레포츠’의 하위 컨텐츠 포괄 문제	-디렉토리 간의 컨텐츠 재조정(해수욕장, 자연휴양림/수목원, 테마공원 등)	-디렉토리 간의 컨텐츠 재조정(국보, 테마파크, 스키/골프/리조트, 수상/육상/항공레포츠, 자연생태, 드라이브/유람선, 전통가옥, 박물관/기 념관/미술관)
5.디렉토리 및	2)-컨텐츠 배열의	2)-컨텐츠 배열의	2)-컨텐츠 배열의	2)-컨텐츠 배열의

컨텐츠의 배열성 1)디렉토리의 배열성 2)컨텐츠의 배열성	자모순 필요	자모순 필요	자모순 필요	자모순 필요
6.용어의 적절성	-디렉토리 명의 조정 필요(시군중합안내, 헬스투어)	-컨텐츠를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디렉토리 명 조정 필요(스타일리쉬 레스토랑)	(디렉토리 명과 하위 컨텐츠 일치성과 겹치는 부분이 많음)	-디렉토리 명의 조정 필요(자연관광, 레저/스포츠관광, 역사/문화관광, 보양/휴양관광)
7.유지관리성 · 최신성	-컨텐츠 유지관리 필요(시군중합안내, 대형서점)		-컨텐츠가 전혀 없는 디렉토리의 유지관리(신규관광지)	-등록일과 수정일이 바뀜
8.중복성	-최신순, 추천순 탭 상위 20위까지 제한	-디렉토리 내용 중복(인기관광지역, 지역별 관광명소찾기)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정리 및 상위 20위까지 제한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 이름순 탭 정리 및 상위 20위까지 제한
9.검색의 효율성 1)검색 옵션 2)컨텐츠 수의 명시	1)일부 컨텐츠 수가 많은 디렉토리에 검색 옵션 필요	1)관광정보 특성에 따른 검색 옵션 필요	1)향후 일부 컨텐츠 수가 많은 디렉토리의 관리를 위해 검색 옵션 필요	1)지역별 검색 옵션의 오류 문제(제목을 반드시 넣어야 검색됨) 2)컨텐츠 수 명시 필요

출처: 연구자 정리

12개 항목 중, ‘유지관리성 · 최신성’을 제외하고는 4개 사이트 모두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빈도수가 높은 주요 공통된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렉토리 명과 하위 컨텐츠의 일치성의 문제이다. 4개 사이트 모두 최소 3개 이상의 컨텐츠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분류 폭과 깊이의 조절의 잘못과, 단순히 컨텐츠의 소속이 잘못된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둘째, 디렉토리 계층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1~2단계의 짧은 계층으로 구성되다 보니, 방대한 컨텐츠 수를 조절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컨텐츠 증가에 대비하여 계층 수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기타’ 범주의 부재로 인한 디렉토리 폭의 문제이다. 인위적인 문화시설 또

는 관광시설과 관련된 디렉토리에는 반드시 ‘기타’ 범주를 두어 기존 범주에 소속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의 시설물들을 모두 포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에 자모순 등의 일관된 배열성이 필요하다. 4개 사이트 모두 자모순이 기본설정으로 되어있지 않아, 1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검색결과가 나오는 디렉토리는 재검색이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다.

## 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아래는 4개 사이트의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 4-21>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분류체계 문제점 비교

사이트 명 분류체계 기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강원관광
1.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일부 콘텐츠가 많은 디렉토리에 1단계 계층 또는 세부 검색 옵션을 두어, 최종 콘텐츠 수 조절 필요(한식)	-일부 콘텐츠가 많은 디렉토리에 1단계 계층 또는 세부 검색 옵션의 필요(한식, 양식, 일식)	-일부 콘텐츠가 많은 디렉토리에 1단계 계층 또는 세부 검색 옵션의 필요(한정식, 일식/횃집)	일부 콘텐츠가 많은 디렉토리에 1단계 계층 또는 세부 검색 옵션의 필요(한식, 일식)
2.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1)디렉토리의 포괄성 2)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1)음식점 시설 관련한 '기타' 디렉토리 필요	1)-대표적인 메뉴의 독립된 디렉토리 생성 필요(피자/파스타 등) 2)-'기타'에 포함된 음식점들에 대한 검색 옵션 및 디렉토리 재조정 필요	1)-음식점 시설과 관련하여 '기타' 디렉토리 필요 2)-비슷한 개념의 디렉토리 통합 필요(종류별 음식점, 음식점 리스트)	1)-음식점 시설과 관련하여 '기타' 디렉토리 필요 2)-비슷한 개념의 디렉토리 통합 필요(종류별 음식점, 음식점 정보)
3.콘텐츠 수의 균형성	-콘텐츠 수가 월등히 많은 디렉토리의 검색 옵션 설정 및 디렉토리 재조정(한식)	-디렉토리 재조정으로 '기타'에 포함된 음식점들의 분산 필요 -콘텐츠 수 부족한 디렉토리의 조정 필요(민물어패류, 아프리카식, 독일식, 유기농식재료, 주목할만한 레스토랑 등)	-콘텐츠 수가 적은 디렉토리의 조정 필요(경양식)	-콘텐츠 수가 적은 디렉토리의 조정 필요(중식, 양식)
4.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민물어패류', '가금류' 디렉토리의 하위 콘텐츠 포괄 문제	-디렉토리 명을 확장하여 하위 콘텐츠 포괄(한정식)	-'일식' 디렉토리의 콘텐츠 포괄 문제
5.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1)디렉토리의 배열성 2)콘텐츠의 배열성	2)콘텐츠 배열의 자모순 필요	2)콘텐츠 배열의 자모순 필요	2)콘텐츠 배열의 자모순 필요	2)콘텐츠 배열의 자모순 필요

6.용어의 적절성	-‘외래관광객 전문식당’의 의미 모호	-디렉토리 명 조정(에센의 맛있는 이야기) -‘테마별 맛집 찾기’ 일부 외래용어 순화 필요	-디렉토리 명 순화(먹거리)	-디렉토리 명 순화(먹거리)
7.유지관리성·최신 성			-신규등록순 탭에 등록 및 수정일 관리	
8.중복성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탭 상위 20위까지 제한	-디렉토리 명 오류(띄어쓰기, 조사 등)로 동일 디렉토리 중복 현상	-중복된 디렉토리 통합((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네티즌 추천 맛집) -평가점수순, 네티즌추천순, 이름순, 신규등록순 탭 상위 20위까지 제한	-추천점수순, 신규등록순,이름순 탭 상위 20위까지 제한
9.검색의 효율성 1)검색 옵션 2)컨텐츠 수의 명시	1)-일부 컨텐츠 수가 많은 디렉토리에 검색 옵션 필요(한식)	1)-음식점 종류에 따른 검색 옵션 필요 -검색 결과의 두 번 째 페이지부터, 정보 조회 후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오는 오류	1)-향후 일부 컨텐츠 수가 많은 디렉토리 관리를 위해 검색 옵션 필요	2)-컨텐츠 수 명시 필요

출처: 연구자 정리

앞서 살펴본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동일하게, 12개 항목 중 ‘유지관리성·최신성’을 제외하고는 4개 사이트 모두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빈도수가 높은 주요 공통된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디렉토리 계층의 부족으로 인한 하위 컨텐츠의 효율적인 검색과 컨텐츠 수 조절의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1~2단계의 짧은 계층으로 구성되다 보니, 방대한 컨텐츠 수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한식과 양식과 같이 주요 세부 메뉴가 많은 음식점의 상세한 검색이 불가능하다. 보유 컨텐츠가 많은 디렉토리는 계층을 적절히 생성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및 ‘기타’ 디렉토리의 부재로 인한 문제이다. 비슷한 개념의 디렉토리는 통합하고, 대분류로 독립시켜야 할 대표 메뉴는 디렉토리를 추가

생성하여 디렉토리의 폭이 모든 주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위적인 시설인 음식점은 반드시 ‘기타’ 범주를 두어, 기존 범주로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모두 포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콘텐츠의 과도한 중복성 문제이다.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네티즌 추천 맛집 등의 중복된 디렉토리가 동위에 놓여있고, 추천순, 조회순, 네티즌추천순, 신규등록순 등의 탭이 중복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슷한 탭은 하나로 통합하고, 추천순 및 조회순 등의 유동적인 순위 탭은 상위 20위 정도까지 제한하여 간결한 구성을 하도록 한다.

넷째, 디렉토리 및 콘텐츠 배열에 자모순 등 정보검색에 도움이 되는 일관된 배열이 필요하다. 4개 사이트 모두 자모순이 기본설정으로 되어있지 않아, 1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검색 결과가 나오는 디렉토리는 결과 내 재검색이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상,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공통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 문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 부분은,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중복성’,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등으로, 12개 항목 중 ‘유지관리성·최신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현행 관광정보사이트의 주요 디렉토리 전반에 걸쳐 분류체계에 대한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검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 분류체계 개선 안

앞서 살펴본 4개 관광정보사이트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보검색을 위한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것은 연구과제 3(효율적인 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 설계를 위한 분류체계의 종합적인 개선 안을 제시한다.)에 대한 사항이다.

첫째, 디렉토리의 수평적 측면을 고려하여 모든 주제를 빠짐 없이 포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분류를 이루는 각 디렉토리가 서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예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아래 ‘체험관광’과 ‘테마관광’이 동일 선상에 놓여 있어 그 하위 디렉토리나 콘텐츠의 분류에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분류체계 구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신동민(2001), 박철완(2006) 등의 분류체계를 연구하는 선행연구자 대부분이 중요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수평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대상의 모든 주제를 포괄할 수 있고 새로운 개념의 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기타’ 디렉토리를 적절히 두는 것이다. 기존 다른 분야의 선행연구(김소연, 2009; 박철완, 2001 등)에서는 ‘기타’ 디렉토리의 존재를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4개 관광정보사이트에는 서울특별시문화관광의 21개 지역에 ‘기타’ 디렉토리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기타’ 범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공의 시설물과 관련된 관광정보 디렉토리에는 ‘기타’의 범주를 생성하여, 계속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자원 시설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디렉토리의 수직적 측면으로, 관광정보량에 따라 디렉토리 계층(깊이)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4개 사이트는 대체적으로 1~2단계의 짧은 디렉토리 계층으로 이루어져 그 논리성이나 일관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보유한 관광정보 콘텐츠 수는 최대 8,500여개에 이르는 등 매우 방대한데 비하여, 계층의 깊이가 1~2단계로 짧아 최하위 디렉토리의 콘텐츠 수가 많아 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계층의 깊이를 1단계 정도 추가 생성하거나, 세부적인 검색 옵션을 두어 최종 콘텐츠 수에 균형감을 지키고 결과도 더 자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디렉토리 계층을 적절히 뚫으로써, 디렉토리 수 및 최종 콘텐츠 수가 평균값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 더욱이 최종 콘텐츠 수가 5개 이하인 채로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동위의 비슷한 디렉토리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대상 중에는, 보유 콘텐츠가 한 개도 없는 빈 대분류 디렉토리를 가진 사이트가 있었다.

셋째,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 그리고 적절한 용어 사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헌분류학자 Ranganathan(1967)은 전통적 문헌분류 이론에서 적절한 용어 사용을 분류체계를 표출하는 단계로 설명하며,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

4개 관광정보사이트의 분석 결과, 이 기준들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된 원천적 이유는, 대분류의 폭과 깊이의 조절이 적절하지 못해 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 명의 일치 및 용어 사용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 및 문헌분류 전문가가 정보 조직단계에 참여하여 디렉토리 하위 콘텐츠의 기본 틀을 만든 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테스트를 거쳐 정제된 결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 반영된 정보의 조직과, 명확하고 순화된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넷째,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에 적합하면서도 일관된 순서를 부여해야 한다. 검색되어 나온 최종 결과에 대하여 가독성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배열할 수 있어

야 한다. 4개 사이트 모두 자모순 등의 일반적인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추천순과 같은 의미 없는 배열을 사용하여 최종 검색 결과의 완성도를 떨어뜨렸다. 배열성은 분류체계 기본요건 중의 하나로, 앞으로 정보를 분류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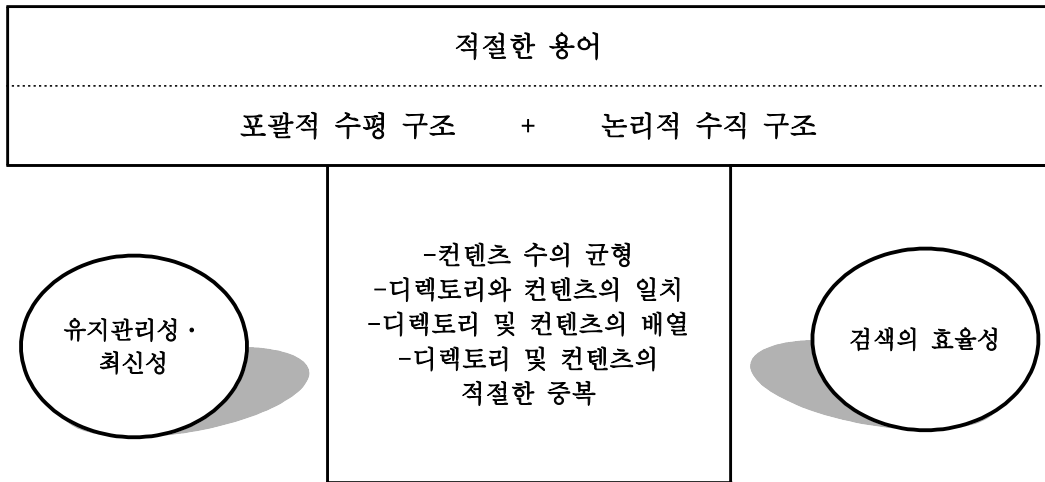
다섯째, 정보의 끊임 없는 유지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터넷 관광정보는 정보의 명확성과 신속성이 정보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과 품질 측정 관리로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유지관리를 계속하여 사이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디렉토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검색 옵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디렉토리를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검색 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한 사이트 내에서 디렉토리화 정보들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체계를 지키며 간결한 홈페이지 구성에 주의를 기울인다. 전통적인 문헌분류에서 인터넷 환경으로 분류체계가 옮겨오면서, 정보의 중복성은 절대 배제보다는 효율적인 검색을 도우며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긍정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정보를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거나, 이로 인하여 지나친 정보의 중복성과 페이지의 낭비가 이어진다면 효율적인 검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위 일곱 가지 개선 안이 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 분류체계 구축에 반영이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관광정보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 그림은 효율적인 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 구축을 위한 모형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고유경·윤춘섭(2001)의 ‘효율적인 검색 디렉토리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를 참고하고, 위 일곱 가지 개선 안을 반영한 설계 모형이다.



\*디렉토리 구조

출처: 연구자 작성

<그림 4-3> 인터넷 관광정보 디렉토리 설계 모형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직접 필요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키워드 검색과, 웹사이트에서 구축한 지식 범주 구조를 통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해 나가는 디렉토리 검색 방법이다. 디렉토리 검색은 새로운 지식정보에 한 단계씩 접근하면서, 관련한 다양한 정보자원을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조직적이지 못한 정보의 저장, 유통 및 키워드 중심의 검색 행태를 보완하고 검색효율을 제고키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포털사이트에서는 조직화된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한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렉토리 서비스는 키워드 검색 결과를 확장, 세분화 해주고 인터넷 정보자료를 주제별로 브라우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는 반면, 비논리적인 분류체계나 작업상의 오류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김성원, 2005).

인터넷 정보의 분류체계는 정보검색자가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설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미 여러 선행연구자들에 의하여 포털사이트의 디렉토리 서비스 분류체계는 물론, 문헌정보학·교육학·지리학·군사학·건축학·인터넷서점·인터넷쇼핑몰 등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들을 정립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관광학 및 관광정보의 분류체계 연구는 관광정보사이트들이 활발히 운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하나의 학문으로 접근하여 진지하게 연구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는 현실이다. 과거 관광자원 및 레저산업의 분

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초반, 소수의 학자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그 이후의 연구는 최근 십 여 년 간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을 본격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전국의 관광자원 및 관광지식정보의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관광자원 및 정보의 관리를 위한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대다수의 관광정보사이트들이 이 분류방식을 답습하거나 기본으로 하여 사이트의 디렉토리로 활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분류방식은 관리를 위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관광정보 검색의 실질적 편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관광정보사이트들의 디렉토리 서비스는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질적 사용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채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관광정보 분야의 분류체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12개 분류체계 기준 항목들을 선정하였고,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들의 관광정보 관련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분류체계에 대하여 탐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울특별시문화관광 ‘iTourSeoul’,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강원관광’ 등 모두 4개이다. 여러 관광정보 디렉토리 가운데 심층적으로 분석한 디렉토리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 ‘음식점 정보’ 부분이다. 분류체계 기준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항목들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총 9개 주제의 12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첫째,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둘째,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디렉토리의 포괄성,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셋째, 콘텐츠 수의 균형성

넷째,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다섯째,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디렉토리의 배열성, 콘텐츠의 배열성)

여섯째, 용어의 적절성

일곱째, 유지관리성 · 최신성

여덟째, 중복성

아홉째, 검색의 효율성(검색 옵션, 콘텐츠 수의 명시)

위 12개 항목의 기준들로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의 관광정보 디렉토리를 분석한 종합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 디렉토리 계층의 적절성

4개 사이트 대부분이 1~2단계 계층으로 깊이가 얇게 구성되었다. 2단계는 1단계 대분류를 관광자원의 특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계층이 워낙 얇아 상하위 항목 전개가 점진적이고 인과관계가 논리적인지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계층이 얇으면 광범위한 콘텐츠를 포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디렉토리 수가 많아지게 된다. 대체적으로 디렉토리 1단계 계층의 추가 생성이 필요하다.

#### 2)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 2.1) 디렉토리의 포괄성

관광자원과 음식점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가의 문제이다. 관광정보사이트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이트가 ‘기타’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인위적인 시설물의 경우는 ‘기타’를 둘 필요가 있다.

##### 2.2) 디렉토리 폭의 적절성

동위 디렉토리 중, 경계가 불분명한 범주가 일부 존재하였다. 그런 경우, 개인의 인지에 따라 검색해 나가는 과정이 혼선을 빚을 확률이 높다. 비슷한 개념의 디렉토리는 통합하고, 하위에 디렉토리를 생성하여 구분한다.

### 3) 콘텐츠 수의 균형성

다른 디렉토리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콘텐츠를 포함한 디렉토리는, 세부 주제별로 하위 디렉토리를 구성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검색 옵션을 설정하여 검색되어 나오는 콘텐츠 수의 부담을 줄이고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4개 사이트 모두 고려해볼 문제가 많은 부분으로, 디렉토리의 계층과 폭이 적절치 못할 경우에 이 부분에 오류가 생기기 쉽다. 디렉토리와 하위 콘텐츠를 구성할 때, 논리적인 생각과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구성해야 한다.

### 5)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대부분의 사이트가 콘텐츠 배열성에 문제가 있다. 기본 설정으로 자모순 배열 원칙이어야 하며, 복수 주제를 하나의 디렉토리로 구성하였을 경우, 콘텐츠의 종류(근린공원, 주제공원, 생태공원 등)에 따른 배열성도 필요하다.

### 6) 용어의 적절성

표기법에 맞지 않은 구어체, 우리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의 외래어 사용을 순화하여 국가, 시, 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 7) 유지관리성 · 최신성

대부분의 사이트가 콘텐츠에 정보의 최초 등록일 및 수정일, 정보 관리자를 명시하였고, 비교적 꾸준한 자료의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 8) 중복성

일부 사이트는 중복되는 검색 탭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추천순], [조회순]의 일



원화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의미 없는 정보의 중복과 페이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 상위 10위~20위 정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 9) 검색의 효율성

### 9.1) 검색 옵션

디렉토리 계층(깊이)과 폭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디렉토리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콘텐츠 수가 많을수록, 검색 옵션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 9.2) 콘텐츠 수의 명시

콘텐츠 수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에 명시하는 것은, 정보검색자에게 검색 결과의 규모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강원관광’을 제외한 사이트들은 최종 콘텐츠 페이지에 콘텐츠 수를 명시하였다.

위 디렉토리 분석 결과,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 및 분류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4개 사이트 공통적으로 효율적인 분류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12개 항목 기준들 중,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디렉토리 및 콘텐츠의 배열성’, ‘중복성’이 문제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들의 현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홈페이지의 외양이 화려해지고 보유 콘텐츠도 다양해졌지만, 정보 분류와 검색의 기초가 되는 분류체계에는 주의를 덜 기울였다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12개 항목의 분류체계 기준들은 그 개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 기준이 맞지 않게 되면 다른 기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 이루어진 분석을 종합하여 앞으로 국내 관광정보사이트의 디렉토리 분류체계 구축 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관광정보 디렉토리의 깊이와 폭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정보검색자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면, 정보검색자의 평균 디렉토리 향해 횃수는 3~5번 정도이며, 최종 콘텐츠 수는 20~30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디렉토리의 깊이와 폭이 적절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디렉토리 구조 및 분류체계에 어긋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디렉토리를 표출하는 언어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이므로, 전문용어 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인 동시에, 순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하위 콘텐츠를 충분히 포괄하며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 디렉토리 명을 설정하여야 정보검색자가 혼돈 없이 검색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류체계를 돕는 다양한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링크와 배너 등 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검색 옵션과, 콘텐츠의 효율적인 배열 방법이다.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세부 검색 옵션은, 한정된 깊이와 폭 등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디렉토리 기능의 검색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검색되어 나온 콘텐츠들을 정보검색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모순 및 조회순 등 배열 순서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페이지를 나열함으로써 분류체계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 1. 연구의 시사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학문 및 특정 분야의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대다수의 산업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연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명확하고 신속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정보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 관광정보 분야는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물론 최근 5년 동안 관광자원의 분류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관광정보사이트의 품질에 대한 연구는 맥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트 품질 측정 요인인 콘텐츠 양과 질, 정보의 정확성 등에 못지않게 디렉토리 설계의 기초가 되는 분류체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의 관광정보 디렉토리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4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효율적인 분류체계의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일부 기준항목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중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 기준이 4개 사이트 모두 문제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분류체계 기준으로 삼은 9개 기준 12개 항목은 그 개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 기준이 어긋나면 다른 여러 개의 기준도 어긋나게 되는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대분류의 폭과 깊이 분류가 잘못되면 ‘디렉토리 명과 하위 콘텐츠의 일치성’과 ‘용어의 적절성’에까지 잘못된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분류체계의 마지막 완성단계이며,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고 할 수 있는 ‘배열성’이 예상보다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들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홈페이지의 외양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화려해지지만, 정보 검색 및 자원 분류의 기초가 되는 분류체계에는 주의를 덜 기울였다는 사실의 입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앞으로의 관광정보사이트 디렉토리 구성 및 분류체계 구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인터넷 관광정보의 구성요소 중, 분류체계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광학자들은 관광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관광정보사이트 품질 측정 시, 분류체계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990년대 후반 이후 맥이 끊긴 국내 관광자원 및 관광정보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를, 급변하는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인터넷 환경에서 효율적인 관광정보 분류체계 기준을 재고하고 제시하였다는데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분석대상으로 국내 주요 4개 관광정보사이트들만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4개 사이트는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전국,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국가·시·도)에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또, 새로운 정보의 등록과 갱신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이트이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정보사이트들과, 네이버나 야후 등 일반 포털사이트의 관광정보 디렉토리도 중요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관광정보사이트들과 포털사이트의 관광정보 분야까지 확대하여, 더 큰 인터넷 환경을 대상으로 연구하도록 한다.

둘째, 실질적으로 ‘관광지 및 관광자원’과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동일한 사이트지만 대분류에 따라 디렉토리 계층과 폭, 용어, 논리성 등 주요 분류체계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향후 ‘숙박’과 ‘쇼핑’ 등 보다 다양한 디렉토리들을 분석대상으로 확대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디렉토리의 분류체계 외에 다양한 링크와 배너 등의 인터페이스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인터넷 사이트는 디렉토리 서비스 외에도, 외부 정보로의 링크, 배너, 팝업창, 게시판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분류체계 이외에 효율적인 정보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페이스 요소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사이트 이용자, 즉 정보검색자의 사이트 이용행태를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고 탐색적인 연구만을 행한 점이다.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과, 잘못된 분류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한 허용범위 등 분류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검색자의 실제 이용행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문헌분류 전문가와 관광정보 전문가의 의견이 뒷받침되어야 보다 완전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다섯째, 9개 주제의 12개 항목 분류체계 기준들 이외에 검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정보 분류체계 및 디렉토리 서비스에 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상 다섯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관광학 및 관광정보 분야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류체계 설계요건의 확립 및 분류체계의 표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분류체계의 표준화 개발은 보다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 인터넷 관광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유경·윤춘섭(2001). 건축 전문 포털 사이트의 디렉토리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학술연구 발표논문집』,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21(2), 1-4.
- 곽철완(2001).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4), 201-215.
- \_\_\_\_\_(2006). 인터넷 지리정보 체계화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255-272.
- 김계섭(1988). 관광자원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여가 레크리에이션 연구』, 103-119.
- 김명옥(1989). 자료분류법. 구미무역(주) 출판부.
- \_\_\_\_\_(2007). 기독교 분야 웹문서 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비교 분석적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127-144.
- 김성원(2005).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 분석 및 중개 게이트웨이 모형 구축: 주요 검색포털의 뉴스,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성희(2002). 인터넷상의 디지털 문화컨텐츠 분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181-200.
- 김영보(1997). 인터넷 탐색엔진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컴퓨터·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_\_\_\_\_(1998). 인터넷 탐색엔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 8, 197-227.
- 김정현·문지현(2002). 농학분야 인터넷자원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3), 393-414.
- 김철원(1999).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조사표 작성 및 활용방안. 『정책연구보고서』, 99-07.
- 김형년(2004).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의 디자인 관련 디렉토리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인포디자인이슈』, 6, 95-106.

- 사공철(1986).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 류병찬(2007). 지적관련 문헌분류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23(2), 75-85.
- 박소연(2009). 주요 포털들의 디렉토리 서비스 비교 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215-234.
- 박창호·염성숙·이정모(2000).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분류체계가 분류 검색에 미치는 효과. 『인지과학』, 11(1), 47-65.
- 배영환·오동근·여지숙(2008). 인터넷포털과 인터넷서점의 어린이자료 분류시스템의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321-344.
- 배희진·이준호·박소연(2004). 로그 분석을 통한 네이버 이용자의 디렉토리 접근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1-17.
- 신동민(2001). 인터넷 검색엔진의 디렉토리 구성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2), 143-163.
- 오동근(1994). Ranganathan의 문헌분류에 관한 규범적 원칙. 『도서관학논집』, 21, 195-229.
- 오동근·황재영·배영환(2001). 군사학 분야의 웹 문서 분류체계의 설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2): 323-347.
- 우찬복(2003). 웹사이트 평가지표에 기초한 지역축제 웹사이트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 이란주(2001). 인터넷 서점의 효과적인 웹사이트 설계에 관한 연구.
- 이란주·성기주·양정하(2001). 여성학분야 인터넷 자원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397-417.
- 이명희(1997).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주제별 디렉토리 와 키워드 검색엔진의 검색효율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2), 177 -197.
- 이명희(2000). 국내 디렉토리 검색엔진의 교육분야 분류체계 연구. 『국회도서관보』, 37(2): 25-46.
- \_\_\_\_\_(2004). 웹문서의 분류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9.
- 이영선(2000). 문헌 분류체계를 적용한 학술전문 포털사이트의 디렉토리 서비스에 관한 연구: 약학 분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창수(2000). 정보통신기술분야 인터넷자원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4): 111-138.
- 이홍용(1997). 『(객관식)분류론: KDC 4판 수록 요점정리 및 해설』, 서울: 도서출판

훈민.

- 이흥윤(1998). 레저산업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53-71.
- 정경희(2004). 의학분야 웹 자료의 분류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2): 89-106.
- 최정태 · 양재한 · 도태현(1998). 『문헌분류의 이론과 실제』, 부산: 부산대출판부.
- 최재황(1998). 인터넷 학술정보자원의 디렉토리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DDC 분류체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5(2): 47-67.
- 최희운(1998).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한 비교연구: 물리학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5(3): 45-71.
- \_\_\_\_\_ (2002). 디지털도서관과 지식관리시스템의 비교 분석을 통한 지식관리 통합모형 구현. 『정보관리학회지』, 19(4).
- 한상길(2001). 산업분야 인터넷 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3): 285-309.
- 한희영(1984). 『상품학총론』, 서울: 삼영사 202-203.

## <국외문헌>

- Carroll. J. M., & Mark. R. L.(1983). Actively learning to use a word processor. In W. E. Cooper. *Cognitive aspects of skilled typewriting*. 259-282. Berlin: Springer. 재인용: 박창호 · 염성숙 · 이정모(2000).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분류체계가 분류 검색에 미치는 효과. 『인지과학』, 11(1), 47-65.
- Dahlberg, Ingtraut.(1995). The Future of Classification in Library and Networks, a Theoretical Point of View.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21(2): 23-35.
- Koch, Traugott.(1997). The Role of Classification Schemes in Internet Resource Description and Discovery. [2009.1.19, 2003.9.2].  
<<http://www.unkoln.ac.uk/metadata/desire/classification/classification.rtf>>.  
<<http://www.lub.lu.se/desire/radar/reports/D3.2.3/>>.
- Lancaster(1998) \_\_\_\_\_



- Markey, Karren & Demeyer, Ahn N.(198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Online Project: Evaluation of Library Schedule and Index Integrated into the Subject Searing Capabilities of an Online Catalogue. Dublin, Ohio: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Quoted in Vizine-Goetz, Diane. 1996. "Using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s for Internet Resources". In Proceedings of The OCLC Internet Cataloging Project Colloquium. [2003.09.03]. <<http://staff.oclc.org/~vizine/InterCat/vizinegoetz.htm>>. 재인용: 김성원(2005).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 분석 및 중개 게이트웨이 모형 구축: 주요 검색포털의 뉴스,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Molhot, Pat(1995). Qualities of Classification Schemes for the Information Highway.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Quarterly*, 21(2):19-22.
- Open Directory Editorial Guidelines - Subcategories 2005. [2005.01.20] <<http://dmoz.org/guidelines/subcategories.html#creating>>. 재인용: 김성원(2005).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 분석 및 중개 게이트웨이 모형 구축: 주요 검색포털의 뉴스,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1989). Oxford: Clarendon Press.
- Ranganathan, S. R.(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Bombay: Asia Publishing. House.
- Rosenfeld, L., and Morville, P.(2003). 『효율적인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남상신 역. 서울: 한빛미디어(원서출판 2002).
- Sayers, W. C. Burwick(1967). A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4th ed. 17-18.
- \_\_\_\_\_ (1975). Sayers' Manual of Classification for Librarians. London: Deutsch.
- Svenonius, Elaine(1983). Use of Classification in Online Retrieval.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7(1): 76-80.
- Vizine-Goetz, Diane(1983). 재인용: 인터넷 탐색엔진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컴퓨터·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Vizine-Goetz, Diane(1996). Using Library Classification Schemes for Internet

Resources. In *Proceedings of The OCLC Internet Cataloging Project Colloquium*. [2003.09.03]. <<http://staff.oclc.org/~vizine/InterCat/vizine-goetz.htm>>.

재인용: 김성원(2005). 디렉토리 서비스의 분류체계 분석 및 중개 게이트웨이 모형 구축: 주요 검색포털의 뉴스,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_\_\_\_\_(2002). Classification Schemes for Internet Resources Revised. *Journal of Internet Cataloging*, 5(4):5-18.

Wallace, J. & Burden, P.(1995). Toward a classification-based approach to resource discovery on the Web. Wolverhampton: University of Wolverhampton, School of Comput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http://www.scit.wlv.ac.uk/wwwlib/position.html>>

Zins, Chaim(2002). Models for Classifying Internet Resources. *Knowledge Organization*, 29(1): 20-28.

## <인터넷 사이트>

### 1. 분석 대상 관광정보사이트

사이버강원관광(2010년 9월~11월). [www.gangwon.to](http://www.gangwon.to)

서울특별시 문화관광(2010년 9월~11월). [www.visitseoul.net](http://www.visitseoul.net)

제주특별자치도(2010년 9월~11월). [www.jejutour.go.kr](http://www.jejutour.go.kr)

한국관광공사(2010년 9월~11월). [korean.visitkorea.or.kr](http://korean.visitkorea.or.kr)

### 2. 참고 사이트

관광지식정보시스템(2010년 9월). [www.tour.go.kr](http://www.tour.go.kr)

네이버 국어사전(2010년 9월). <http://krdic.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2010년 10월). <http://100.naver.com>

네이버 용어사전(2010년 10월). <http://term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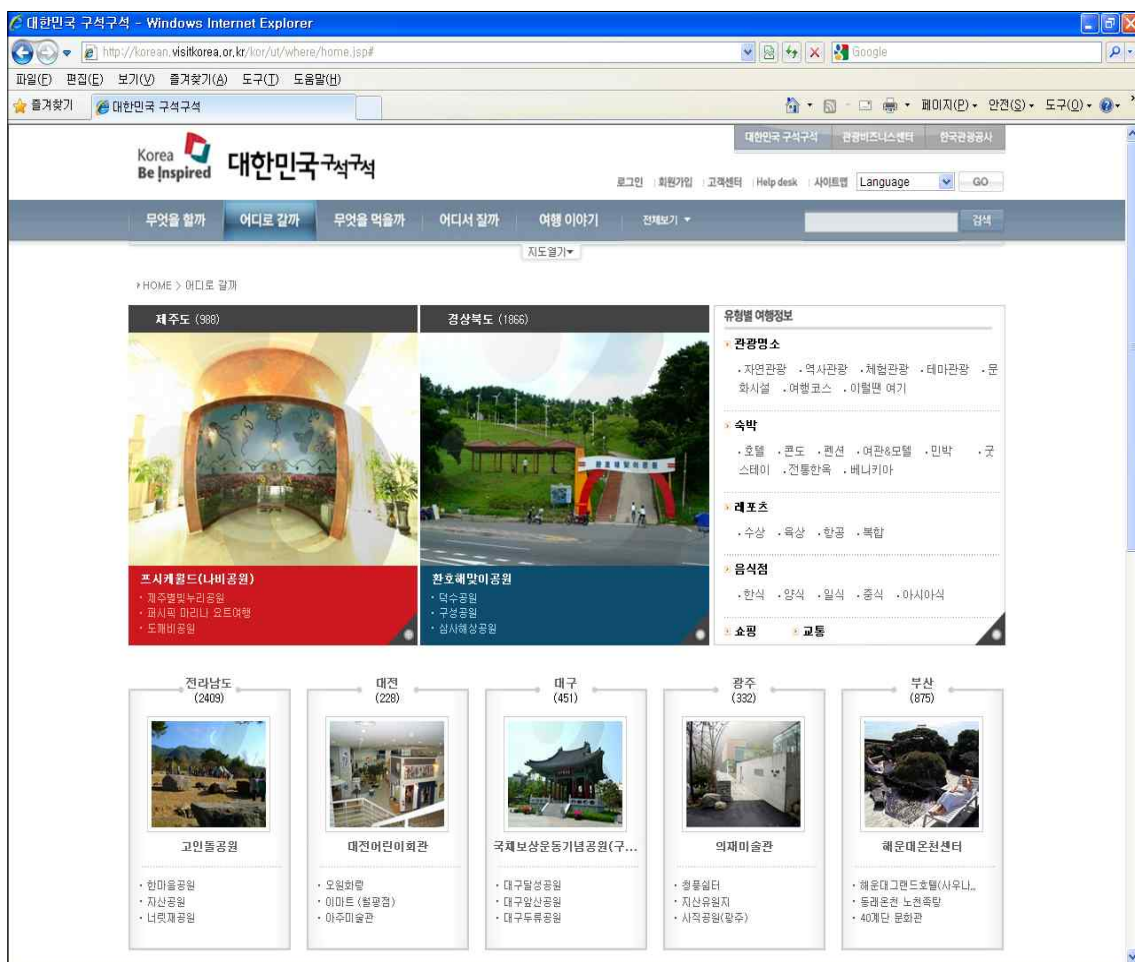
두산백과사전(2009년 5월). EnCyber & [Encyber.com](http://Encyber.com)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08년 12월). 제주도, 통영시 최우수 관광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정. <http://kto.visitkorea.or.kr>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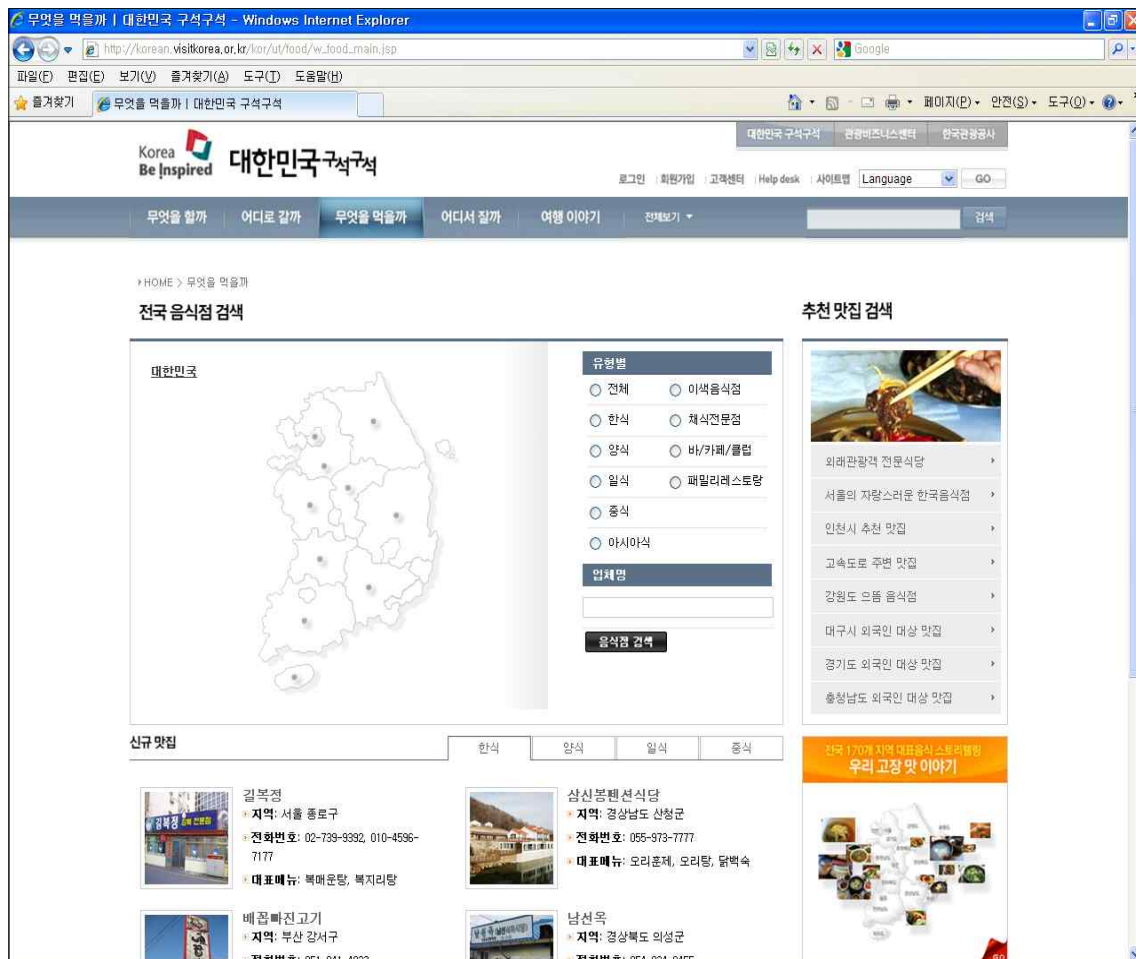
### 1. 관광정보사이트 화면

#### 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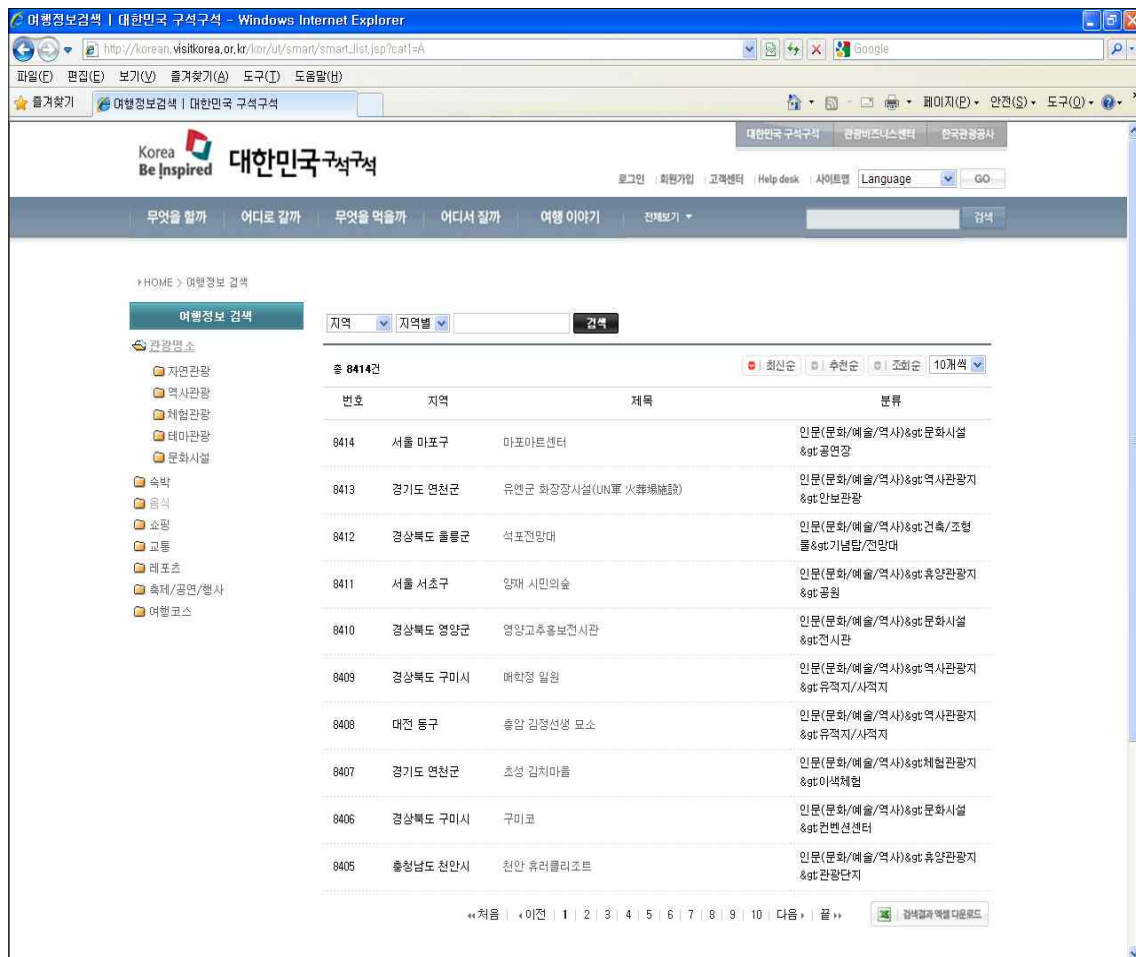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2010년 12월 검색 화면.

<그림 4-4>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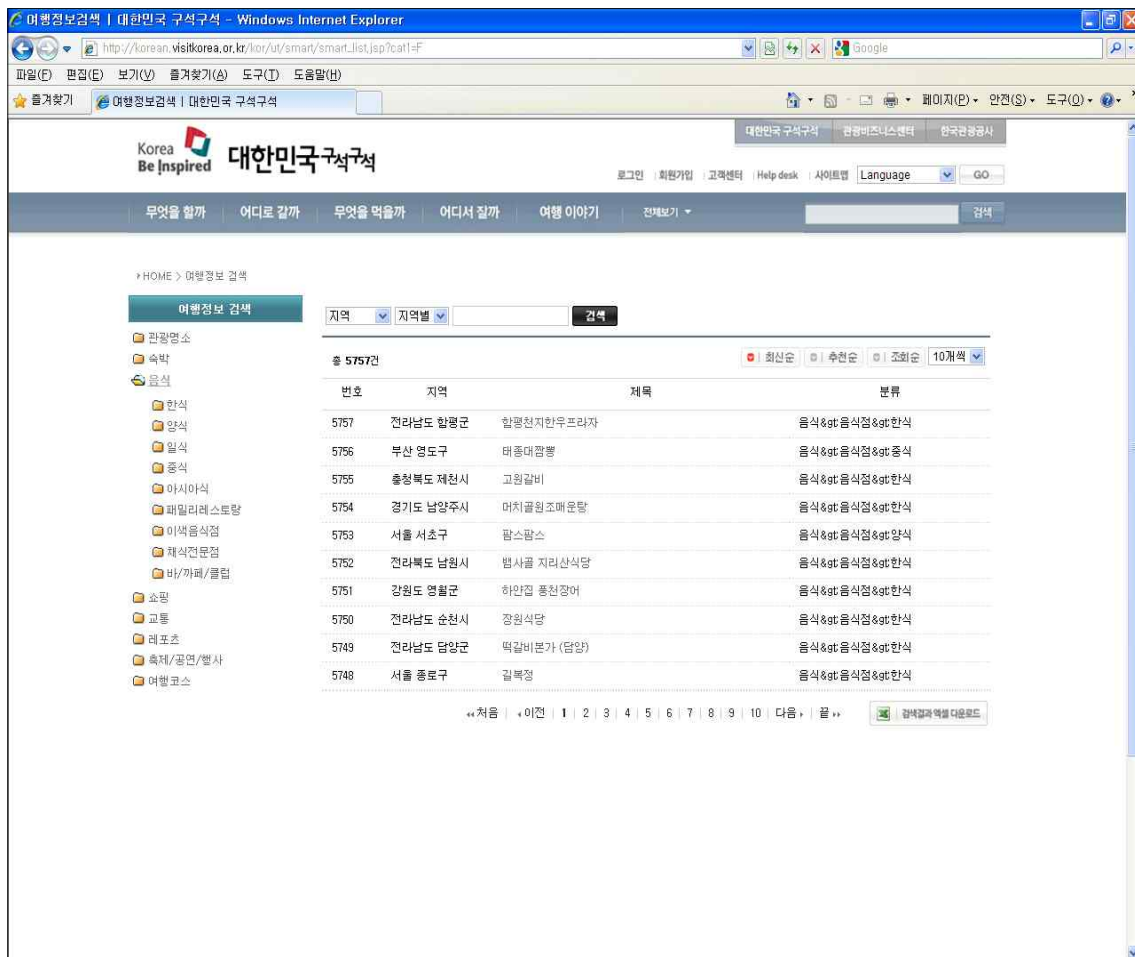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2010년 12월 검색 화면.

<그림 4-5>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2010년 12월 검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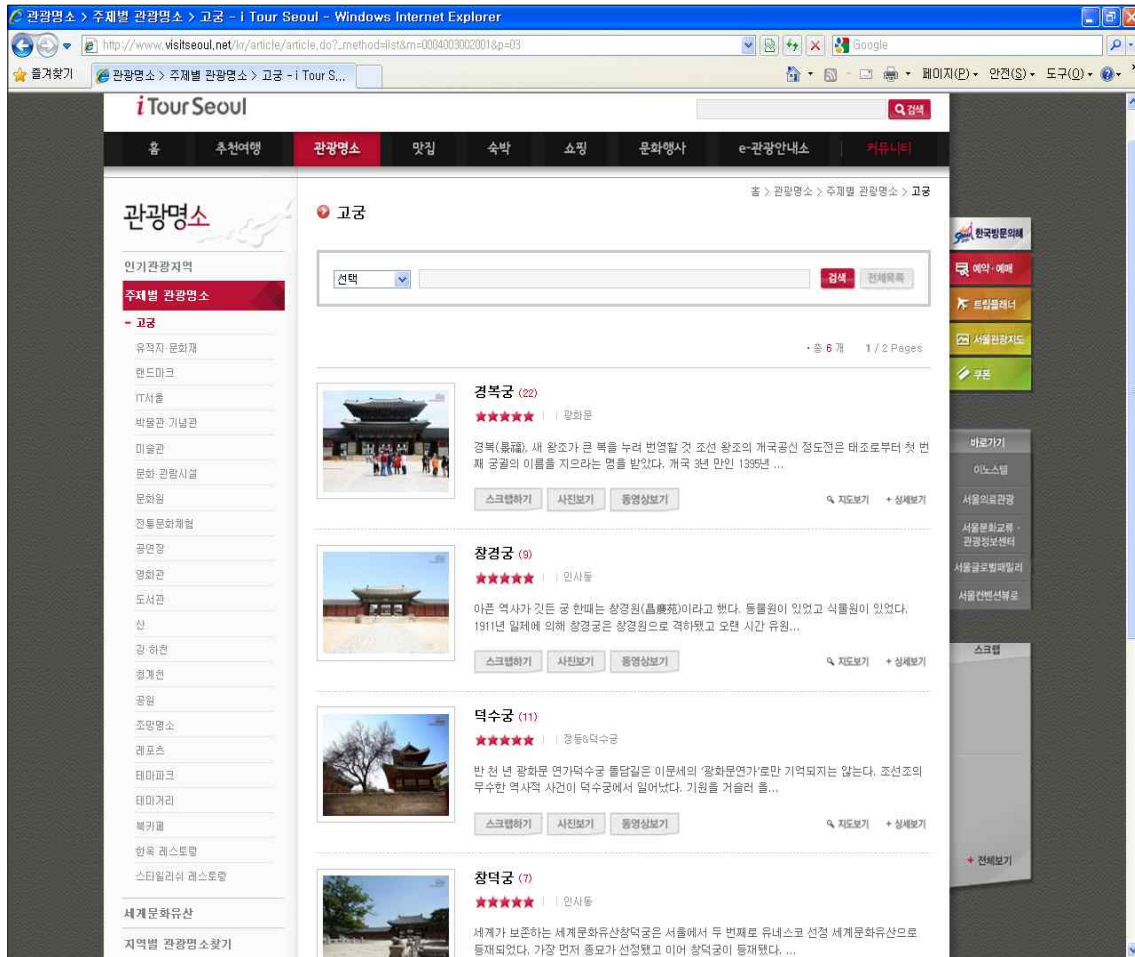
<그림 4-6>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구성 화면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2010년 12월 검색 화면.

<그림 4-7>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구성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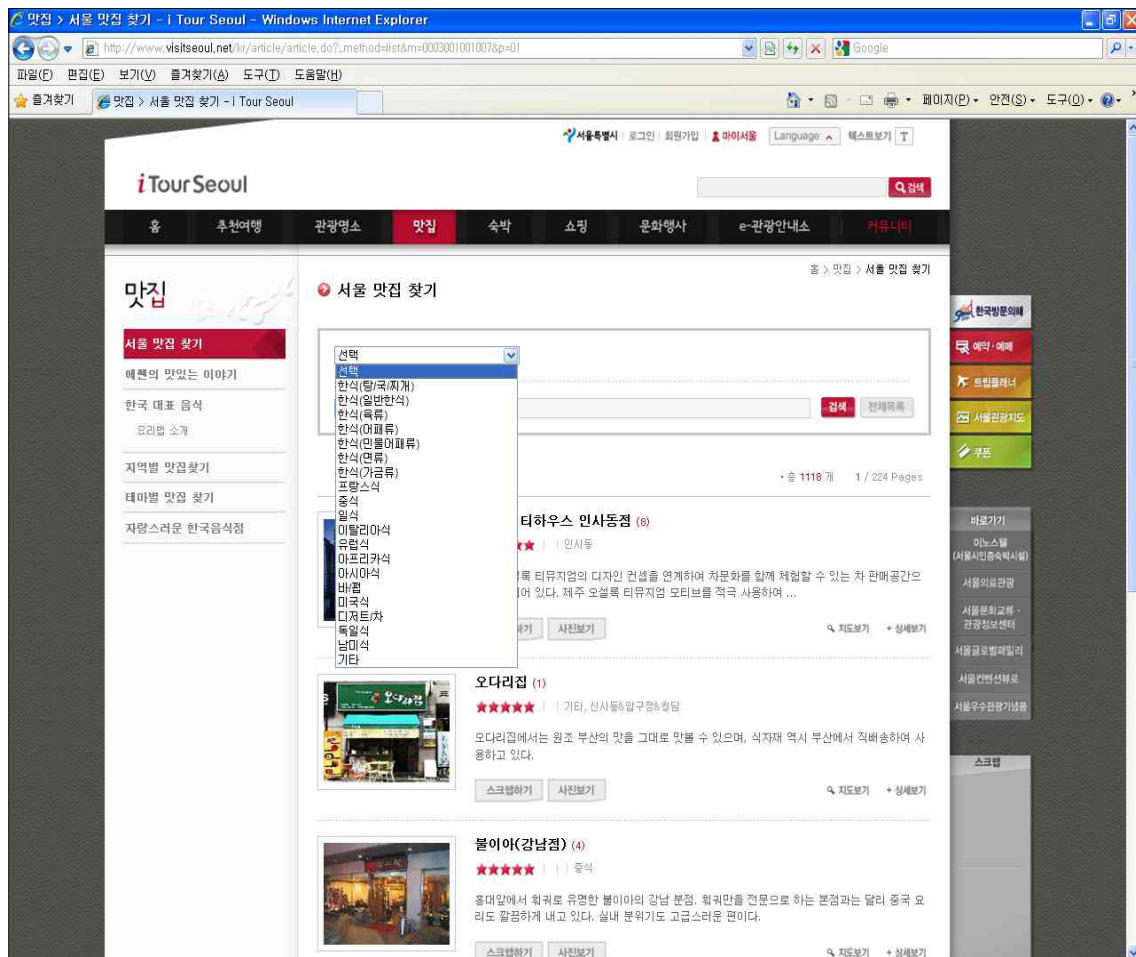
## 나.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iTourSeoul'



출처: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iTourSeoul'(www.visitseoul.net). 2010년 12월 검색 화면.

<그림 4-8>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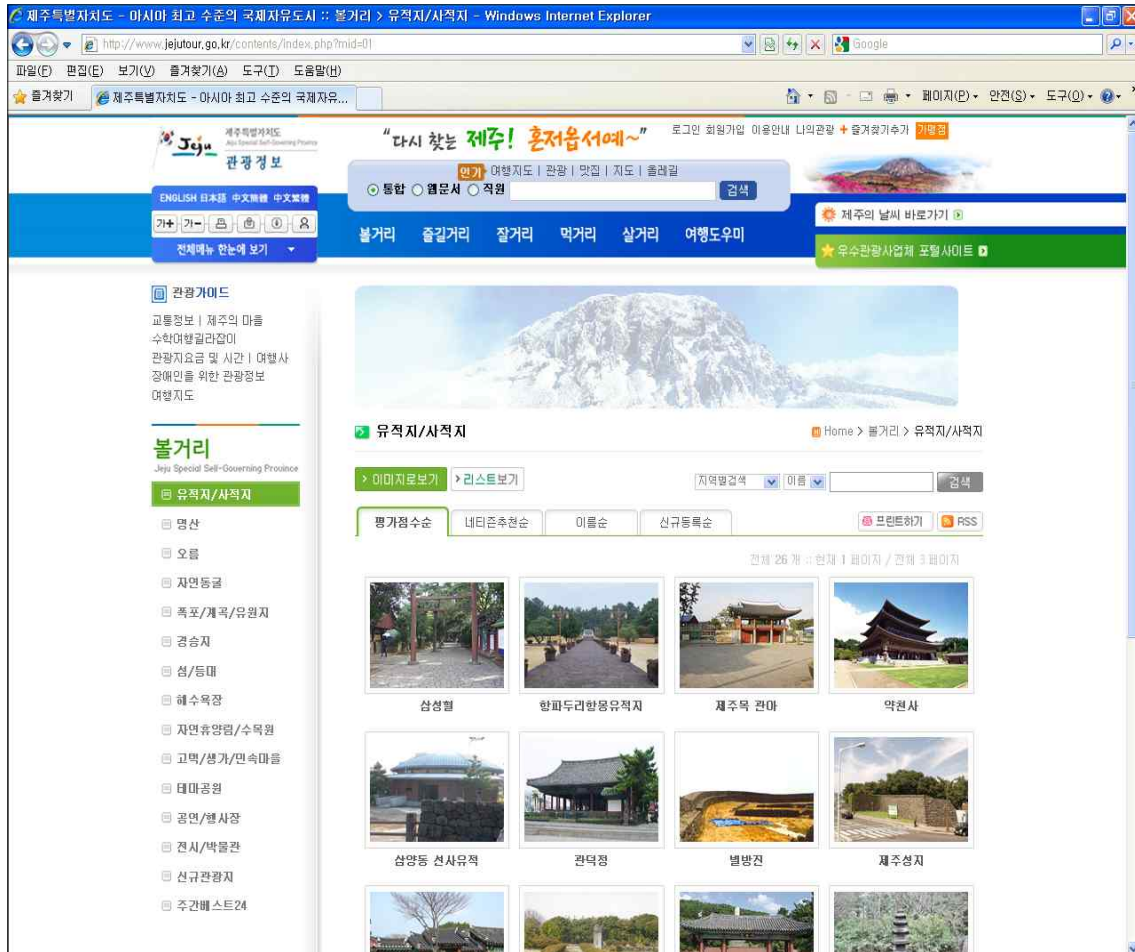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iTourSeoul'(www.visitseoul.net). 2010년 12월 검색 화면.

<그림 4-9>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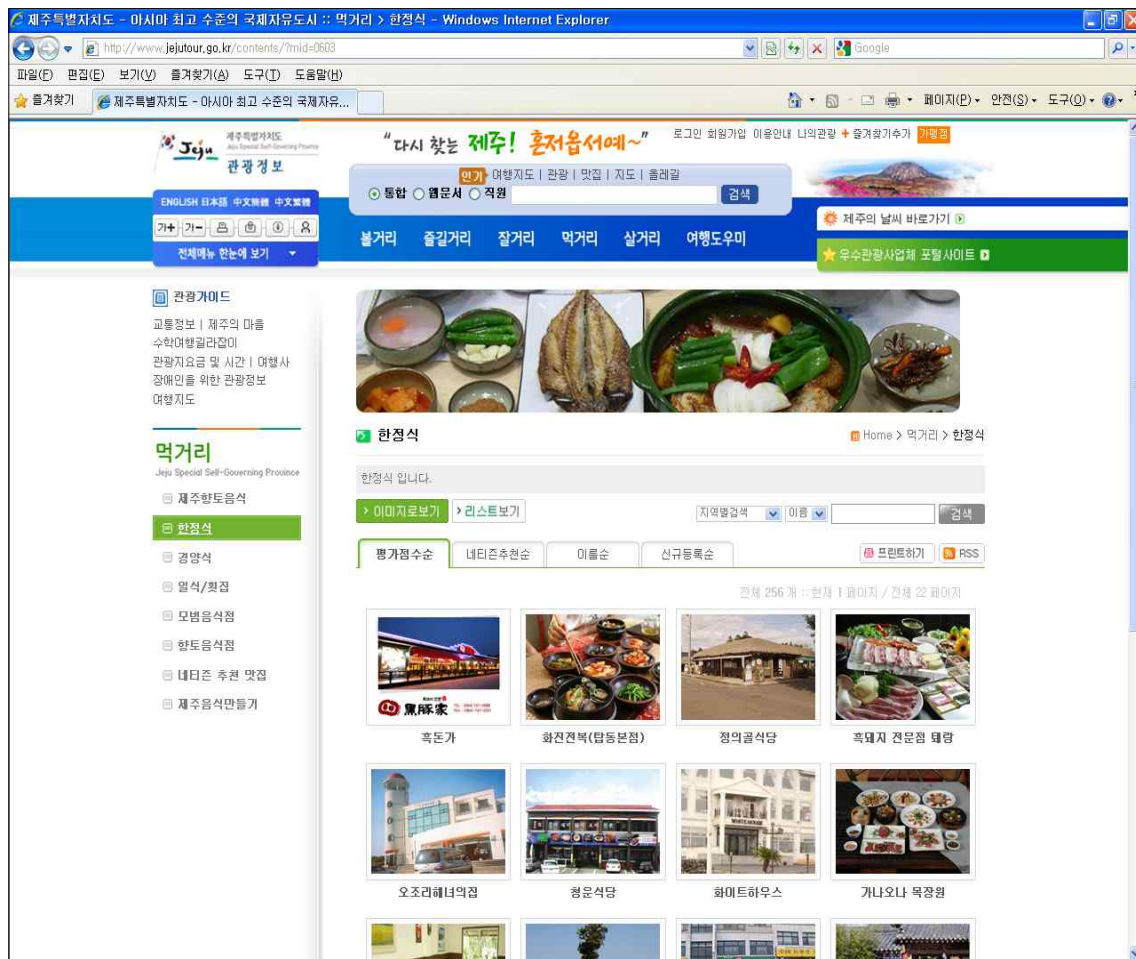


## 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www.jejutour.go.kr). 2010년 12월 검색 화면.

<그림 4-10>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출처: 제주특별자치도(www.jejutour.go.kr). 2010년 12월 검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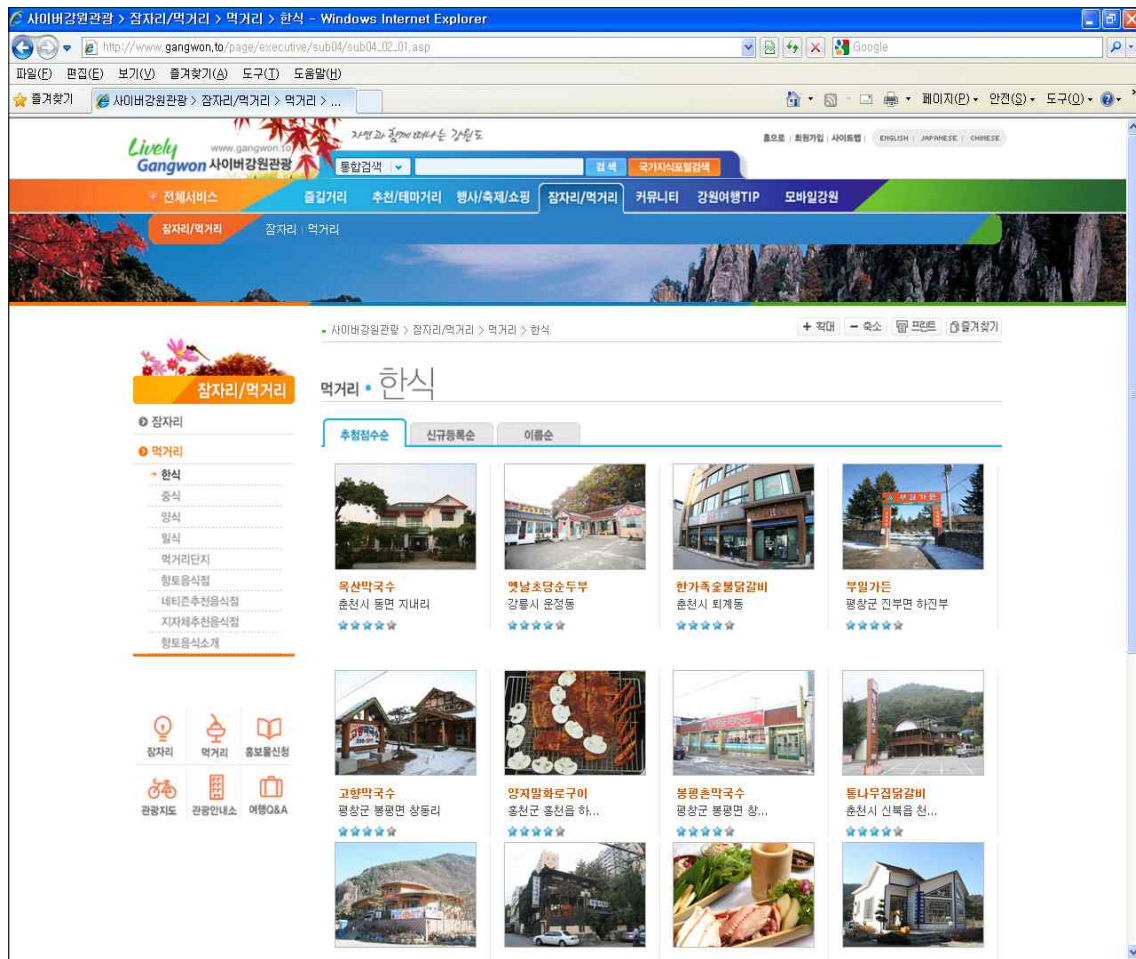
<그림 4-11>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 라. 사이버강원관광



출처: 사이버강원관광(www.gangwon.to). 2010년 12월 검색 화면.

<그림 4-12> 관광지 및 관광자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출처: 사이버강원관광(www.gangwon.to). 2010년 12월 검색 화면.

<그림 4-13> 음식점 정보 디렉토리 메인 화면

## 2. 2008 지자체 관광홈페이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sup>82)</sup>

### I. 평가 방향

첫째. 관광정보에 지역적 관광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관광 정보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제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 전체적으로 관광 정보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자 함.

둘째. 관광 안내나 음식/숙박 시설 정보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여행 안내 정보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고자 함.

셋째. UCC코너나 여행 후기 코너에 사용자 참여가 활발한가를 평가하고자 함.

넷째. 콘텐츠의 주기적인 점검이나 사용자 질의에 신속한 응대 등 사이트 운영 관리 수준은 적절한지를 평가하고자 함.

다섯째. 화면 구성 요소의 간결성이나 지역적 특색이 사이트 디자인에 잘 반영되었는가 등 디자인 구성의 적절한지를 평가하고자 함.

여섯째. 외국인의 눈 높이에 맞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기능을 조작하는데 용이한지 등 사용자 편의성이 적절한가를 평가하고자 함.

---

82) 한국관광공사(2008-05-30) [공고/공모] 지자체 관광분야 홈페이지 평가 및 개선 계획 공고\_담당부서 E-Tourism 기획팀([http://kto.visitkorea.or.kr/kor/ks/content/cms\\_view\\_567496.jsp](http://kto.visitkorea.or.kr/kor/ks/content/cms_view_567496.jsp))



## II. 1차 평가 (배점: 100점)

1. 국문/외국어 평가 지표 (배점: 100점 = 국문 90점 + 영어 10점)

가. 평가 기준 및 가중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항목
항목	비율	항목	비율	항목	비율	평가항목 (가이드라인)
관광 정보	30 %	관광/레저 정보	30%	콘텐츠	60 %	소개/요금/찾아가는 방법/약도/부가정보
				사용자 편의성	40 %	조화성/기능성/연계성/명확성/가독성
		테마관광 정보	20%	콘텐츠	60 %	다양한 정보/추천 정보/지역적 특색 정보/일정이나 코스 정보
				사용자 편의성	40 %	분류성/용이성/가독성/화면 구성 요소의 적절성
		문화관광 정보	10%	콘텐츠/사용자편의성	100 %	역사/전통문화/문화시설/유무형 문화재
		축제/행사 정보	20%	콘텐츠/사용자편의성	100 %	축제 검색/이달의 축제/축제 소개와 행사 프로그램/관련 축제 이미지나 동영상
		멀티미디어 관광정보	10%	콘텐츠/사용자편의성	100 %	e-Book 등 온라인 브로쉬어/포토갤러리/동영상/VR/지도
여행 정보	20 %	숙박/음식 정보	70%	콘텐츠/사용자편의성	100 %	분류 체계/지역적 차별 정보/지자체 추천 정보/네티즌 추천/시설 소개 정보
		여행 안내	30%	콘텐츠/사용자편의성	100 %	특산물/쇼핑/여행상식/관광안내소/관광 안내
사용자 참여	20 %	사용자 참여	100 %	콘텐츠/사용자편의성	100 %	UCC/여행후기/이벤트/네티즌평가/설문조사
운영 관리	10 %	홍보	40%	콘텐츠/사용자편의성	100 %	행정 포탈 사이트의 메인 메뉴에 관광정보 연계/관광 홍보물/관광 자료/관광 소식/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리	60%	콘텐츠/사용자편의성	100 %	Q&A/콘텐츠 정확성/게시판 관리/콘텐츠 업데이트 점검/연락처/FAQ
디자인	10 %	메인 페이지	20%	메인 페이지	100 %	메인 페이지에 주요 서비스 노출 여부
		디자인,	20%	디자인, 이미지.	100	디자인, 이미지, 색상에 지역적 특색 반영 여부

		이미지, 색상		색상	%	
		화면 구성 요소	20%	화면 구성 요소	100%	화면 구성 요소의 간결 여부
		일관성	20%	일관성	100%	일관성 있는 구조 제공 여부
		가독성	20%	가독성	100%	페이지 설계의 가독성 제공 여부
영어 서비스	10%	콘텐츠	60%	콘텐츠	100%	관광정보/전통문화 정보/멀티미디어 정보/향토 음식 정보/관광 안내 정보
		사용자 편의성	40%	사용자 편의성	100%	정보 전달의 이해성/디자인을 활용한 지역적 특색 반영 여부/정보 이용의 편의성/기능 이용의 편의성/운영 관리

#### 나. 세부 평가 항목

##### 1) 관광정보 평가 (대분류 가중치 30%)

중분류	비율	소분류	비율	평가지표
관광/레저 정보	30%	콘텐츠	60%	관광/레저 정보에 내용 제공이 충실한가
				관광/레저 정보에 요금 정보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관광/레저 정보에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관광/레저 정보에 약도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관광/레저 정보에 편의시설, 주차시설, 시설 안내 등 부가 정보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사용자 편의성	40%	관광/레저 정보에 이미지와 텍스트는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가
				관광/레저 정보에 이미지 확대 등 기능 제공은 적절한가
				관광/레저 정보에서 주변 관광 정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가
				버튼이나 아이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가
				가독성을 고려하였는가
테마관광 정보	20%	콘텐츠	60%	테마관광 정보에 다양한 테마관광 정보가 나타나는가
				이 달의 추천 테마관광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가
				테마관광 정보에 지역적 특색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테마관광 정보에 일정이나 코스 정보 등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체험 여행 정보에 지역적 특색이 잘 반영된 관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테마관광 정보 분류는 적절한가
				메인 페이지에서 이 달의 테마관광 정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테마별 관광지를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는가
				일정여행이나 코스 여행 정보에서 코스간 이동 경로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테마관광 정보에 다양한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는가
문화관광 정보	10%	콘텐츠/ 사용자편의성	100 %	문화관광 정보에 지역 역사 정보가 잘 제공되고 있는가
				문화관광 정보에 지역의 민요, 사투리, 속담, 전설 등 전통문화 정보가 잘 제공되고 있는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 정보에 관람 안내 정보가(관람시간, 문의처,개관시간 내외부 전경, 위치, 시설소개 등) 잘 나타나고 있는가
				문화관광 정보에 지역 문화재 정보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문화관광 정보에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정보나 유명문화재 정보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축제/ 행사 정보	20%	콘텐츠/ 사용자편의성	100 %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행사 정보를 월별이나 계절별 조회할 수 있는가
				지난 축제/행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가
				이달의 축제/행사 정보는 메인페이지에 잘 나타나고 있는가
				축제/행사 소개와 행사 프로그램이 축제/행사 정보에 잘 나타나고 있는가
				축제/행사 관련 이미지나 동영상 서비스 등이 축제/행사 정보에 잘 나타나고 있는가
멀티미디어 관광 정보	10%	콘텐츠/ 사용자편의성	100 %	지역 관광을 홍보하는 E-Book 서비스나 온라인 브로쉬어를 제공하고 있는가.
				포토갤러리 코너에 포토 확대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기능이 제공되어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가
				관광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VR 서비스 기능을 조작하는데 용이한가



				지도맵이나 지리정보 시스템을 조작하는데 용이한가
여행 계획 정보	10%	콘텐츠/ 사용자편의성	100 %	지역 관광지의 요금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가
				맞춤형 여행 계획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온라인 예약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혹은 온라인 예약 서비스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예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락처 등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지역 여행사 소개는 적절한가
				지역 여행 상품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 2) 여행 정보 평가 (대분류 가중치 20%)

중분류	비율	소분류	비율	평가지표
숙박/ 음식 정보	70%	콘텐츠/ 사용자편의성	100 %	숙박/음식 분류는 적절한가
				숙박/음식 정보에 지역의 특색 있는 숙박/음식 정보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숙박/음식 시설을 소개하고 있는가
				네트즌이 추천하는 숙박/음식 시설을 소개하고 있는가
				추천 숙박/음식 시설 정보에 내외부 시설 이미지, 가격, 시설 안내 등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여행 안내	30%	콘텐츠/ 사용자편의성	100 %	특산물 정보에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 소개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지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등 쇼핑 정보 제공은 적절한가
				메인 페이지에 일출, 일몰, 날씨 등 지역적 특색 있는 여행 상식 정보가 잘 나타나고 있는가
				지역 관광 안내소 소개 정보는 적절한가
				1330 안내, 문화관광 해설사 안내 등 관광 안내 소개 정보는 적절한가

## 3) 사용자 참여 평가 (대분류 가중치 20%)

중분류	비율	소분류	비율	평가지표
사용자 참여	100 %	콘텐츠/ 사용자편의성	100 %	(포토 이미지, 동영상 등) UCC 코너에 사용자 참여가 활발한가
				(관광지) 댓글 코너나 여행 후기 코너에 사용자 참여가 활발한가

				온라인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용자 참여를 유발하고 있는가
				네티즌이 관광정보(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를 평가나 추천할 수 있는가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 4) 운영 관리 평가 (대분류 가중치 10%)

중분류	비율	소분류	비율	평가지표
홍보	40%	콘텐츠/ 사용자편의성	100%	관광정보에서 행정 포탈 사이트의 메인 메뉴로 표출되어 있는가
				관광 홍보물 신청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가
				지역 관광 통계 등 관광 자료를 잘 제공하고 있는가
				지역의 최근 관광 소식이나 뉴스 등이 사이트에 잘 나타나고 있는가
				지역의 관광정보를 활용한 퀴즈, 게임, 카드 메일, 바탕화면 내려받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광 서비스가 제공되어 지역 관광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하는가
서비스 관리	60%	콘텐츠/ 사용자편의성	100%	사용자의 질의에 신속히 응대하고 있는가
				게시판 운영 목적에 맞게정확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여 콘텐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가 (예. 관광 요금, 관광 시설 안내 정보 등)
				콘텐츠 업데이트 점검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게시판 운영 목적에 맞게 게시판 관리는 적절하며,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의 연락처(이메일 등)는 사용자의 눈에 잘 띄는가
				관광 안내 FAQ 내용 구성은 적절한가

#### 5) 디자인 평가 (대분류 가중치 10%)

중분류	비율	소분류	비율	평가지표
메인 페이지	20%	메인 페이지	100%	메인 페이지에 주요 서비스가 잘 나타나 있는가
디자인, 이미지, 색상	20%	디자인, 이미지, 색상	100%	지역적 특색이 사이트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디자인, 이미지, 색상 등)

화면 구성 요소	20%	화면 구성 요소	100%	화면 구성 요소는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일관성	20%	일관성	100%	사이트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가독성	20%	가독성	100%	페이지 설계 시 가독성을 고려하였는가

6) 영어 서비스 평가 (대분류 가중치 10%)

중분류	비율	소분류	비율	평가지표
콘텐츠	70%	콘텐츠/	100%	지역의 날씨, 자연환경, 여행 상식, 대중 교통 수단 등 여행 일반 정보가 잘 나타나 있는가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 숙박, 음식, 축제 등 관광 정보가 잘 나타나 있는가
				전통축제, 전통체험프로그램 등 지역의 전통문화 정보가 사이트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관광 서비스가 사이트에 잘 반영되었는가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정보가 충실한가
사용자 편의성	30%	상호작용성	100%	지역적 특색이 사이트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메인페 이지 디자인, 색상, 이미지 등)
				동영상, 포토서비스, VR 등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구현되고 있는가?
				FAQ 정보가 사이트에 잘 나타나 있으며, Q&A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의 질의에 신속히 응대하고 있는가

Ⅲ. 2차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지표 (배점: 100점)

1. 평가 기준 (100점)

대분류	비율	중분류	비율	평가내용
관광 정보	30%	관광/레저 정보	30%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가
				관광지에 대한 소개 정보가 잘 나타나 있는가(‘소개정보’가 뭔지 정확지 않아서..) -> 관광지에 대한 일반정보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관광지에 사진 이미지 등이 잘 나타나 있어 관광지의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는가
				지역의 대표적인 여가나 레저 정보가 잘 나타나 있는가
		테마관광 정보	20%	테마 관광 정보에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정보 등이 잘 나타나 있는가
				여행일정, 지역코스, 테마코스 등이 잘 나타나 있는가
		문화 관광 정보	10%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 정보 등이 잘 나타나 있는가
		축제/행사 정보	20%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행사 등이 잘 나타나 있는가
		멀티미디어 관광 정보	10%	포토갤러리, 동영상, VR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제공되고 있는가
여행 정보	20%	여행 계획 정보	10%	여행 상품, 여행사 소개, 맞춤 여행 서비스, 예약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 실제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숙박/음식 정보	50%	숙박 및 음식 정보에 상세한 안내 정보가 나타나 있어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여행 안내	30%	관광 안내 정보는 현지 여행에 도움이 될 만큼 충실한가
사용자 참여	20%	특산물/재래시장	20%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 정보와 재래시장 정보가 잘 나타나 있는가
		사용자 참여	100%	UCC, 댓글, 여행후기 등 사용자 참여가 활발한가
		운영 관리	10%	사용자 질의에 신속히 응대하고 있는가
디자인	10%	디자인	100%	지역적 특색이 디자인으로 잘 나타나 있는가
영어	10%	콘텐츠	70%	테마 관광 정보에 지역적 특색이 잘 반영되었는가
				템플스테이, 스키 등 외국인들을 위한 체험/레저 여행 정보가 잘 나타나 있는가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 숙박 및 음식 정보가 잘 나타나 있는가
		상호작용성	30%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가
				관광 정보의 영어표현이나 어법이 이해하기에 용이하며 자연스러운가?
				관광 정보는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지역적 특색이 사이트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메인페이지 디자인, 색상, 이미지 등)
				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가
				FAQ 구성은 적절하며, 사용자의 질의에 신속히 응대하고 있는가

## ABSTRACT

### A Study on Tourism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on Internet

- Focus on the Major Tour Information Websites in Korea -

Cho, Eunjung

Department of Hospitality &

Tourism Management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basement to build the efficient Tourism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on Internet for the future by surveying the existing domestic Tourism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on Internet.

To accomplish this study 12 standard factors of classification system were selected, and the searching analysis were carried out through directory of 4 important domestic tourism information sites. The 4 objects, tourism information sites selected, were 'South Korean every corner' of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iTourSeoul'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ultural Tour, 'Cheju Special Tourism Province' and 'Cyber Gangwon Tour'. The main analysing object directory were 'Tourism place & resource' and 'Restaurant' information.

The standard of 12 classification systems were selected after reviewing the preceding study of internet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The summary of analysing result of 4 Tourism information sites by these standards are as follows.

#### 1) Appropriate Directory Class

The most information directories of 'Tourism place & Resources' and 'Restaurant' of 4 sites were consisted of 1-2 phased class. As the class is shallow, it is difficult to define whether the expansion of upper to lower class is gradual or not, and whether the causal relationship is logical or not, like existing preceding studies. As the class is not deep, there should be many horizontal directories to accommodate vast volume of conten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dditional directory class to help more delicate search in all 4 sites.

#### 2) Appropriate Directory Width

2.1) Comprehensive of directory: It is to define whether the directory can comprehend every field of the subject or not, and to check the existence of 'Others' directory to comprehend the content of new concept. Though there is no 'Others' directory in all 4 sites, it is necessary to have 'Others' in the directory related to artificial facility, to give room to comprehend the contents of new concepts.

2.2) Appropriate Directory Number: There were directories, image over-lapped between the coverage or unclear boundary in some sites. In case there is directory with unclear coverage of meaning, the information searcher should be complicated. So it is necessary to unite directories with similar concept and to

adjust the number(horizontal width) of the directory by clearing the boundary of coverage.

3) Balance between Directory and Contents: There is large variation of content number of directory depending on each 4 site's tourism characteristic.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earch, by balancing the content number from searching, by setting search option or sub-directory according the detailed subject for directory with many contents.

4) Coincidence between directory name and sub-content: All 4 site have many problems in this section. If the directory class(depth) and width(area) are improper, there may be an error be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directory name and sub-content.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many ideas and to logical ideas, to construct directory and sub-content.

5) Alignment of Directory and Content: All 4 sites have problems in content alignment in directory. By alphabetical order as basic setting it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search. As there are many directories with vast number of content in Tourism information site, the alphabetical order is top priority.

6) Appropriate wording: The appropriate wording can be evaluated by correct writing and consistency of usage. In general there was little problem in all 4 sites. But there were several directory names using colloquial or foreign language. As the site is for public use, it is better to use purified and general word, understandable to every one.

7) Maintenance Management/Update: All 4 sites put ultimate effort in maintenance by updating every related information. This is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to encourage Tourism Homepage of local government. Most of the contents in 4 sites stated initial registration date, amended date and administrative officer, and the information has been continuously updated.

8) Overlapping: In Internet environment appropriate overlapping of information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of search. But it is better to sublate overlapping, not helpful for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search and meaningless. In the directory of three tour information sites, 'KNTTO', 'Cheju Special Tour Province' and 'Cyber Gangwon Tour', overlapping of similar tab were frequently appeared. Those tabs were [by Recommendation], [by Reference] and [by Registration]. To eliminate meaningless overlapping and waste of page it would be better to unite similar tabs, and put a limit on 'Recommendation' and 'Registration' tab to top 10-20 only.

9) Efficiency of Search: The efficiency of search was measured by useful function of various search option and number of contents stated.

9-1) Search option: There is a limit of directory class and width. The various search option could compensate limited function of directory. All 4 sites utilized search options properly, as the directory class and width were limited to take whole retained contents. Despite of such ste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detailed search option additionally to certain directories still with many contents.



9-2) Display Contents number: By displaying number of retained content give influences to information searcher to recognize the size of search result. 3 sites, except 'Cyber Gangwon Tour', increase search efficiency by stating the number of content.

Beginning of 21<sup>st</sup> century active studies of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on internet were made in various fields for specific sector. But for Internet Tourism Information sector the majority of studies were general quality of website, not in the sector of the true nature of classification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formation 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up the base for Tourism information classification standard by review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directory of domestic Tourism information sites.

The analysing result can be condensed into following 2 points.

First, There are insufficient field to fulfil necessary standards to build up efficient classification system in all 4 sites. Among 12 standard factors, 'Coincidence between directory name and sub-content', 'Alignment of Directory and Content' and 'overlapping' showed higher frequency of trouble. This is the actual circumstance of major domestic Tourism information site, gorgeous appearance with variety contents but less awareness to classification system, fundamental of information search and classification.

Second, all standards of 12 classification system are cross-linked. It was found that one standard, not correct, influenced to the other standards.

By this study the standards, which should be considered to build-up

classification system and to compose directory of Tourism information site, and the importance of the classification were reviewed. Tourism researchers continue the in-depth study in Tourism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try to use classification system in quality evaluation of Tourism information site.

This study contained following limits.

First, among various domestic Tourism information sites, only 4 site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Second, the directories were limited only to 'Tourism place and resource' and 'Restaurant'. Third, various interfacing factors of internet site were not studied comprehensively. Fourth, the study of information searcher's actual searching pattern was not carried on, only provable analysis of existing site's classification system was carried. Fifth, There may be a different standard of classification system, that can influence the efficiency of search, other than the standard of 12 classification system factors.

It is expected that the further study, compensating the above limits, will be helpful to set up Tourism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in internet environment and standardization.

Keyword: Classification System, Classification System on Internet Directory,  
Criteria for Classification System, Internet Directory Service,  
Classifications in Tourism Information,  
Classifications in Tourism Resources,  
Classifications in Literature, Tour Information Websites